###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일러두기

- 1. 이 자료집은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용역을 통해 수집된 학장동 생성 과정과 주민생활 변천이라는 주제로 채록된 10명 구술 녹취문 중 핵심 내용만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 2. 이 자료집은 각 구술자로부터 사전에 자료이용 및 도서 발간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하였다.
- 3. 이 자료집은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술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자가 편집·정리하였다.
- 4.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구술 내용 뒷부분 또는 각주를 달아 표시하였다.
- 5. 이 자료집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뒷부분에 구술자료에 대한 해제를 수록하였다.

### 발 간 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지역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채록·정리하여 생활사 관련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집된 구술자료 중 유익한 자료를 발췌·편집하여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와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있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서는 학장동 토박이의 삶은 물론 이주민의 삶, 학장동 사람들의 경제 활동, 사상공단노동자들의 삶, 사상공단조성에 따른 학장동의 변화 등학장동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사업을 진행해 주신 면담책임자들과 구술에 응해 주신 마을 주민들, 자료집 발간을 위해 해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선생님, 자료집 편집과 발간을 진행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 및 연구 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차례

	수[데	
일	러두기	
발	간 사	
<b></b>	대한민국 연표	7
<b></b>	부산시 연표	8
<b></b>	학장동 연표1	0
0	회상: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강옥순 2	
	신차연 3	
	김문자	
	박영조5	
	조영만6	
	이영순····································	
	장등동····································	
	김정님 추미자·······9	
	권영옥····································	
•	밖에서 보는 학장동 - 11	
9	인생 :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강옥순12	21
	신차연····································	
	김문자······ 14	
	박영조14	

조용만155
이영순166
강승봉178
심상범185
추미자193
권영옥202
• 밖에서 보는 학장동 — 2·······210
◉ 희망: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
강옥순 217
신차연 226
김문자
박영조230
조영만234
이영순236
강승봉240
심상범242
추미자245
권영옥247
• 밖에서 보는 학장동 — 3···································
● 학장동 구술자료 해제253

### ◈ 대한민국 연표

- 1945년 8·15광복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 1953년 휴전협정 조인
- 1960년 4·19혁명
- 1961년 5·16군사 쿠데타
- 1963년 박정희 정권 수립
- 1964년 베트남 파병
- 1965년 한일협정 조인
- 1970년 새마을운동 시작
- 1972년 10월 유신
-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천달러 달성
- 1979년 부·마 민주화 운동
-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
-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 1987년 6월 민주항쟁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 1997년 IMF에 구제금융 신청
-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 2017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4월)
-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6월)
-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9월)

### ◈ 부산시 연표

- 1945년 8·15광복
- 1946년 귀환동포 100만 돌파
- 1949년 부산부를 부산시로 개칭
- 1951년 부산을 임시수도로 결정
-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 1957년 부산시 구제(區制) 실시
- 1959년 태풍 사라호 부산 강타
- 1960년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화재 발생
- 1961년 부산항 하역노동자 파업
-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
- 1964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 개통
- 1965년 충무동 일대 화재 발생
- 1967년 영주터널(현 부산터널)개통
- 1968년 전차 운행 폐지, 경부고속도로 착공
- 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
- 1973년 구덕운동장 메인스타디움 개장
- 1984년 부산새벽 청과시장 개장, 구덕터널 준공
- 1985년 부산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
- 1987년 형제복지원생 집단 탈출사건 발생
-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발생
-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발생
- 1994년 동서고가도로 완전 개통
- 1995년 부산광역시로 개칭

- 1996년 구포대교 개통
- 1998년 부산광역시청 연산동 신청사 개청
- 2001년 수정터널 개통
-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폴란드 경기 개최
- 2003년 태풍 매미 한반도 강타
- 2006년 하야리아 부대 폐쇄
- 2012년 부산시 산복도로 순환버스 운행
- 2015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관 개관
- 2017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 2018년 산성터널 개통

### ◈ 학장동 연표

- 1941년 신차연 출생
- 1942년 박영조, 심상범 출생
- 1945년 김문자 출생
- 1950년 학장초등학교 개교
- 1950년 이영순 출생
- 1953년 조용만 출생
- 1958년 권영옥 출생
- 1959년 강승봉 출생
- 1961년 강옥순 출생
- 1963년 추미자 출생
- 1964년 학장동 일대 부산 편입
- 1967년 김문자 새부산 예식장에서 결혼
- 1968년 사상공업단지 조성 사업 시작
- 1970년대 신차연 할머니 월세집 운영
- 1971년 조용만 삼미섬유 실습 활동, 108번 버스 영업시작
- 1972년 박영조 군-입대
- 1975년 이영순, 심상범 부산 이주, 심상범 감전동 소재 목재공장 취업
- 1976년 박영조 북구청 청소행정과 근무 시작
- 1973년 부산교도소(현 부산구치소) 개소
- 1980년 대 중반 학성시장 개장
- 1983년 동양종합아파트타운 입주 개시

- 1980년대 중반 강승봉 구덕민속촌 개점
- 1984년 추미자, 권영옥 부산 이주
- 1986년 삼정송림맨션 아파트 입주 개시
- 1988년 권영옥 동양아파트 이주
- 1992년 추미자 학장 이주
- 1994년 학장동 반도보라타운 입주 개시
- 1997년 학장동 삼성1차 아파트 입주 개시
- 2000년 박영조 정년퇴임
- 2006년 권영옥 반도보라아파트 이주
- 2015년 새밭행복센터 개소
- 2015년 붉은디 경로당 개소



강 옥 순

- 1961년 학장에서 출생
- 학장 본동에서 50년 이상 거주 중
- 현재 새밭행복센터 카페운영위원장

학장에서 나고 자란 강옥순 어머님은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녀가 일하고 있는 새밭 행복마을 까페를 찾을 때 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 마을의 기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지금은 변해버린 마을의 옛 풍경을 그림 그리듯 말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학장동 토박이들과 아파트 건립 후 유입된 이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혀가며 학장동을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꿈이라고 살짝 말해주었다.



신 차 연

- 1961년 학장에서 출생
- 학장 본동에서 50년 이상 거주 중
- 현재 새밭행복센터 카페운영위원장

신차연 할머님은 학장동에서 출생한 토박이였다. 처음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귀찮아 하시면서도 우리의 질문에는 툭툭 던지듯 답을 해주시는 쿨\_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촬영을 하려니 부끄럽다며 선글라스를 척하고 꺼내어 쓰는 소녀 같은 모습도 갖고 있었다. 과거에는 사상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모여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문 자

- 1945년 일본 출생.
- 해방 이후 붉은디 마을로 이주.
- 과거 양장점 운영 경력.
- 현재 붉은디 경로당에 출입.

김문자 할머님은 경로당에서 가장 옷을 멋지게 입고 계신 분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패션 센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했다. 일본에서 출생해 학장으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며 힘든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학장을 떠나 양장일을 배운되,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며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다시 학장으로 돌아와 이렇게 지내고 있다며 가벼운 미소를 보였다.



박 영 조

- 1942년 일본 오사카 출생.
- 1945년 한국으로 이주.
- 사상구청 환경미화원 근무 후 퇴임.
- 현재 붉은디 경로당 회장 재직.

박영조 할아버지는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과 함께 학장으로 이주했는데 여러 가지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에 사상구청 환경미화원으로일하며 부인과 함께 만족할 만한 삶을 보냈다고 회고하였다. 박영조 할아버지를 통해 공단 형성과 함께 시작된 학장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극복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현재는 경로당 회장일과 함께 여러 곳으로 봉사를 하며 즐겁게 지낸다며 너털웃음을지었다.



조용만

- 1953년 학장 홍개마을에서 출생
- 1980년 수영으로 이주했으나 마을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
- 군무원으로 재직 후 퇴임. 현재 학장 초등학교 동창회 및 본심회 활동 중.

조용만 아버님은 학장동 홍개마을에서 출생한 토박이다. 지금은 찾을 수 없는 홍개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 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집으로 이끌었다. 사진자료를 비롯해 각종 서류, 전승설화 등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을 잊지 않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홍개뿐만 아니라 학장 일대의 다양한 이야기와 지형, 지명에 대해 막힘없이 술술 풀어놓는 조용만 아버님 덕분에 우리는 순간 옛날이야기를 듣는 꼬마시절로돌아가 있었다.



이 영 순

- 1950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
- 1970년 대 중반, 학장으로 이주.
- 남편과 함께 새밭에서 영순상회 운영 중.

이영순 어머님은 경북 합천에서 태어났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초입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가게는 새밭마을의 역사가 오롯이 녹아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척이나 많았던지 방에 앉자마자 생선을 팔던 이야기, 첫 자가용을 구입한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와 손짓발짓으로 통했던 이야기를 하며 까르르 웃어댔다. 잘 삶은 땅콩을 한 접시 내어주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녀를 보며 빈집이 조금씩 늘어가는 새밭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강 승 봉

- 1942년 경북 청송에서 출생.
- 1986년 감전동으로 이주.
- 동년 학장 송림맨션으로 이주.
- 사상공단에 위치한 목재공장에서 근무함.

강승봉 아버님은 큰 덩치에 무뚝뚝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무척 자상한 성격이었다. 구덕재와 구덕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 영업을 하는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구덕마을에 오리고기집이 성업 했던 90년대 당시 학장동의 풍경은 물론이고 학장동과 대신동의 연결지대로 구덕재 마을의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 서도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었다. 식사를 사양하는 우리에게 다음에 오면 배터지도록 오리고기를 먹고 가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심 상 범

- 1959년 학장동 구덕마을에서 출생.
- 구덕재(구덕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
- 현재 구덕민속촌 오리고기 식당 운영 중.

심상범 할아버지는 한가롭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는데 필자와 성(姓)씨가 같다며 무척이나 반가 워했다. 심상범 할아버지는 경북 청송에서 출생하여 한국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뒤, 산업화 바람과 함께 형성된 사상 공단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그가 일했던 목재공장은 주물공장 등과 함께 사상 공단의 대표적인 업종이었다. 그를 통해 힘들었던 목재소일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추 미 자

-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출생.
- 24세에 부산으로 취업과 함께 이주.
- 현재 학장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새밭 행복까페 일도 함께 하고 있음.

추미자 어머니는 고흥에서 출생해서 취업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했다고 했다. 학업을 더 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형편이 점점 나아지며 학장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로 이주하던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외부에서 유입된 여성이 학장동의 구성원으로 변해가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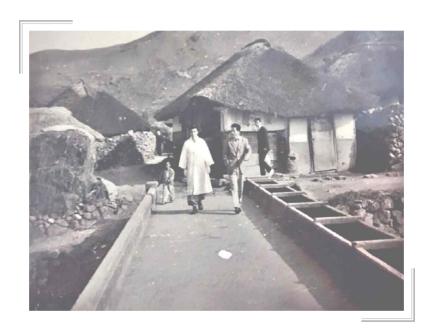
권 영 옥

- 1958년 경북 경주 안강읍 출생.
- 1984년 부산으로 이주.
- 1988년 학장동 동양아파트로 이사 후, 2006년 반도보라아파트 이사.
- 새밭행복센터 까페에서 자원봉사 경험.

권영옥 어머니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동향의 남편과 결혼을 하며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고향이 댐 건설로 수몰되어 지금은 학장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그녀는 부산 곳곳으로 이사하며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양육을 모두 잘 이루어냈다며 스스로를 대견해 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과 기억을 통해 힘든 시절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包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 사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익단 부산, 부산시 학장동에서 태어났고 요. 시집을 가고 나서 원지에 있다가 어머니가 동아가시고 다시 아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안 같이 하기 위해서 등어운 지가 십 한 오 년 정도 됐습니다. 형제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동아가시고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살기위해 다시 이곳으로 등어온 거죠. 그때부터 계속 학장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사셨는데 예전에는 학장동도 부삭처럼 강씨, 박씨, 연씨, 신씨 해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지급은 박씨가 제익 많아요. 항아버지 때에는 강씨가 많았는데 아버지 때부터 많이 없었어요.

##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항아버지가 소 장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장사가 억수로 부자였거든요. 제가 어색 때는 집 뙤양간에 소가 있었으니까요. 학장에 뙤양간등이 많이 있었어요. 지급은 공단이지만 예전에는 사방에 풀이 나있어서 소가 먹을 수 있었어요. 마을에 어떤 분들은 집에 소가 7~8마니 되는 집도 있었어요. 도산장도 있었는데 지급은 도축은 하지 않고 그 형태가 남아있어서 육가공은하고 있어요.

### 예전에 살던 곳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지급도 저희 집이 건물만 바뀌었을 뿐이고 위치는 그대로 지급 학장 교차로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구나무 거니라고 불렀어요, 포플러나무를 포구나무라고 불렀는데 그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었어요, 아버지 땅로는 학장천으로 배가 들어안서 거기에 배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게 매십되면서 거기 있던 포구나무도 없어졌죠, 어실 땐 거기서 많이 놓고 그랬어요,



### 포푸라마기가 유흥가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는 데 어머니 때도 있었어요??

포푸사마치산 하면 사식은 사상등이 벽로 안 좋아하 니더, 포푸사마치산 자체가 익종의 퇴폐적인 느낌이잖아요, 우리 학장 사상등은 포푸사마치 많이 가더라고요, 남자 등이, 학장동에서는 그냥 유흥가가 있어, 아까 말했지만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6

그런 식으로 놓이문하가 거의 유흥문하인데 거기 포푸 산마치는 퇴폐문하인 거야, 그러니까는 인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뭐냐면 여기서 1차 항 잔 탁 격치고 2차로 포푸산마치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1차는 여기서 인제 배 존 채우고 항장하면서 기분 좋게 해가 지고 2차를 포푸산마치로 가요, 그쯦에는 포푸산마치에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그게 어디 쪽인가 하면은 감전 시장 그 주변이 포푸산마침니다.

## 과거 마을의 풍경은 어땠나요?

강자기 70년대에 공장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하수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여기가 낙동강보다 수위가 낮다보니까 묵이 자주 ኪ찮하고 나가지를 못해서 차는 거나고보면 되지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묵이 나갔던 곳을 공장이 딱았다 보면 됩니다. 여기가 뻗이나서 묵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포구나무 거니가 있어서 배도 대놓고 묵도 빠지고 했는데 거기를 매입해놓으니 그렇게 된 거지.

학장 자체는 다 논밭이었어요, 학장동의 70년대 초반응 보면 우려 TV에 나오는 시곡 풍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드문드문 잘 못 사는 초가집등이 있고 기완집도 있고 숙례이트집도 있고, 뭐 그런 시곡이죠.

제가 어덕 때는 저희 집 골목 덫은편 아래쪽에 다다 미집이라고 익본식 다다며를 직접 만드는 집들이 몇 집 있었어요, 그때는 익본식 집이 많이 남아있었으니까, 다다며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바로 그 집에서 불이 났어요, 다다며를 갈대로 만드니 역마나 찬 타겠습니까, 그해 밖에 자다가 붙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풍경이었어요, 앤냐하면 집이인제 그기 인자 좀 따닥따닥...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집이 이렇게 그 곡목지을 두고 쭉 붙어 있는 집이었거든요, 원락에 있는 집등이 아니고, 근데 땅약에 그 몇 집이 타면 전부 다 타니까, 그 때 밤새도록 어르신등이 딱물 퍼 나르고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라고 꽃동네가 지급도 억새품이 유명하지만 억새도 따찬가지고 저 학장천에도 그렇고 여기 이 새밭마응도 억새하고 강대가 않았어요. 늪지가 되다 보니까.

## 인상 깊게 남아있는 마을 장소들이 있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친환경 학강천? 다숙기도 있고 뭐 산딸기도 따묵고... 저희등이 겨울만 되면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학강천 그쪽에서요. 그 정도로 애등이 초등학교 애등이 거기서 농 정도였으니까. 묵이 장 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등이 어녁 때는 지급은 팥빙수나고 하지만 옛날에는 신한당이 있었거든요. 눈 오면 단지 위에 눈이 딱 소복이 쌓여있어요. 그라면 그걱 신한당 타가지고 묵고. 또 초등학교 때는 뭐 메뚜기는 기본이고. 아니 앤 그러냐면 학장에 논라 밭이 다 있으니까. 아까도 애기했지만 친환경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먹고. 그나고 초등학교 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저녁도 아니지, 학교 방라 후 뚝 때 인자 이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으면 요 오는 길이 전부 다 밭이고 논이었거든요. 그러면 찮땅밭 무슨 오이밭, 무밭 이건 거 다 있거든요. 실 가다가 그냥 쓱 그냥 다 무 하나 예사로

서너지, 쓱 해가고, 근데 껍진이 어떠냐면 지급 나오는 무하고 다른 게 껍진이 이렇게 이빨린 딱 하면 뺑 벗겨 지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 픽요가 없었거든요, 그런 그거 그냥 무 묵고, 오이... 콩도 콩서니나 하지예, 콩도 저희 등이 콩서니도 해가고 까묵고... 옛날에는 그걱 크게 뭐 나 하진 않았으니까... 양도 좀 적고 조금씩 가져가니까.

## 상수도가 없을 때 물은 어디서 구했나요?

마을에 우묵이 몇 개 있어서 거기서 묵을 긷는다거 나...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저희는 우묵이 있었어요, 우묵이 있다가 어느 순간 퍿프가 당시가지고 이거 묵 넣고 그내... 묵은 걱정 없었어요, 빵대도 익종의 세탁기 살까 착장천이 세탁기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따찬가지였는데, 빵새흥그러면 다산이산 하지예? 다산이에 가마솥, 아니 그거양은솥이산 그산나 그 앤 하얀... 양은, 그거 하고 비누하고 방망이 등고 인자 겨울에는 안 되지만 겨울에도 빵새흥 했긴 했어요, 추위도 했긴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장천가면 거기서 없다들은 빨래하고 저희등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초등학교 친구등 전부성벽 상란없이... 팬티만 격치고 놓고 있으면 없다들은 모여서 이 동네 사상방이죠, 그쪽에서 따 빨래해가지고 삶을 거 있으면 바로 거게 동등로 쌓아가고 붛 때가 삶아가지고 방망이진 해가고 낮에 땡볕이 따가우니까 그냥 동에다가... 걱어놓으면 저전로 많산 가지고 그산면 걷어오지.

### 어릴 때 기억하는 강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낙동강에는 언마 따라 몇 번은 갔습니다. 재첩 私으러, 우리는 낙동강에서 놓진 않고 학장천에서 놓았어요. 깨끗한 물에 놓았습니다. 학장천이 깊이 같은 경우, 물 색깔이 어떠냐면 파산색을, 파산색이 안 보이는 뭐나 파 산색이 안전 파산색인 것도 있고 아예 짙은 녹색이었던 것도 있고 그 정도로 이니 보면 밑에가 정말 서능하다 고 하나? 그 정도의 깊이고 사고한 죽은 애도 있었고 그 내 요, 물이 언청났었어요, 폭은 그닥 안 넓어도 깊었어 인, 그나고 저희들이 어역 때는 뭐나 그럭까 뭐 폭도 넓 은 것도 있고 어른들이 노는 곳이 있고 애들이 노는 곳 이 있고, 그나고 옛날에는 뭐냐면 어른들이 보양식으로 개흥 많이 드셨어요, 그나면은 개흥 덱꼬 산으로 가가지 고 산에서 다 해가지고 그서 뭐고 다 샀고 그래가 묵고 그냥 깨끗하이 씻고 딱 집으로 오시거든인, 그냥 그 물 이 친환경이상니까 그냥 묵은 가지고 그냥 끓여서 먹어 도 될 정도로,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30

## 학강동에서도 개첩강사를 하셨어요?

저희등이 또 여기 학장동 하고 언궁동, 감전동도 아마조근 그럭 거예요, 재첩국 장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언마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 재첩을 참아가지고 집에서 재첩을 삶아가지고 재첩국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자 재첩을 그 뭐な니까 체치고 나면 버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인자 그 껍데기 안에 다 무치고 났은 거 같고 그 옆에 앉아이가고 얼마는 이거 하고 있고 나는 그거 뽕가 묵고, 그 앤 그러냐면 그게, 뭐나는 진국이거든예, 안전 진국이거든요, 그나고 그때만 해도 낙동강 재첩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재첩이거의 없다시피 하지, 그런데 언궁 사상, 학장 사상들이 프분들은 재첩국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저희 얼마가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인자 뭐 가스북도 아니고 아궁이 북 때가지고 하는 거 봤지...

팔러 가면 주로 인자 주례, 그러고 그 위쪽으로 서면 쪽으로도 가고 그랬어.

## 학장소등학교는 어느 지역 학생들이 주로 입학했나요?

학장초등학교가 어떻게 다녔냐면 우리 학장동, 언궁동, 주예동, 72전동 익부가, 그러니까 4동에 아이들이 우리 학장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지도를 보면 언궁, 주예, 72전 딱 중간에 학장이 있어요,

## 예전 학장동 주변으로는 학장호등학교 밖에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등이 여기는 초등학교 아 국먼학 합니다. 그때는 국민학교가 저 학장초등학교가 학장에 하나밖에 없었고 인자 중학교등 가려면 서면으로 가야해요. 그... 친구나 그래야 되나 친구로 중학교등 가야 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러니까는 여기 학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로 가고 인단 중학교는 서면, 친구 쪽으로 다 갔죠. 학장동에는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남학생등도 따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는 덕명여중 나았습니다. 서면, 벣내용 그 위에.

## 구덕고개를 넘어 다니기도 하셨어요?

그때는 구덕고개층 넘어가기가 정말 힘등었거든요, 액 그러냐면 산이니까, 높고 지급은 뭐 벽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만 해도 높았거든요, 옛날에는 그기,,, 야시 곡짜기나 그나거든요, 여우가 많아서, 그 가면 으승으승 합니데이, 묵도 정말 차가고 산이 깊고 시원하고 그 묵 이 인자 학장천 익로 내려铅가지고, 또,,,그러니까 그 묵 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역 감고 다 했으니깐요,

## 꽃동네가 가까운데 그곳으로 눌러 가신 적 있나요?

저희등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당공 소풍 장소가 꽃동네였습니다. 초등학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32

교에서 쭉 격어서 그 언덕 그 배양에1) 그쪽에 좀 평평하고 좋은데 가가고 5시삭 까묵고 그랬지, 그는 꽃동네 나 하는 이유가 그쪽엔 그만큼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꽃동네가 된 겁니다. 진짜 꽃은 키우는 하훼 단지가 있었다니깐요, 우너 꽃동네는 그냥 꽃 키우는데, 우너는 꽃동네 하면 그냥 그거 한 격호 생각하지 거기에 뭐 닫니 벽다르게 생각은 한다든지 다른 이며지가 떠욱신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쪽이 환경적으로 좋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꽃등도 많이 키웠다고 어르신등이 그랬거든요, 그 내서 저희등 같은 경우에는 꽃동네라 그러면 꽃 많이키우는 곳이라 생각하고 소풍도 우리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쪽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모이면 중 서가지고 초등학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야시골짜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 가고 도착하면 다 흩어지가 거기가 넓잖아요, 흩어지가지고 그다은 게 입하고 밥 묵고 엄마가 싸준 도시삭 그 묵고, 그라고 인자 놓다가 다시 중 서가고 쭉 내려와 가고 초등학교에다시 았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엄마들이 나와가고 잘갔다 았다 그랬죠, 그 길을 지나가니까 엄마들 다 나와가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 예전 집이 꾸덕년 근4셨는데 공사 할때 기억이 나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자기 변했다기보다는 평상시도 친정이 있으니 않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뭐

<sup>1)</sup> 언덕배기 아래에

콘 게 뭐 눈으로 나는지 신적으로든지 '아'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적은 없어요, 저기 구덕터넣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구덕터넣이 생겼거든요, 84년도에 생겼어요, 그기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뭐냐면 저희 집이 바로 지급 도로 가에 집이 있었다. 지급은 도로에 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생깁으로 해서 저희들이 냉정으로 주례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를 가 있는 완중에 도로가 생기고 집을 짓고 다시저희들이 학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지어야지 도로 생긴다고 집이 뜯겨져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잠깐 나갔다 터널 때문에 나갔다 왔지, 그랬다가 그게서 지급 현재 그 지어져 있는 그 건물에서 계속그대로 있는 거지예.

## 구덕터널의 개통으로 마을이 많이 변했죠?

언청 변했죠, 세련되어진 거지, 주례는 인자 조급 뒷전이 되었지, 주례는 조급 나갔고 학장이 그때는 주례, 언궁 보다 학장이 제익 나았어요, 각이 뚫나는 것도 있지만 공단이 안전 포함 상태여서 안전히 확성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구덕터널이 뚫식 그전에 인자 공단 지역이 되고 구덕터널이 뚫려서 교통이 편니해지니까 학장이 이제 안전 황급기였다고 보면 되죠, 시장도 생기고학장동에 인구가 언청 많아지고 밖만 되면 시끄러웠어요, 원내 학장동이 조용하던 곳이었는데 공장 지역이 되면서 연부, 인지에서 사상등이 언청 등어았죠, 그니고 또 뭐가 됐냐면 지급으로 치면 쪽방촌이지,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있는 집이죠, 그게 인자 지급 기존의 집을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그런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방세

흥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장동이 완전 확성하가 되고 유흥가도 생기고 요쪽 콧구녕만 한 학장 에 나이트클럽도 있고 노래방도 있었으니까 진짜 황근 기였죠,

시장은 그 지급 어디 있냐고 보면 되냐면 세원교차로 쪽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나고 어떠냐면 지급 본동 경로 당 있더나 아입니까, 거 건너편에 구덕터녁 쪽 많고 반대편에, 김 건너편 많고 이쪽으로 보면 지급 5층짜니 건물이 하나 있어요, 북교 전시장이나고 있는데 그 옆이 바로 시장이었지, 지급은 완전히 죽었지만 그기 시장이었습니다, 새벽시장의 축소판이었지,

## 할머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위 가고 소개해야 좋을지... 1941년에 학장동에서 태어 났어. 가족이 오빠 둥, 내,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어. 우 니 아버지도 여기서 났는가는 아버지가 동아가셔서 모르겠네. 아버지도 여기 샇았어. 아버지 형제등도 다 샇 았거든,

## 아버지는 학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시 아버지는 익도 못 하고, 아버지 형제가 3형젠데 아버지는 딱내이가 되노니 익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항 중도 모르고, 우니 작은, 아버지는 익본 계싯고 그다은 큰아버지가 농사짓고 했지, 우니 아버지는 농사도 못 졌어, 우니 세원 로터니 딱 지나서 다 저 떹에 동네 그 전부다니 꺼 다니에 호띠 다니에 묻이 요 우에서 구디(구덕) 공짜기에서 뭏이 내려싼가 이 뭏 받아가 농사 다 졌거든, 이거는 우쪽이고 아래쪽 요 요기 인자 저거 저학장 다니 끈티(끝에) 집이고, 요 덭에 전부 농사 졌어, 이 혼응 파가 이 혼에 뭏로 대가, 지금 보모 세원로터니가 하천이지, 또상 다니지,



#### 할머니 어머님은요?

언마는 초읍 사람이나, 옛날에 원갓집에 강나 카모 차가 없잖아, 그래가 부산 저저 주례 청고 가에 집 있제? 주례 청고로 가지, 청고, 그거 따라 푹 가가 인자 지근 부양동 그쯤 되나? 하야라아 부대로 해서 하다정으로 해서 초읍못으로 갔어, 옛날에는 초읍에 못이 있었거든, 원갓집에 강 때 걱어서 하다정 있는데 글로 갔지,

#### 길이서 오래 걸리셨겠어요!

오래 건렸지, 그래가 우리 억갓집은 가모 아래윗집이 전부 기안집이고 다 부자라, 억갓집은, 그래 또 하나는 아래깍, 웃깍<sup>2)</sup>이 있는데 그 초읍에 한 집만 못 살았어.

<sup>2)</sup> 경남지방의 어르신들은 아랫마을을 아래깍단, 아래깍이라 불렀고 윗 마을을 웃깍단, 윗깍단, 웃깍, 웃깍단으로 불렀다. 경남지방 특유의 방언이다.

우리 억갓집도 부자고 우리 집안에 함배 집에도 부자고 그때만 해도 아내위층이 다 기약집이고 그랬어.

기찻각을 따라서 하야니아 부대 옆으로 해서 양정 그 국다니 있제? 국로 드가는 그 위에가 하따정이나, 극로 똑나가가 그내 초읍으로 갔어, 그내 가면 초읍에 그 못이 있었어, 옛날에, 그때만 해도 한 10살 먹었는가 그갰다,

#### 할머니가 기억하는 집은 어땠나요?

세원호터니에 저기 딱 가면 옛날에 저 자니 조급 앞에 새마윽급고흥 했어, 지급은 팔아가 안 한다고 적어났어, 그 새마윽급고 자니가 우니 터나, 우니 집 터나, 새마윽급고 전에는 집이 쪽쪽 있고 고 옆에 인자 구덕터 넉 닦아서 그렇지, 도로가 있었다.

<sup>3) &#</sup>x27;땅에 심다'의 경상도 사투리.

#### 옛날에는 학장 안에 마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시 큰아버지는 아내, 동네 아내 각단에 상았어, 우리 사는 요는 웃각단이지, 저 떹에는 인자 세원 있는 조 떹에는 아내 각단, 저쪽에는 학성, 요 또 많은 냇거흥, 냇거흥 거도 옛날에는 집이 몇 채 있었어, 지급은 없어졌지, 디 떠내려가서 극치 예전에는 집이 있었어, 저 인자 냇거흥 위쪽에는 참새며, 저쪽에는 인자 붉은디, 참샌이거니 조 있는데 저쪽엔 붉은디, 그리고 요 떹에는 새밭, 새밭은 못 살고 아내각단, 웃각단은 잘 살았어 옛날부터, 거 넓어서는 인자 큰뻔디기, 옛날에 큰 뻔데기나 캤다, 그내가 그 학장 국먼 학교 있는데 거는 홍개,

옛날에는 아내각단 요 웃각단에 사는 사업은 원내 옛 날부터 양반이고 본동 여 살면 양반이나 그랬고 저짝에 학성 저쪽에 사업은 좀 숙집도 많고 개구신<sup>4)</sup>도 많고 그 내... 숙 묵고 가는 사업도 많고 노름하는 사업도 많고... 그내 좀 동네가...

지급 학성이 어데고 하모 저 세원로터나에서 주례 쪽으로 가지 않 인 일에가 학성이나, 학장에는 웃각당 웃각당에 여는 신씨가 많고 저짝에 아내각당에는 박씨가 많고 그랬어,

산비탕에 옛날에 집 없었어, 지급은 다 생깄지, 지급 우리 경호당 있는 거도 옛날에는 경호당이 안 생깄어, 전부 신씨등 살았고, 새밭 저도 몇 가구 안 살았어, 요새 집을 많이 짓고 아파트 등어서서 그렇지, 그 때만 해도 몇 가구만 있었지, 큰 뻔데기나 하는 그는 지급 사強이 세 가군가 네 가군가 그내 살았어,

<sup>4)</sup> 술주정, 심술, 훼방 등의 뜻이다. 이러한 행동이 심할 때에 주로 쓰며 경상도 사투리인 '쥑이다(직이다)'와 함께 '개구신직인다'고 한다.

본동이상 아내각단, 웃각단, 학성에 사산등이 많이 산 있고 붉은디도 쪼때 있었고 홍개 거기는 전부 논이나 학장초등학교 옆에 이쪽으로 치모 또상가 옆에 전부 문구덩이야.

## 그 물구덩이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 신익 급속 그가 우니 논이 있었거든, 학교 뒤에 그때, 한 마지기 하이튼 여섯, 여섯 마지기가 그때는 한 마지기산, 그내놓이 여 끝에서 끝 봉사하면 전부 보기 힘든다. 논이 집어가고 어쩌면 소급기 든다캤다. 그도 우니 논이 거 있었기 때문에 비 자주 오모 나삭 못 묵는 기산, 뭏꾸디기인데다가 날이 또 가뭏면 농사는 잘 됐는데도 소급 치는 그 성진은 좀 있어 논이, 우에서 쌔너물로 치이까네 뻑건 묵이 치모 논이 또 농사가 안 되거든, 또 그런 끼는 있었어, 깔밭으로 인자 사가고 논은 안들었거든, 그래노이... 옛날에는 학장 국민학교 그 이래 댕기오 비나 오고 그러면 따끄러바서 진짜 힘든다, 댕긴 나카오, 땅이 매끗매끗해.

####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할머니 10살씀이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안 해도 이 동네 뻑개이가 왔어, 뻑갱이 왔다 간 소니는 들었지, 대십아파트 그 먼데이5)에 뻑갱이가 국로

<sup>5)</sup> 산꼭대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산만디를 산만데기라고 말하고 있다.

파놓고 있었는데 학장 사업 창명이가 봤어, 나무하러 가가 보고 그 사업이 밖에 어디로 댕깄나 하모 지급 빵도 아파트 학장여중인데 극로 댕기써 밖에, 여러 사업인가 국로 파 놔서 우니가 나무 캐러 가가 국로 봤는데 국이 깊었어, 그때만 해도 딱 타고 그래 간첩 작으러 갔다고 하더라고, 피난면도 많이 오가 생긴 생았지, 근데 전쟁끝나고 나서 다 나갔어,

# 학장국민학교를 다니셨는데 등굣길 풍경 기억 나세요?

풍경은 뭐 옛날에 뭐 전깃북이 있나, 그 피난 완가 송 신소라고 하나 만들어져가 있었어, 학장국면학교가 두 칸 있는데 거서 인자 전깃북로 줬어, 요 가정집이 쪼메 있어 캔프에, 학교가 그때는 전쟁 통이니까, 학장 초등 아니 국면학교가 그렇게 딱 학교 모습은 갖췄지, 학장 초등학교가 그때는 두 반뿐이나, 하나 송신소 있었고,, 피난면이 완가 거기에 송신소가 생겼지,

학교서 기역, 니은, 익이샸사, 애국가 이런 거 배웠는데 옛날에 뭐 국민학교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잖아. 나는 사상국민학교 댕기다가 용로전학 왔어. 옛날에는 학장국민학교가 커지가 주계 학생 등도 학장에 오고 언궁 학생등도 학장에 오고 그랬지. 그때만 해도 그래 합치가 했는데 우니가 커뿌고 우니아등 큰 적에는 한 학년에 14반까지 있었다. 지금은여섯 반이 있다 카든가?

#### 동네에 다다미 만드는 집이 있었다고 하던데..

다다며 치는 사람이 있었어, 세원로터니 그 있제, 도로가 가쪽 그 밑에 로터니 지나서 주례 가는 김 아인교, 거기어데 다다며 짓은 끼다, 다다며 집이가 하나 있었어, 저쪽 파충소 있제? 저쪽 파충소, 파충소 그 내니가 이쪽에는 뭐 묵구덩이나, 거기 옛날에는 논교동도 많았어, 강대는 저 밑에 내려가야 강대교, 이 동네는 다다며 까는 사람 병로 없었고 다다며를 만들면 다른데 팔려 가데, 지근 부평동 시장에 가면 다다며 파는 집이 있어,

####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인 동네 사상등은 뭣이고 공장 댕긴 중 아니? 공장도 못 댕기지, 그래노이 농사짓는 사상은 농사짓고 살았어, 그래도 옛날에 여서 동아대 댕기는 사상도 많았어, 지근 은 하단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대신동에 있었으니까.

# 새밭 쪽에 왜 술집이 많았어요?

옛 성부터 숙집이 많고 노흓하는 사상도 많고, 그기 동네가 그런 동네산, 옛 성부터, 딱겨서 팔고,,, 노흓도 붙이가 하고 그런 집이 많았다, 옛 성에는 그 동네가, 그러고 또 구신이 많댔다. 학성이 그래가 우리는 어겼을 때 강익이 없었어, 숙집밖에 없으니까,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42$ 

## 가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1945년 익본에서 태어났고 현재 학장동에 거주 하는 긴문자입니다.

####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아버너이 인자 다대포가 고향인데 옛날에 저기가 온 살다 보니까 익본에 돈 백나고 등어갔었어요, 그래가 익본서 어머너하고 격혼도 했지, 언마도 한국 사상이야, 그래서 한국 나악가 격혼해가 또 등어갔지, 익본 계시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저 넣고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거기있던 한국 사상등은 다 나오게 됐어예, 익본 오사카 다부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넛집에 계셨다더라고, 처음에는 쪽병으로 등어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너이 익본 등어가셨을 때 하시는 않씀이 그 어느 큰 요너집이다 하더라고예, 거기 등어가니까 처음에 따당을 쓸어나 하더래요, 그래서 따당을 쓸더 보니까 무슨 큰돈이 흘러져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그래서 그것인자 주위 주인을 줬더니 익본 그 주인이 그 길로 딱어버너을 얻고 익을 맡겼지,

#### 한국으로 왜 돌아오셨어요?

익본에 있다가 왜 동아았냐 하면은 기반도 좀 끊았고 돈도 벗었는데 그것도 복이 없을 나니까 우리 외할머니 가 인자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없다가 집으로 %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갖다가 우려 위한머니 보고 다 줬어. 한국 나악가 이까(이것가지고) 논하고 집하고 사상사고 줬더만은 우리 역할머니가 어디 계셨나하면 우리 이모집에 큰이모집에 인자 그 상았지. 딸집이 다 학장 살았거든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 났드만은 이 보, 이모부가 그 돈을 갖다 다 자기 거 사버리고 집도 자기 꺼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자 처음에는 아버지는 익 때문에 빨리 안 오시고 언다만 우리 데고 먼저 나았 던 거나예, 그런데 바로 옆에 인 계곡, 또상 안 있어인? 인내 있는데 이모부는 약간 뽃나가는 계단을 해가지고 아내채, 위채 기완집 안들어서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예. 그런데 그때 한 번 비가 많이 악가지고 큰몫이 나가지 고 다 이 계곡도 완전히 친수되고 또 인짝으로도 묵이 쏟아지가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 때 어디있었는 하면은 요 고양 복판에 위할머니가 사시는데 거기에 우 선에 살았거든 인, 집도 뭐도 없으니까네 그서 이내 살고 있는데 이모부가 하도 그때도 다 즈그가 액시를 하고 우니보고 딱 그내가지고 언마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 는기나, 그래놓으니 아버지는 마 성진이 급하거든, 그래 가지고 당장 뛰나만 가지고 저기 이모부집 그거 다 내 사안차뿐다고 도끼로 가지고 기안집은 따 찍고 이겠다. 난중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아버지 손으로 지어서 우리가 글린 이사 갔어예. 붉은디 그 위에 있는데 여기서 바린

#### 어린 시절 마을 모습 기억나세요?

구덕, 그 옥사가는데 고 조근 옥사가면 있거든요, 내나 참새띠에서 조근만 옥사가모 그 우니 친정이 그 있거든예, 근데 그 때만 해도 고 앞에 전부 다 논이었어 예, 전부 다 이 집등이 전부 다 논이야, 여기 옥사았는데 는, 그런데 인제 집으로 다 지가 상지,

하천은 여기가 원내 큰 하천이야, 학장천 저거는 주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이거는 인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전에는 이 물이 참 많았어예, 약국도 하면은 터 년호 뚫고 나서는 그 물은 갖다가 다른 데호 이니 흑러가게끖 좀 해놓고 이내놓으니 그렇지 전에는 이 물이정말 좋았거든예, 그리고 우리 큰 때는 노다지 고양 물에서 목욕도하고 이랬거든예, 그때는 메기도 많이 작고했어요, 그나고 뭐 빨래 같은 것도 계곡에 가가 하지 우니 뭐 요새같이 수돗물이 있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우니가 크면서 익호 벽호 안 해봤어요, 완 글 노하면 위에 언니들이 있고 털에 동생들이 있고 이러니 난 또 익하는 체칙이 아이나, 그래가지고 익도 안 하고 따 무조건 방 무나고 부르면 안 묵는다 카고 따 저게 따당에서 깡통이나 차고 놓고 이랬거든, 그나면은 인제 방무나하면 안 묵는다 캐놓고는 그때만 해도 방 한 끼도 안 묵으니까 아침에 늘어지가 익나도 온 해, 그 당시는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가 목사도 내가 그랬어요, 우니

아버지는 배운 데는 없어도 이 지식, 삶의 지식은 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늦어져가 있으면 빵을 강자기먹이지 않고 죽을 끓이가 주나 카고 이겠어. 우리 보고도.



#### 국만 먹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언마가 저 국제시장에서 식당을 했거든예, 그래하니까네 우리가 방찬 온 묵고 이런 거는 없었으예, 그때만 해도 피낭면등 상대로 해가지고 식당을 했어, 피낭면등로 상대를 많이 하니까 그 식당 하는 것도 많이 떠이가, 도당 안 가도 마 묵고 나서 없다 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서 크게 벽이는 건 없어도 우리가 사는 데는 뭐없이 상고 이거는 안 했어예, 그때만 해도 항상 뭐 쌀밥묵고, 내가 기억이 나는 거는 쌀밥만 먹고 뭐 이겠지, 방찬도 뭐 아버지가 3억만 소고기 같은 방찬 안 해주면은 기운이 없어 억 온한다고 마 고함을 지르거든, 그라면 또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고 또 닭도 많이 키았어예, 닭도 그때 한 500마신가

하이튼 이내 키았어예, 그때는 이 따음에 닭 많았어예, 많고 진짜 부자등은 여 밑에 여 다 있는데 거 지금 그 집 찾응산캐도 못 찾는다. 많이 변해가지고,

#### 마을에 있는 참샘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나요?

아내깍단에 사성등도 다 익호 묵 긴어 왔어, 앤 글노하면은 그도 묵이 있는데 샌이 있는데 여따이 묵이 안좋아, 그때는 뎉에나고 묵이 추접은(지저분한) 묵이고이런 건 없었거든예, 그런데 이 창새띠는 여름에도 묵에손대면 억음 같아, 그래놓이까네 우너 집도 지어서 간데도 저기 새띠를 아버지가 먼저 파놓고 집을 짓고 이내 놓이까네 집안에도 새띠가 있었어요 우려도, 부엌에딱 샌이 있고 또 이런 그거를 갓다가 쪽대로 가지고 그때만 해도 풍나스틱 그런 기 마이 없으니까네 저기 뭐고 강대, 대나무 고거를 혼을 파 가지고 밖에까지 묵긴을 만들었어요, 지급도 아직까지 집에 새띠가 있어요, 그묵은 아직까지 나안, 근데 인제 그 묵보다는 참새 묵이 참고 더 좋아, 우려도 인자 뭐 되게 차운 묵 묵고 싶으면은 뭐 주전자나 가지고 참새띠 뜨러 오고 이겠거든예,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47

#### 하선이 바로 옆이었는데 물산되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나는 인자 애기가 돼가 모르는데 우려 언니들이 하는 많이 방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뭐 이내가지고 저 벽장, 옛날에는 집이 이내 초가집 같은 거를 벽장을 만들었는데 그 욱사가가 앉아있고 그랬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참 하나님이 계시는 가 그 물이 그래 차가지고 다떠내려갈 판인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생자 카면서 우리 장독이 이내 좀 높았어예, 그래가 이래 장독 위에 있는데, 강자기 물이 싹 빠지더ሪ 나다, 그런데 보이까네 우리집 이모집 아래채가 딱 떠내려가뻐맀는기라, 그래가지고 다 이모집은 거서 그 많은 재산 다 망하고 저게 학교 뒤에를 홍개다 하거든, 홍개다 하는데 글로 이사를 갔지.

#### 처음 집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천에 집 지응 때 아버지가 그런 거 안 해봤는데도 머니가 좋아가지고 구등장부터 놓고, 멑에 방 먼저 만등어놓고 생응 파놓고 그내가 벽응 세웠어요, 지붕은 처음에는 짚으로 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언궁이나고 가면은 강대가 많거든, 그 강대를 가와가 강대로 덮고 다음에는 강대 다 없애뿌고 기압을 했거든예, 그래가 살았죠, 그때는 흙많은 세웠고 지급은 인제 아래채 고거는 벽동로 됐지, 처음에는 흙으로 하더만 진흙 황토, 요 내나 붉은디 황토 많다 안 합니까, 황토에다 짚음 생그러가지고 이내 섞어가지고 벽은 만등데, 산에 가면 전신에 황토다, 그래서 붉은디잖아,

#### 할머니도 학장국민학교를 다니셨겠네요?

내가 6회고 우식 큰언니가 1회였거든예, 그라고 둘째 언니가 2회, 우리 집에서 확교 강산은 좀 먹지, 그래도 다른 동네보다는 그 언궁, 학장, 주례 뭐 장인도 카는데... 그 다학장 거기 았거든예, 그때는 그거 밖에 없고 그것도 또 학교가 처음부터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 언니들도 그때는 학교 쪼맨한 거 무슨 란사 맨치로 고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예 언니 다녁 때는, 그러고 인자 저희가 강 때는 학교가 조금이내 하나가 쭉 이내 있었는데 그것도 비장아서 온 등어가고 흑판가지고 저 새밭이나 하는 데에 공부하러 산 밑에 갔어, 교식이 모자라서 그 가가 공부하고 이랬어예, 우리 반안 인자 가는 거지, 다른 반은 다른 반대로 또 어덕 갔어, 그때는 반도 하나뿐이나, 그래도 교식이 모지라가지고 학교 여서도 천락을 치놓고도 했거든예, 천락도 많이 있었어예, 교식이 없어가지고,

내 학교 입학하러 강 때 아버지가 손은 장고 이내 갔는데, 뭐 집승은 이내이내 그나 놓고는 이 이름이 뭐고 카는 거를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더라고, 내가 그 않을 못 했어 요, 목라가지고, 그 기억이 나, 또 학교 가면서 이내 생각하면은 붉은디 여기 누가 살았는데 망날 부부 싸움하는 것밖에 안 봤어, 그러고 또 뭐 똥장군이 옛날에 지게 이러면 다 시집 저런 데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 개성이나 식혜 팔던 분들 기억나는지요?

여도 그렇고 장사를 다 했어, 재첩장사, 재첩국 그걱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49

만등어가 사 있 여 구덕재로 이고 갔거든, 그 터널 그거 나기 전에, 길이 쪽 요만한 길이 짝 있었어. 시내까지, 그내가 그거 이고 다니면서 팔고 이내가지고 마 돈은 다 법이가 좀 쓰고 그랬어, 그때는 재첩이 많이 나았거든, 업궁, 하단 쪽에서, 그때만 해도 그격 요즘 같이 뭐 나어카가 있나 손나어카가 있나 무조건 머니에 이고 업궁까지 가가 이고 안가지고 그격 또 물에 담가났다가 씻어가 삶아가 이내가 팔러갔어, 또 단숙로 만들어가 식혜, 그것도 장사 많이 했어, 재 넓어 하이든 따 10나 요구덕재 해가지고 딱 쏟아서면 10년데 그 밑에까지 내려 갈나은 얼마나 한 20나 이거는 뭐 여사도 아니야,

# 동주여궁을 입학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여기는 다른데 강 데가 없어, 남성여중 같은 데는 식역이 못 되고 그때는 시헌칬거든에, 그런데 인자 학교서는 그래 못 하는 편은 아인데도 내가 조금 놓았던 적이었어에, 앤 놓았나 하면은 인자 닭이고 뭐시고 이거흥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손이 좀 딸긴다 아이가, 그래 내가 아무니 께으르고 익을 할 중 목나도 내가 스스로 '닭방 그거 내가 주면 안 되겠어요?' 아무지한테이겠거든, 그러면 뭐 우니 아버지는 이 교육을 마이 시킨라고 애흥 쓰는 사업인데 내가 안 강나카고 이나이까네 뭐 좋다고 그래나 이래됐어, 그래가 그거 조금 하다보이 안 되겠더라고, 내 성직은 그런 성직도 아이고 보는 성직도 아이고 뭐 부모님이 놓려 온 가구로 카는데가는 그런 성직도 아이나에 제가, 그래가 우니 친구들은 보통 남성여중 빼께 안 나았거든, 우니 학교 댕깃 때는 진짜 선생님이 없했거든요, 그 라면 수업한 때... 시험에

이내 조급 모지상 접수 받으면 저 뭐 장대, 그거 뭐나카나 그것, 그 대나무, 동극동극한 그거를 가지고 요내 딱해가지고 선생님 책상 앞에 딱 서가지고 딱딱 때니거든, 그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나도 가르치는 기 좀 많았어예, 피구니 육상 그 뭐 운동회하면은육상 같은 거도 마 남아가 딱 가니치고 이랬거든예, 남자들은 상고, 부산상고나 이런 데 갔고...

## 중학교 등굣길이 많이 멀었겠어요?

역서 고개층 딱 넓으면 대신동 아입니까, 동대신동,,, 쭉 내려가면은 그서 항참 내려가도 전척이 있었어, 전차지, 그걱 타고 학교까지 가는 거지, 그래가 어떤 때는 학교까지 또 격어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때는 주계된 여서는 가는 차가 없었어, 그러이 만날 그는 다 격어다니는 기 있어었어.

# 고개를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야시골을 지나 다니셨어요?

야시공은 저기 지급 어데고 하면 아파트 그기 뭐드나, 무슨 아파트고 대신 아파트, 고기 인자 야시공이나고 해, 고 물이 인자 개욱물이 진짜 찮아, 또 그도 계곡 물이 이내 나오는데 우너가 땀따 같은 거 나면은 그 물에 가가 앉아 있으면 다 죽어버니, 야시도 많이 나오고 번도 나오고 그랬어, 그때 그 야시곡짜기카는 데는 집이 한두 채 빼께 없었거든, 근데 거기에 한집이 있었어, 거기에 그 가족 등만 살았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해도 저저 뭐고 단숙한 해가 팔려가고 이랬거든, 당중에 식당하기 전에, 그런데 그 뭐 강가지 상에서 삐딱하면 나온다네.

# 중학교 이후에 양개학원을 다니셨어요?

학교등 옳게 안 했거든, 그래놓으니 우니 아버지가 하는 많이 그래 나는 학교도 안 댕기고 하니까네 양재학원이라도 나딱가지고 뭐라도 니 기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학원을 보냈거든, 그 학교 다녁 때 대학교 나오는 거보다 돈 더 마이 들었어, 천 떠가지고 식습 참사하이께네.

학원이 어디 있었냐하면 중앙동은 중앙동인데 그 간 판도 다 잊아뿌따, 그때안 해도 뭐 노산 옷 학원 이런 기 있었거든, 근데 인자 우리는 그때 무슨 하이튼 남자 여자 양복까지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2년은 학원 기숙 사 생활을 했어 그 안에서, 앱 그랬노 하면 집은 먹제, 았다갔다 항 차도 없제 이래가 기숙사에 들어갔지.

학원에는 우어가 처음 가면 미성 배우고 또 천응 떡가주고 디자인해가지고 그试을 그어고 뭐 그래가지고 우어는 선생 시킨 대로 옷을 만드는 거지.

##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꼭해 나이가... 76세고, 원내 태어난 곳은 익본 오사카였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사시다가 어머니하고 아 버지하고 가족등하고 다 살다가, 8월 15일 해방된 날에 한국으로 나았어요. 언제 익본으로 간지는 모르고 내가 3상 때 거기서 나았다카니까네, 고서 오내 오내 생았는 모양이나, 거기서 아버네이 뭐 숯, 산에서 나무 베가 숯 굽어놓고 팡고 하는 거호 하셨어. 그 오사카는 조선 사 상등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 작은형 사촌형님이 나고야 거기 상고 있어요.

# 형계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분들은 그때 그 당시 누넋이 세 분 있고 인제 내가 장남이고 고 밑에 인제 남동생 둑이 있어.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많이 낳았어.

#### 일본에서 건너올 때 특별히 가져온 것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그 사업하다 돈을... 니꾸사꾸여) 나는기 그때

<sup>6)</sup> 릿쿠삿쿠- Rucksack 배낭을 말함

있거든요, 가방요, 그다 돈을 이빠이 넣어악가지고 한국에 오니 그게 떡요가 없는 기산, 안 바뀌주는 기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 몇 년 놔뚠나? 10년 후에 그게 떡요가 없으니 그 돈등을 다 논밭에 다 내삐니뿌써, 돈을 그때 다 버리고 한 2년 있으니까 그 익본 돈을 바까준다고 여여 부산에 무슨 은행이고 조흥은행, 그서 바까준다고 하더산고, 그거 있었으모 확 그냥 땅을 다 샀을 낀데, 그 돈은 가방에 모아났는데, 우리 옆에도 아는 거 보이 돈이 뭐 익본 돈이 딱 들어있는 기산, 그 우리 돈 내가 딱지도 만등고 딱 그랬어, 근데 그걱 '갑작시리 바까준다 이기산, 그래 쪼깨쓱 가 있는 사람은 그 갓다가 여밭도 사고 이래는데, 우리는 쪽딱 '당해뿌쓰, 아까지 그 돈이, 그래가 아버지가 인자 홧병이 나가지고… 그래가고 다 그거로 그부터 홧병이 나가 다 한 1년 있다가 돈 아가셨어.

#### 한국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셨는지요?

욱 때 기억은 벽로 없고, 큰 배寺 타고 나온 그건 기억이 나, 귀환선 이런 큰 배, 부산, 저저 어데고, 지급 부두 그 어디고, 그때가 오래된 기 모르겠다. 고서 하이튼 내맀지 싶어, 그래 바로 인제 익로 학장동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온 기나,

### 할머니 집은 어디였습니까?

홍개는 아니고 학장동 붉은디 여나, 홍개는 저쪽 학교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54

고, 정확히 어디였는지 지급은 양 수 없지, 저거 아파트가 다 등어섰거든, 그때는 앤 붉은디상 했고 하면은 저 흙은 파면, 산에서 빨간 흙이 링장히 많이 나았어, 그래 애들이 거 흙 파다가 뭐 만든어상 하면 그러고 그랬지, 그래서 붉은디상 한다, 이내 여 학장동 붉은디,



#### 할머니께서는 학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그때 뭐 조개, 그 재첩국 그것도 평고 단숙도 해 평고 이겠는 모양이나, 그때는 지근은 식혜나고 하는데, 옛날 에는 단숙 장사 많이 했어요.

# 재첩이나 단술은 어떻게 판매가 되었나요?

예, 단숙 그 쌀호 사다가 동이가 있었거든, 요만한 거, 동이 이고 인자 팔려 다니는 그기 인자 쌀값의 2배, 3배는 법있다데, 내가 알기혼 저게 개급, 냉정, 서면까지 가서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55

팔았지, 인제 고거를 몇 시에 가나모, 새벽 한 5시에 딱이고 가문 고 1시간 격려운 6시, 그서부터 인자 역치는 기라, 단숙 사라고, 단숙 단숙 사이소 그면 재첩국 사이소 역치모 그 빈면들이 나딱 가지고 한말 쓱 사가지, 남자들이 생재첩도 팔려 다녔거든, 인제 왕재첩이라고 좀 재첩 중에 좀 굵은 거, 고거를 인 제 남자들 메고 팔고이겠어, 여름에도 계속 팔았어요, 재첩은,

# 예전에는 다다기 만들던 집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다다며? 아 익본에 그 방 떹에 까는 거, 고거는 인제 아파트 입 떹에 아파트 아 저 빛산 쪽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 큰 집을 지아가 스레트 비슷하이, 거기가 아따 해방되기 전부터 있었을 거산, 다다며로 딱 기계로가 만들고 이래 샀더라고, 볏짚을 가지고... 내가 본 게 기억이나거든, 인자 우너 저 본동 사상이 아는 사상인데 그래가지고 놓 때 되면 고 가서 인제 함 보고 볏짚을 가 만등대, 볏짚을 추니가 깨끗하이 추니가 쫙 깔아가 눟니가지고 바늘, 식로 이내가 강대는 아니고 볏짚이산, 강대가지고는 그것도 인제 비가지고 넘어놨다가 인제 따... 건대 그 엮어가지고 이내 짚을 많이 만들고 팔려 댕기고이겠어, 또 그라고 빗자니, 강대빗자니, 그거를 꼬아가지고 고는 인제 새밭 고서 댕기는 사상이 많았지,

## 학장 쪽에 밀양 박씨들이 많이 살았나요?

아, 그거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7가구 살았어.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56

그래서 박신마응이라고 북렀지예, 지급은 인제 신씨등이 부장뎨 그때는 박가등이 전부 다 잘 상고 있었어요,

#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겠어요.

옛날이상 한 90프로는 특려, 옛날에 여기는 저 이웃이 한 익곱, 여덟 가옥이 있었어, 요게 또개 또개, 고개 상아가지고 고서 뭐 부모넋들은 재첩국도 팡고이겠어, 아버너은 또 나무를 해다가 팡고 이겠고, 나무를 해가지고 북 땡나고, 옛날엔 북로 많이 땠거든, 그러다 할머니 동아가시고 내나 그 집에 초가집, 바로 여 도로 있는데 바로 멭에 살았거든, 언덕 멭에 도로, 쭉 가모 도로가 있제? 도로 바로 멭에 거 상았어, 그런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인자 집이 인자 혁려서 분양을 받아가 그 집에서인자 익로 봉산았지,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cdots 57$ 

#### 그게 한 몇 년도 쯤 입니까?

내가 군대층 27에 갔다 왔는데, 그래 오는데 여 한 서는 생기 그때였어요. 70 몇 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저 도로 넓힌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도로에 들어가가지고 보상 그런 거는 기대도 못한 때지. 그런 거는 없고 따 그때는 그 시점에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따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고 땅 드간대신에 또 80평을 거 얻어가 그래 그다 스레트 집을 지은 거지. 이거 뜯는다하면 또 뜯어가는 %다 싶으고 딱보상이 얼때 준다하니까 하니까 얼때 주는 %다 이래싶지 그때는.

#### 어렸을 적 국민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학장국면학교 다녔어요, 3회 종업, 아마 우리가 제일 오래됐지 싶어, 지급 3회, 2회, 1회는 다 동아가시고 없 고 지급 3회가 몇 분 상아넣아 있지, 그리고 학교가 생 기기 전에 마당이 있었는데 학교 덕 지아가지고 천막은 지아 놓고 떹에 그서 공부를 했어요, 고런 기억이 나, 그 때는 거기가 평진데 논이었어요, 논 복판에다 땅을 공라 지어났지, 그 당시에는 학교도 없고 저저 큰송병원 저 있는데 고 송밭이 많았는데 고 떹에서 공부도 하고 이 냈어요,

#### 국민학교 다니실 때 봤던 풍경은 기억나나요?

## 소가집이 많았네요?

그렇지, 전부 초가집이야, 지붕은 뼈도 있고 강대 비가 얹은 집은 좀 잘 사는 집이 강대로 이었고 그랬지. 각대는 한 번 이내 입히노모 몇 년씩 있는데 뼈는 1년에 한 번씩 걷어야 되고 이내요, 그래서 뼈보다는 각대가 비싸지.

#### 어졌을 적 이 곳 붉은디나 인근 동네에 집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그때가 참 보자 여기가 갔나무 집이 있고 저쪽에는 또 뭐 한 채 있고 한 채, 두 채 세 채, 학장 인 앞 도로 로 여는 한 10가구 있어인, 저쪽에 홍개로 가면 또 옆에 집등이 몇 채 있고 사상이 많이 살았던 곳은 여기서는 학성이라고 저 구덕터널 가는 고가 좀 많이 상았어요, 우너 요쪽으로는 집이 한 5채, 여 있고 저 있고 마 이래, 학성은 학장동 안에 있는 학성마을,, 학장동 학성 뭐 새 밭 뭐 이내가 전체 돼가,,, 새밭은 목나, 그래 새밭 새밭 해샀대.

#### 그럼 기와집은 어디에 주로 있었나요?

인 집 앞에 지급 어데나 하는, 세원로터니, 그 가면 저기막집이, 익본 사업이 살았는데 익본집이 되가 기약 꼭려놓고 이내 나무로 가 지었고, 고는 앞에 잘 사는 집이나, 고는 그 사업만, 고 집안 잘 살지 주변 사업은 다 파이거든, 그 집이 해방되고 익본사업이 각 때 내뻐니고 갔는데 새로 산 그 사업이 인자 익본 뭐 사업하고 좀 높은 사업하고 됐는 모양이나, 거기가 아내깍단, 그때 생각이 난 아내깍단이 惺에나 이겠거든 우니는, 고 정도 거서 그게 기찻지이 나면서 동네가 짜개지가고 웃깍단아내깍단 이겠거든 그때,

# 예전과 비교해서 계일 많이 바뀐 곳은 어디일까요?

제익 많이 바뀐 데가 인자 저 세원로터니, 저기가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인제 전부 논이었지, 지급은 도로 나고 그래 그 세원로터니 도로가 나면서 인자 집등이 많이 생겼어.

####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 서면 북부산 중학교 한, 개성중학교 앞에 지급 도 있어요, 여기서 서면까지 걷어갔지, 차비도 없고, 강 때는 구덕고개 많고 척둑을 따라 이래 등어갔다.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 차도 그때 자주 안 댕기고 역차가 있었는데 고는 또 역차 그거 표 끊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 끊고, 세 명쓱 걷어서 왔다 갔다, 천지 따라 그게 한 시간 조급 넓게 걸렸어, 그 동무등은 평생못 잊지요, 지급도 주례 저 생고 있어요,

#### 중학교 등굣길에 봤던 강소 중 인상 깊은 곳이 있나요?

국 로 푹 지나면 하야식아 부대서는 거 있었잖아, 위에 천조망 촉촉촉 있고 그지예, 옆에 기지혼도 있고, 그가 뭐 하야식아 부대나 하는 건 않고 그서 데모도 하는 것 도 않고, 반공포로 석방하나고 데모하고 그랬어예, 그때 뭐 학생등도 오가 따 데모하고 묵러가나 해샀고,

## 옛날 동네 이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홍개나 했지, 홍개나 부르고 여기는 붉은디 또 뭐 어떻게... 새밭, 거는 지근 대동도나 되어 있으예, 학 성은 인자... 인기 옆에 도상 건너 거 학성이고 여는 학 장이고,

# 이곳이 특히 옛날 지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더 기억나는 것은 없으세요?

예, 개논 뭐 친자니, 웃홍개, 통재이공짝, 대동도, 포구 남견, 아, 포구남견은 포구나무가 큰 거 이 한 포구나무가 있었는데 인제 비내뿌써, 이래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네, 포구남견은 포구나무 있어 그렇고, 통재이공짝은 인자 저 가면 저저 그 이흕 뭐꼬, 그때는 장군이 그 거흥 안등어가 팔았께네 그가 통재이 공짝이나, 그 위치가 저저 지금 새밭, 업궁, 근처 거기 있었어, 그리고 대동도는 저 저쪽에 저 르네시떼 있는 그쪽을 대동도난했다, 홍개는 어떻게 안등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동네 이 등이 홍개나 그것만 않지,

## 여기는 왜 붉은디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여 뭐 산에 흙만 파면 빨갛게 나았다 캐가 그기 붉은디 붉은디 카고 지급 동양아파트 있는 데는 다 산 이었지, 산을 파면 북긋하게 흙이 다 나았어, 흙이 나오 니까 인자 동네도 붉은디 넋이 부를 때 붉은디 동네 그 내 흙은 빨간 흙이 나았다고 붉은디나 그랬지, 요 동양 아파트 이거 저 안으로 보이는 기 인자 붉은디나, 그러 니까 저저 사가지고 업자하는 사람들이 산을 사가 아파 트를 만들었어, 저거 아파트가 한 20년, 30년 다 돼? 낀데, 내가 거기 15평짜니 고게 상다가 인자 돈을 좀 모 아가 빗나로 내려왔거든, 제법 산이 컸어, 여기 노인정 근처가 다 산이었었어, 예전에는 산에 놓려도 많이 갔지, 그 우너 웃대 항아버지 산소가 그 있거든, 지급도 산소에 벽초하러 가고 그래, 여가 인자 본토라고 내 고 향이 여기인 거지, 내 3상 때 나왔으니까 요가 본토 한 가지지,

## 어겼을 적 인근에 의료시설은 있었나요?

그때는 아프면 서면에 한 군데 있는데 고 격어가고 안 그나모 기다렸다 써스 타고 가고 그때는 전부 다 비 포장도로가 돼가, 그내 보건소가 우니 좀 컸을 때가 사상 보건소가 있었는데 고 주로 많이 댕깄지, 사상보건소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저 덕포동, 지급 국민학교가 있는데 고 옆에 있었네, 사상국민학교 바로 옆에,

#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새 마음 운동 항 때 그때는 우니가 초가집 걷어내고 뭐 스레트로 인자 이내 카는 집 있었고 승나브로 하는 집도 있고 이랬거든, 고내 고건 기억난다, 아마 그거 하 면서 각도 넓히자 해서 아마 도로도 그때는 그렇게 많 이 그랬는 모양이나, 이 뭐 도로도 나고 그때는 저 먹가 루는 배급이나 해가 익 뭐 어데 좀 동네 그 좀 하모 배 급응 인자 먹가루층 죠 줬지.

#### 구덕터널이 뚫렸을 그음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뚫은 때는 기억이 나는데 고 때 몇 년도 그거는 모르겠네, 그내가지고 고기 좀 오내댔거든, 80년? 84년 인가? 그거 생기고 학장동 여기 땅값이 많이 올았거든, 특히나 붉은디는 땅 있는 사상은 다 팔아가지고 좋은데 가고 사업도 하고 집도 짓고 저 아파트도 그때 옹겼지, 그때는 그거 나고 여 떹에 여여 땅은 있었어, 지급 전한국 고게 우너가 450평이었었어, 고격 팔아가지고 형제 서이서 나나가 집도 사는 사상 있고 마 고 가지고 인자 보루꾸 찍는 거 옛날에는 고 둘째 동생이 하고 딱 이랬어.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학자동 홍개 마을에서 태어난, 현재 나이는 65셉니다, 이흕은 조용만이고 네 그 뭐 어쨌든 반가습니 다, 우리 가족은 홍개마을 상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뭐야 아버지 어머니 그나고 이제 우리 형제간 너이 (넷)해서 총, 6명인데 둑이가 죽고, 우리 너이하고 그래 살았었지, 그래 그 식구가 그 당시에 뭐 한 8명, 나는 그 중에 첫째지, 겉으로는 남동생 여동생 다 있었지, 그내 4남 2녀 중에 1남 1녀가 죽고 그래 3남 1녀가 됐지. 내 생익이 은력으로 9월 25억인데 양력으론 11월 1억이야. 그내 53년 11월 1일 태어났지, 그나이께네 어머니 었다 부모님들이 마이 힘들 때 태어나서, 그래 인제 애들이 안 컸다. 영양 상태가 부식해가지고.

##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에 좋사하셨나요?

그래 그 큰 때는 아버넋이 척도 다니셨거든, 척도 공 무원이었다. 저기 저 척도 공장차, 지급은 척도차냥재생 창, 서면에 있다, 번천동에, 번천동 서면하고 신압 사이 있잖아요, 그 다녔었기 때문에 그 농사도 짓고 하니까 다른 집보단 약간 나았지, 그기 매월 수입이 있으니깐, 다른 분들은 거의 농사면 짓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너은 기숙이 있었어, 빨하자면 기숙직이지, 거기서 척도정비 익을 했지. 그기 정비창이거든.

####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저 익제 강전기에 진남포에, 저 이북에 진남 포 있잖아, 진남포 그 공장에 다녔다 하더라고, 어덕 때 공장을 다니다 청공장에 다니시다가 아파가고 부산 집 으로 다시 내려왔다하데, 그 집에 친척이 있어가고, 그 니까 그게 해방되기 전이지, 그러이께 익하다가 인자 아 파서 내려온 거지, 한국전쟁 전이었을 거야, 안 그러면 해방 전에, 6,25 사변 났으면 내려오지도 못했겠지, 안 서 그내 척도 취직하는 바람에 군에도 안 가고 그랬지, 척도는 척도 직원은 군에 안 갔다, 국가 기간산업이니까 군에 못 갔어, 안 가도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끊 이야 기했어, 그때 진남포 공장에서 안 내려왔으면 뭐 느그 언마도 못 만나고 내도 이북사람 됐을 거라고,

# 어렸을 적 수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주로 생각나사나요?

우너 주킨 노는 게 똑같아, 그 뭐야 많타기 하고 자치기하고 그다음에 깡통차기 이런 거 했어, 주킨 학장초등학교에서 농았지, 학장초등학교 바킨 옆이니까, 그때 학장초등학교가 등판 한복판인데 그 네 개 동네서 학장초등학교 다녔다고, 그새 학장동 지급 주례동, 언궁동 그 다음 장인도라고 갔전동 쪽에 장인도라고 있어, 그 네군데서 학장초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라이까네 학교가 등판 복판에 있으니까 집격지지, 전부 다 그 산 떹에 집,

#### 학장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기억 하는 학장초등학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학장초등학교가 1950년도, 50년 5월 당에 개교했다. 옛날에는 사상국민학교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48년 이 승만 대통령이 취입당시, 48년도 취입했거든, 이승만 대통령이 어, 그래가 49년돈가 부산에 시찮을 왔어, 시찮을 하고 저 서면 쪽에서 이래 가야한 해가고 주례한 해가고 저 집해 쪽으로 양산 쪽으로 가다가 그 사상국민학교 존 못 가서 그 부근에 아가 차에 받힌 건 봤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승만이 내려가 뭐 물어봤나 물어보다 보니까 아들이 억수한 면데서 온거야, 저 업궁에서도 사상국민학교 다니고 주례서도 사상국민학교 학장서도 사상국민학교 다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학교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가고 홍개 따음 학장동 홍개따을 그 약간 언덕이었어, 학교 자리가 그려 좀 높으니까 그다가 높은 데 좀 깎아가고 학교를 지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차도 벽로 없는데 사고가 난기각, 이게 다 식탁야,

#### 중학교는 어디로 진학하셨나요?

나는 개성중학교로 진학했지, 근데 원내 개성중학교 자체는 어딨었는 하면 지금 온병원 앞에 극로백 영어학 원 하는 거 있잖아, 그기 동해남부선 첫깃이나, 동해남 부선 가야선 첫깃이나, 고 옆에 거 붙어 있잖아, 그 언덕 하나 있는데 극로백 빅리지라고 영어학원 영어센터 있 잖아, 그기 원내 개성중학교나,

#### 학장에서 서면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학장에서 다녕 때, 주례까지 나안가 버스 타고 다녔지, 학장에서 주례까지 격어갔고, 그때가 언제냐면 66년 도에 내가 1학년 등어갔지, 초등학교 종업하고 66년에 개성중학교에 갔지, 주례에서 가려면 31번 버스흥 탔는데 그 31번 지급도 있다. 그게 구포에서 해운대 가는거, 그때도 있었어, 그땐 다른 학교 학생등도 같이 탔지, 북부산중학교, 지급 서면중학교지, 그리고 동성중학교, 근데 동성중학교는 없어졌어, 동성 지급 평합중학교, 창도중학교 않았다. 그 다 뭐 개등도 그격 타는데 그차 약곤 없으니까, 학교 마치면 다시 버스 타고 온다, 어떤 땐 격어간 적도 있었다. 격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건너지, 1시간 방 내지 2시간, 버스킥로 건어왔지, 버스 김로 계속 가다가 주례흥 거쳐 학장으로 가는 거지, 아 기차도 타고 다닛고, 기차타고 사상역에서 법익역까지 한 구역이나, 아버지가 척도 다니니까 기차는 공짜나, 1년 패스권을 척도에서 끊어 준다고, 그 사진도 붙어있고, 학생증처럼, 그래 다른 학생등은 한 당분 씩 이래 패스권을 샀지, 나는 인자 아버지 척도 다니시니까 공짜로 1년 권, 1년에 한 번씩 복지혜택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바까준다고, 6년을 그래 다녔다, 고등학교도 서면 다녔으니까,

### 학장시절 기억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개성중학교 그 야구부도 있었거든, 그내 서면에서 개성 중학교면 부산중학교 이내 야구 붙으면은 서면에서 전차 타고 전차 종전이 야구장 앞이나, 구덕야구장까지, 고 내니가꼬 야구 구경하고 응원하고 우니 편 개성중학교 응원하고 그랬어, 거서 응원하고는 그땐 신내체육관도 없었다, 그 변소 있고 이랬다고, 부경고등학교 앞에, 그 뭐 당치기 하나카고 그랬다 공짜로, 그 보고는 꼭 때는 건 어오는 기나, 구덕고개 넋어 집으로, 서면응 동아오는 거 보다 건어오는 기 낫지, 그다은에 야구부가 몇 개 있었다, 동성중학교, 대동중학교 이렇게 몇 개 있었다, 개성중학교 그때 전국우승 우니 때 두어 번 했다, 지급 손아섭이 개성중학교고, 옛날에 그 지응용씨 이런 사업 개성중학교 아이가, 개성중학교 부산상고 축신이었거든,

#### 예전, 학장에서 시내를 간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었나요?

학장 지역에서는 저 부산 가는 거는 서면 쪽, 부산진, 서면 있었고 장에 간다하면 구덕공짜기 넓어가서 시내, 옛날 그 진짜 시내잖아, 옛날에는 거기가 옛날 시청 있던 남포동 그쪽, 거기까지 가지, 대신동 쪽으로 구덕운 동장 쪽 하고 이쪽에 그걱로 해가고 간다아이가, 중앙동그러니까 넓어가면 인제 중앙동 남포동 서면 요 나인이생기니까 산을 넓어가면 대신동 다음에 보수동이잖아, 보수동 그다음에 충무동 나오잖아, 그래 거 중앙동은 한참 왼쪽이고, 중앙동 왼쪽이고 그러이 그 자각치까지 가지잖아, 그래서 그쪽이 인제 시내지, 아니면 이쪽 서면 진구 쪽 안 그러면 또 사상에 인제 구포장에, 구포장이그때 유명했거든,

#### 구덕마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덕마을 그 뭐야 구덕면속촌 있는데 그 정도 하나 있었고, 또 구덕 입구 야시공짜기 있었고 아홉 집이 상아서 아홉 집 생만하이 덕이 있다 이내서 구덕공이야, 그런 거흥 어렸을 적 등은 거 같아, 그래서 구덕, 그래구덕니, 학성니, 장문니, 학성 장문 다음에 구덕니거든.

#### 구덕개 인근 야시골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야시곡짜기 그 물이 진짜 차가웠거든, 여흕 되면 방을 못 덮금 정도로 차가웠다. 근데 거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저 뭐야 저 지급 떤속촌 있는데, 그래 내려오고 그야시곡은 조급 더 우측, 지급 당하면 대선아파트, 대선 아파트 구덕 대선이하고 뭐뭐 그쪽으로 내려오는 기 있었어, 따로 누구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마 동네 사업 농나고 마 삐워 놨다. 그 집에는 아무나 동네 사업 아무나 그 집에 누워 놓고 그랬다니깐, 방 2칸은 동네 사업 농나고 삐워 됐다. 그래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무나 가서 마 놓고 오는기나, 시원하이, 근데 그 우에는 잘 못 가지, 그 더 용나가면 야시곡짜긴데, 야시가 나온다고 야시곡짜기지, 야시 소니가 에~ 하는데 근데 그 뭐 여름에 놓려 많이 갔다 그 우나는, 그 옛날에 시원하니까, 그 뭐야 나무가 우거져서 햇빛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니까 여름에 거서 텐트 치고 놓았지.

#### 당산은 어디에 있었나요?

지급 동양아파트 있는데 하나 있었고, 학성, 학성 당산, 그 동남아파트 아는가 모르겠다, 경찰서 옆에 고 부근에 있는 덫은편 아파트, 고 부근에 인자 동양아파트 끝쪽, 붉은디쪽, 붉은디하고 동양아파트 붙어 있잖아, 그사이에 학성 당산이 있었다고, 지급은 없어, 그나고 또 장문안 당산은 지급 뭐야 옛날 학장에 도상장 있었은 때 그 뒤쪽에 있었다고, 그러이 장문안 웃깍단 쪽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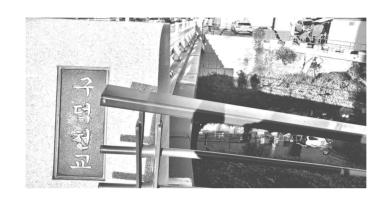
아래깍단 그 개욱 위에니까 웃깍단, 개욱 털에는 아래깎 단이고, 그래 구덕당산은 지급도 있다더라, 저 뭐야 구 덕면속촌 뒤에 모습만 남았다.

###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는 없었나요?

명적, 보는 정도 되면은 행라니, 농악 하면서 집집마다 지신밟기 하러 댕긴다. 온 집마다 다닌다고, 그러면 그 집에 해 주면은 쌓이나도 한 대빵 내놓고 그래했다. 우너는 그러이 따라댕기고 그랬다. 근데 지근은 어르신 등이 많이 동아가시고 전승이 안 됐지.

### 학강선의 예전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학장천은 그래 깨끗하진 않앴어, 구 덕천은 깨끗했는데 학장천은 물이 벽한 없었어, 물이 벽한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많은데 평소에는 물이 그려 많진 않게, 학장천은 깨끗하진 않고 그냥 뭐 되게 깨끗하진 안 하고 그냥 뭐 물이 짱짱 흐르고 그런데 비가 안야 흐르지 보통 때는 물이 벽한 없어, 근데 구덕천하고 학장천은 연격되거든, 연격되는 부분, 그가 깨끗했다, 그가 어디쯤 되나 하면 지급 그 어디고 세원사거니에서 주례 쪽으로 좀 더 가면 거 있다고, 인자 학장천구덕천, 구덕천은 산에서 내려오잖아, 학장천은 주례에서 연궁까지 요래 짝 있잖아, 그래 그 중간에서 만난다고 구덕천하고 학장천하고, 구덕천 물이 깨끗해,



####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은 어땠나요?

전형적인 옛날 초가 초가가 아래채 위채 있었고 지붕은 강대 얹어, 강대가 낙동강 가까우니까, 우니는 농사 등 지었기 때문에 그 장인도나 가에 붙은 동네는 연궁이나 이런 데는 강대로 했었지 그때는 집안으로 인단 등어가면 마루가 있다고, 마루가 있고 큰 방 하나 있고 이쪽에 작은 방 하나 있고 이쪽에 부엌이고 이런 식이었지, 집이 인간데 그 두 채가 따로 있지, 위채 하나 있고 아래채 따로 있고, 아래채는 또 방 하나 있고 옆에 한장식 있고, 항아버지 항머니하고 애등 둑 자고 인제큰 애등이 가지, 없마 아버지 쪽에 큰 애등이 가고, 나도 또 따로 자고, 나는 주로 혼자 갔는데 장남이나고 공부해나고 해서 혜택을 좀 밝지, 우짜다 동생등 같이 자기도하고 그래 생았어,

#### 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았나요?

택지 이런 거 했고 소는 안 키웠다, 농사지을 때는 그동네 소 있는 집이 있거든, 그 역 몇 명 집 있는데 한집이 소가 있어, 그거 갖고 다 짓는다, 그 동네 한 집이있었어, 그 집서 소 빅려주면 또 도안가주고 익을 익손도안주고 그랬지, 그땐 쌀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보거농사도 하고 그다음 밭에 뭐 채소 이런 거 짓고 하는데, 학장이 주로 뭐 했는 하면 학자동에 그 집승을 좀 키워가고 계산 같은 거 있잖아, 닭을 키워가고 계산 시내에다 팔았다니까, 새끼도 꼬는데 새끼 꼬는 기계가 있어, 발로 밟아가고, 구멍으로 나팔 구멍으로 이내 새끼 꼬고하는 그런 게 있어, 그거 해가 팢고,

## 다른 부수입을 올리는 일은 없었나요?

학장에 다다며 공장이 존 있었어, 쪼깬한 공장이야, 딸하자면 가내수공업 있었어, 해봤자 뭐 한둥이지, 직공한둥이 있었지, 옛날에는 그 익본 집에 다 다다며를 쓰잖아, 요 정도 두껍다고, 짚으로 만드는 거, 그걱 쓰는집이 학장에는 없고 시내, 그니까 대신동이나 서면 쪽에, 옛날에 익본식 적산가옥에서 그거 다 쓰거든, 고 많이 있었다. 집을 허물 순 없고 그걱 써야 하니까 수요가 많았어, 학장에는 농사를 지니까 짚이 많잖아, 다다며를 짚으로 만드니까 짚공 있었다고, 그너고 또 각고니 만드는 개인이 있어, 자기 집에서 각고니 같은 거 지가 만들어 썼거든, 갈퀴, 뭐 낙엽 같은 거 요 나뭇잎 긁는 거 그

기 강고식였는데 고거 만들어 팔고 짚 빗자루 만드는 집도 있었고, 강대 빗자루 있고 그 비가 억수로 장 쓴다 는 빗자루가 아주 연한 거 있어. 그것도 했고, 재첩국 장 사도 했고, 학자에서도 했다. 우리 모친도 농한기에 했 는데, 재첩을 언궁에서 받아딱가지고 집에서 싫어가고 새벽에 머니에 이고 구덕고개 넋어간다. 그땐 터넉이 없 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구덕고개 그격 넋어간다. 그 무 거운 격이고 우니 모친이, 그때 내가 북린 때가고 재첩 국 끓였다니까. 끓이고 그다음 진짜 진국이다. 진국이지. 고격 그 당시에 퍼가 바린 먹는다니까, 얼마나 진국인 데, 그래 그건 내가 당쿠면서 내가 퍼묵었다니깐, 그때 물끼 있나 벽시니 없었으니까 그게 벽미지, 그니고 단숙 5 끓이가고 저 부둣가 부두까지 팔러 갔다니깐, 부두까 지 그 이고, 부두까지 억윿사가꼬 당아가면서 팔았다니 깐, 거기가 중앙부두지, 지급은 뭐 그내 연안부두 쪽이 지, 지급은 이쪽에 국제부두호 옮깃잖아, 중간에 연안부 두 쪽 그쪽으로, 노무자등 힌드시니까 단 거 이렇게 먹는 거지, 땀나니까 여름에 시원하이,

#### 주민들끼의 계를 하거나 다른 모임을 하는 것은 없었나요?

주먼등끼니 참 유등유등하이 좋았다.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동네 사람끼니 란랑버스 타고 농려도 다니는데 지급도 다닌다. 지급도 그 아직 우니 위에 한 역 몇 삼 많으신 분들이 지급도 간다. 이번에도 간다더나. 그나고 그는 농러 가면 또 강에 뱃농이 가거든, 낙동강 가가고 배 하나 마련해 타고 응숙도 쪽으로 놓려 간다. 그러면

선에 가서 배 타고 노는 거야, 음식 중간에 장안해가고, 그걱 우찌 아냐면 나도 따라댕깄거든, 선에 가서 장구치고 놓고 그랬는데 배 타고 가면서 놓고 배가 낭만 있잖아, 그 뭐 조용하이 그 뭐야 응숙도로 그런 데 가면 억마나 조용한지 못나, 6~70년대, 지급처럼 딱 개방이 안됐을 때 동네주면등 사이좋았다. 인신 좋고 동네 좋았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농사흥 존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농사흥 지어서 묵고생았어요, 묵고상다가 뭐 이래이래 이거저거 해가지고 인자 내 축가해가지고 모두 다 격정이 나가지고 나았지요,

# 결혼을 하시면서 부산으로 오신건가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인자 내려 알가지고 고향 친구가 소개해서 경혼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요 부산 으로 있어요, 시공에서 양복전 하다가, 옛날에 양복전에 서 옷을 많이 덫취 입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모두 기 성복이 저렇게 따이 나오고 하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그거 인자 접고 부산에 악가지고 요 학장에 내려온 거요, 내려악가지고 우니 고생 많이 했어요, 악가지고 뭐직장이 없잖아요,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인제 맨 처음에책 그거 있잖아요, 책 파는 거 서전도 아이고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 그격 하니까 당주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익적 없어놔는께네 고마 3억하다 치우고 그래인자 노가다로 하다가 마친 여 전포 하나 나온다 해서그래 얻어 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이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친척이 한 분 상았어요, 상아가지고 우니 어머니가 연탑연탑 해가지고 여완서 없는 상없에 먹고 상기는 좋다이내가지고 부산, 학장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분이 우니시이종사촌 이었는가보다, 그분도 지급 여 상고 있어요, 남편 분은 동아가시고 그래 지급 생면서, 그 분 아니었으면여기 안 왔긋지, 그분이 여기 생면서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소개로 여기 본 거예요,

#### 1970년대, 처음 부산에 이주해오셨을 때 마을의 모습이 어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맨 처음 여기 부산 꼭 때는 묵이 굉장히 귀했어요, 묵이 없어가지고 저 위에 산에 가가지고 묵동이 이다가 완가지고 인제 애기등 빨래도 거기 헹구고 기저귀 같은 거 헹구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 부터는 공동, 차가 한 대 완가지고 묵동이를 이고서 나 내며 쭉 서가지고 묵도 확 해가지고 한 사냥 한 사냥씩 받아가지고 그래 이고 오면 싣고 오면 그 반통 밖에 없어요, 첫렁거리가 다 쏟기고 다 쏟고 그랬어, 그래가 샹

다가 그 뒤로 상수도라 완가지고 시간벽로 하루에 2시 간씩 뭏이 나오고 하다가 그 뒤로 수도가 나완가지고 뭏은 인자 웬만하면 좀 쓰고 그랬어, 땐 처음에 또 한장식 있잖아요, 한장식이 재생식이었어요, 재생식인데 한장식 뭏을 기면 파니가 바금바금하고 구더기가 따 버금 버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거 안 들어갔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니등 쫓가내고 그래 들어가고 그 뒤로 한장식은 인제 똥지게꾼 해가지고 퍼가 나르는데 나르다보면 반 정도는 다 쏟겨 버려요, 그래 옷에 냄새나고 그 됐어요, 그 뒤로 이거 수세식 나와가 변소 그거 웬만큼정니됐고 지붕 같은 것도 옛날에는 승례트였는데 지급은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고 개인도 좀 돈 들여 가지고 지급은 다 교체를 해서 인제 좀 생만하지,

땐 처읎에 내려오니깐 여기가 복숭 밭이더나고인, 밭 위에 집이 몇 개 있더나, 몇 개 있고 옆에는 냇가에요. 냇물이 내려가고 하천은 똑같아 인, 밑에 다 논이 많더나 논, 우니가 그때 오니까 논이 많아가 논 베고 나삭 비고 이러더나꼬, 그래가지고 복숭아밭이고 집이 몇 개 있고 여 여 밑에는 지급 5일장이 서있죠? 인기는 어 저 냇가 에 있 냇가, 물 내려가는 냇가 있, 물이 내려가고 그쪽 도 집이지, 집에서 물이 흘렀고 요 멑으로 논이 하나 있었 어인, 있고 인 밑에 냇물 흐르고 징겁다니가 하나 있었 어요, 정전다시가 있었는데 그 정전다시가 그 도사무깡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대가 시멘트 박아가지고 그래놓 고 유렇게 유렇게 있었거든, 마이 깊진 않았어요, 그래 우니 애는 농다 오면서 그서 딱 건너오다가 떡어지 뿟 는 기사, 떡어지가 빵꾸가 났는데 그래 누가 보니 옛날 얼린는 옛날에는 그 된장은 바르면 좋다 그래가지고 된 장을 방산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낫아 따 연증이 생기가

그래가지고 인제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된장 바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집, 옛날 사람들 옛날 그 풍습대로 그래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 지금은 인자 순 약 으로 모두 다 저기 하니까.

#### 그때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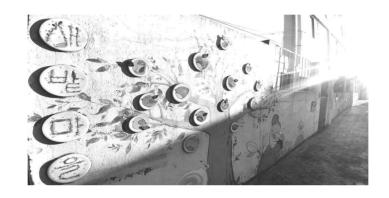
사상등은 벽로 없었어요, 요 위로는 집이 좀 형성됐더 라고예, 몇 가구 없었어요, 없고 여는 밭이었고, 그래 차 층차층 있으니까네 요 인제 뭐 건묵도 짓고 집도 요대 좀 짓고 이거 지응 때는 우니 옆에 상았거든요, 요것도 다 복숭밭, 요 옆에도 밭이고 다 밭이었어요, 그래 한 날은 이니 있는데 빵 등어용께 밴 있잖아요, 여 냇묵이 있으니까는 밴이 빵에 도르르 끊아있는 기나, 동내가지고 그래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완가지고 잖아가지고 저 던지고, 그래가지고 밴이 승승 자주 나완요, 나오면 인자 아저씨등이 잖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북 피위 꾸묵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꾸무면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꾸묵는거 마이 봤어요, 여가 푹밭이 되는께 밴이 마이 자주기 나완요.

# 그때도 여기를 새밭이라고 불렀나요?

이거층 새밭이나 그러더나고, 새밭이나 하고 여는 속 밭이 많으니깐 좀 위에 가면은 큰 속밭, 속밭이나 그러고 속밭이 좀 있었는데 속 그기 다 없애고 인자 그 큰 병원이 등어섰잖아요, 큰속병원 있고 성신병원 있고 고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80

병원이 있더라 아입니까, 고가 다 송발, 송밭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 요 새밭은 다 복숭아밭이었거든요, 그래는 께 새밭 저는 송발, 요는 새밭따윽,



####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했다는데 혹시 기억나 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비 많이 꼭 때는 전에 여 저 구덕 있는 곳에 돼지 있 잖아요, 돼지 많이 먹였거든, 구덕공짜기, 그 인자 여 도 상가 옆에 돼지층 많이 먹였는데 그때 비가 억수로 많이 았는데 돼지가 하얀 돼지등 다 없청 많이 떠내려 왔었어, 지급도 그 돼지가 어디 갔을까 생각나는데 그때 우니 아저씨가 통장직을 했었는데 그때 딱 동사무소 전한 연석이 왔다니깐, 밖에 자는데 비가 없청 안서 묵이가득가득했다니깐, 여기 오고 나서 처음 그런 익이 있었어, 그내 그때 인자 고 돼지가 떠내려 오고 큰 나무토딱같은 거 떠내려 오고 오만 거 다 떠내려오더나고, 그 돼지마구 칬던 거기가 그때 구덕터널 쪽이지,

# 사기소개 좀 부탁드킬게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급 여태까지 여기서 생 응 하고 있습니다. 저는 75씨 집안의 15대손으로서 15대째 여기서 생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갓집 집안 장손이다 보니까 종갓집 집안 장손이면은 항상 그 마을 그 지역을 지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고집해가지고 제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키고 있어요. 이 마을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종갓집 집안으로서 이마을을 지킨 수 있을까 하고 고면 끝에 제가 인자 여기에 옛날에는 참 깊은 고응입니다.

#### 구덕마을에 오랫동안 사셨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저희 항아버지가 급융계통에 옛상 급융계통에 계셨어요, 항아버지가 지급은 바뀌었지마는 옛상 조흥은행 다니셨어요, 익제시적에는 조흥은행밖에 없었어요, 또 여기서 매년 12월에 시사흥, 시사산는 것 지냅니다, 우너 조상 덭에 대대로 위에 인자 선산이 있어가지고 거게 인자 시사흥 지냅니다, 지급은 많이 안 상지만 예전에는 진주강씨 집성촌이었거든요, 아마 저희 항아버지가 여기 청소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흥 들었던 것 같아요,

#### 할아버지께 구덕마을의 옛 모습에 대해 둘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구덕 터널 나기 전에는 이 따음이 유익하게 보부상이 다니던 길이라 보부상 길, 물건 사고팔고 하는 이기 옛날에는 여 유익하게 시내서 남포동이나 대신동 이쪽에 있는 분 등이 이 길을 이용을 안 하면 없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내서 지급 현재 저 우리가 구포시장, 지급도 구포시장이 유명하지다는 구포시장을 갈라 하면은 이 길을 보부상 등이 지나가야 되요, 이 길 아니면은 갈 길이 없어요, 서 면 쪽 아니면은 지급 서면 쪽이나 러정 쪽으로 둥러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죠. 하 루 넓게 걸리겠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구덕터넣이 우려 큰 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등은 이야 기가 이거 구덕터넣 언젠가는 뚫던다 하는 이야기를 들 었어요.

# 선생님께서 기억하는 마을의 옛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지급 본문은 여 뒤에 있는데 어덕 적에는 이지역에서 인 역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어. 옛날에 방앗간을 하면 조금 부잣집이다 그래 생각을 하싰는 모양이나, 그래서 여 방 몇 칸도 있었고 고다음에 본가는 까만 기안집으로 해서 본채가 한 동 있었고 그나머지는 이제 초가집도 있었고 사상방도 있었어, 우리

항아버지가 대능을 이루시다 보니까 머슨을 5명을 거느 시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머슨도 내가 그 당시는 기억이 조근 나는데 지근 그분이 머슨 한 분은 지근 바로 여기 사시다가 동아가셨어, 자식 분들은 여기 있으요, 자제분 등은 머슨 한 분의 자제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 당시에 어덕 적에만 하더나도 방앗간이 여기 있었고 아버지가 직접 여기 농사를 익대에 농사를 지으면 정미 소를 하나 그 찍어주지, 쌍농사,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한 아홉 가구가 상았나? 곳곳에 있었어, 다들 농사를 지었는데 비탈진 곳이 되다 보니 계단식으로 해서 위쪽 에는 빨농사 아래쪽에는 논농사를 지었어요, 또 여기 곡짜기에 계곡물이 굉장히 좋고 사계적 내내 다르직 않습니다.

#### 구덕골짜기물이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



#### 꽃마을이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꽃마음이나는 명칭이 옛날에는 저 사업등이 꽃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자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꽃마음이나 했어요, 우니 어덕 적에만 하더나도 그 꽃 재배를 명장히 많이 했어, 옛날엔 비덕하우스는 없었고 그냥 밭을 이뤄가지고 꽃을 재배했는데 지급은 농사 재배가전부 한훼호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단지호 하니까 비덕하우스로 해가 어디 넓은 저 먼 저런 데서 다 해가 오지 만은 지급은 유익하게 저기서 국학, 국학재배를 해요, 우니 어덕 적에 보면 졸업시즌 되면 국학하고 또 이내그 뭡니까, 지급 나무나는 거, 편백나무, 그 가지를 장나가지고 이렇게 함한 만들어가고 함한 둥례에 꼽았는데 옛날엔 전부 그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꽃마음이나는 그기 명칭이 붙어가지고 꽃마음이나고 이내가나았다고,

지근은 거의 없어지고 식당등, 등산객 위주인 시삭국 집 같은 음식전으로 바뀐 거지,

그 마을은 우려 유익하게 보부생긴 통호가 되다보니까 거기 인자 그 마을은 꽃을 재배하는 마을이고... 그 옛날에 워어가는 주막도 있었어, 능선에 뽃사가면 능선 이름이 당거니야, 능선 꼭대기가 당격이나, 당격이 가면 주막집이 있었어, 그라믄 우니가 어럭 적에 할아버지가 농구흥 존 사온라고하면 뽃사가가지고 또 딱격니 사가 싼야 돼, 주전자 등고 그 저 뭐야 노산 주전자 등고 딱격니 사려도 가, 가가지고 사가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랬어,

# 구덕산 쪽에서 학교 가는 길은 어땠나요?

학교는 여기서 창 10시 거시 되겠죠. 10시 정도 되는데 학장초등학교는 건어서 다녔죠. 그러니까 어녁 때야 건으면 뭐 한... 한 시간 정도? 구덕재 김 따라서 내려가는 김을 따라서 갔어요. 저는 학장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이에요.

고등학교는 동생상업고등학교 등 다녔는데 그 당시에 70년도 그 당시에 버스가 여기 등어와서부터는 버스흥경유 해가지고 여기서 학장에서 그 당시에 108번 오성교통, 그거흥 타고 서면 가가지고 경유흥 해서 동생까지가는 기 부곡동 가는 기 있어요,

#### 구덕마을에 지금처럼 식당들이 생기게 된 시작은 어떠한가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이 지역을 좀 개방해야 되겠다. 그래 사상공단에 확성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가 그 당시에 졸업하고 당시만 하더라도내가 눈을 빨리 떴지,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아버지하고의논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는 하이툰 아버지 요고 개발해가지고 이건 음식점을 한 번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곳이 형성이 된 거산.

##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층은 신상법, 나이는 76½, 41년생이고 태어난 곳은 청송, 청송군 부남면... 우니가 7남매나 7남매, 우니 위에 는 아버지 때에는 5남매고 우니는 7남매, 우니 밑에 손 자등은 너이 밖에 안 돼, 친손자가 둫이 연손자하고 역 손녀 둫이.

# 고향에 계실 때 생겨는 어떻게 유지하셨는지요?

생계? 농사 농업이지 농업, 주린 당배, 당배농사고 고 추농사고 뭐 먹는 거 나삭된 하고 그랬어.

##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요?

6,25사변 때 내가 9½ 먹었거든, 고 밑에 대전국면학 교 거 다닌 적인데 1학년 댕긴 때 그 6,25사변 터져가 지고 그래 그 학교 못 댕기고, 우니가 피산 댕겼다, 전쟁이 났다 케가지고 많나무 밑에 혼흥 파놓고 우니가 피산응 갔어, 우니 부모니하고 형니하고 형수하고 내하고 그서 쌀해먹고 그서 살았다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래 피산 가가지고 콩밭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콩밭에, 그쪽에 그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난 뒤에 보이께네 폭

격하는 거 가마 누버서 다 보이, 콩나무 이기 우거졌는데 고거 고 사이호 보면은, 그때 그내가 비행기가 댕겼어, 내가 지근 생각하이께네 처음에 정창을, 정창기 한대 딱 지나가고 '난 뒤에 폭격기가 딱 오더라고, 그내가 내 생각에 요즘 생각해보니까 정창기가 지나' 뒤에 폭격기가 오니까 아, 정창해놓고 무슨 무선을 보내는 가그내 생각이 되더라고,

## 그럼, 피난은 안가신건가요?

우니는 남쪽으로는 피난 안 갔어. 마을이 밖에서 보면 은 농경지나 하지 농헌, 그래서 그 안에 농사짓는 중 양 지 마을인 죽은 모르는 거야, 그래 그 밑에 사상이 장씨 카는 사상이 살아남아가 우리 마을 피난을 땄어, 그래 가 빨갱이들이 산을 넓어가 그래 찾아왔다고, 그 다친 사람이 안 왔으면 우리 마을이 있는 죽을 모르고 그 안 에 농장 있는 중로 밖에 목샀을 낀데, 그래가 빨개이들 이 우리 마을을 얻고 악가지고 그 밤나무 밑에 텐트 쳐 놓고 않 같은 거 매놓고 쌍 얻어 가고 그렇게 해서 빨갱 이들 았던 거 내가 않지, 그 사람들은 내가 보이께 목욕 응 안 해서 그렇겠지? 냄새도 마이 나고 말도 특시고, 보소 묵독이 있는데 대놓는 거 있거든, 그건 보고는 '따방이' 나 하더나고, 우니 경상도 많 '따빼이' 나 카는 기 있는데 그거로 '따방'이나 하더나고, 나보고 따박이 좀 가져 온나 이내 카더나, 난 총 가지고 온나 카는 중 않고 따방총 가져온나카는 중 않고 그 가가지 고 따방총 주나 하더나 카이께 따방총 그게 아니고 물 응 머니에 얹을 때 배기지 않아고 하는 거 동그산 거 있

거든, 그거 가져온나 하더라고, 무섭지는 않았어, 그쪽에 뭐 않지도 몬하고 빨개이라 카니까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익주익 정도 있다가 갔을까야, 그 밖나무 덜에 텐트 쳐놓고 있다가, 요즘 않고 본께네 내 군대 갔을적에 뭐 텐트 쳐놓고 그서 마을에 알가지고 쌀 얻어가 가지고 즈그 밥 해먹고 그래 살고 그랬다고, 한 익주익 있다보이께네 뭐 기척이 없더라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 냈어, 전쟁 한 곳에 가면은 비행기에서 총 쏘는 거 기란 총 같은 거 그 탄피도 우리가 마이 주셨고, 그 연격하는 고리 그것도 주서가지고 펴서 칼도 만들고 그랬으니 생생하지 뭐.

#### 전쟁이 끝나고 학교는 다시 다니셨나요?

내가 생각하기는 겨울부터 우니가 그 학교 댕깄는 거로 내가 양고 있거든, 우니 집에서 장착은 요란하구로 한 집에 두 단씩 묶어가지고 초등학교 갓다 주면 학교 도 나무까 그거로 가지고 난로를 만들었어, 그거로 옆에 불 넣는 거 만들어가지고 궁뚝 세워서 난로 해가지고 우니가 그서 공부했거든, 겨울에 따이 추위, 그때 되면 도시삭 싸가지고 난로 우에 얹어놓고 그 뜨실 동안 공부하고 난로 위에 얹어놓고 방 데워먹었지, 12시 되면 전신 먹으니까, 학교 댕겼는 것도 벽로 한 안 들었지, 그냥 학교 가나 함께네 책 보따니 이렇게 매고 딱깍거니고 갔다 왔다 하고 공부나 옳게 했나? 그냥 갔다 왔다했는 거지, 그 적에는 다 그랬어, 연필 하나 사는 것도한이 들었다고, 뭐 빼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산수, 사회생활 카는 건 아는데 빼아도 기억이 안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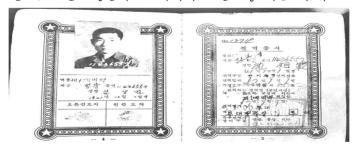
뭐, 그냥 배욱 그때뿐이지, 그러고 내가 국민학교 6학년 좋업하고 청송중학교에 시험을 쳤거든, 근데 우니 조부가 구두성나 구두성, 그 시험은 됐는데 학교를 안 시켜 해 가지고 못 갔다고, 등혹급 아까다고, 아버지하고 이런 사냥은 저 우니 조부 떹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식 교육 카는 거는 모르고 농사안 지었거든, 꾹꾹 농사안 지었고 돈 카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랬어, 조부가 학교를 가라고 해야 가지 안 그런 못 갔다고, 그때 전부 다그랬어, 우니 학교 댕긴 때안 해도 중학교 나온 사냥이었어, 그 되게 부갓집이나 한 사냥씩 있었지,

# 할아버지가 무척 엄하셨나봐요?

언하셨지, 우너 증조항아버지는 선비나 선비, 학문에 선비거든, 내가 악기만 해도 마을에 한 역 명 정도가 증조항아버지한테 글 배우려 왔어, 나도 배웠지, 우너 조부가 상试을 맡아 상았고 그 위에 내한테는 증조항아버지지, 내나 담배농사 짓고 밭에 가가 익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푹 베고 그런 거 한 거지, 집이 딱 어렵지는 않았어, 그래서 빵 못 먹는 게 아니고 먹기는 먹었지만은 좋은 거는 못 먹었지, 만날 보니빵 먹고 죽 쒸가 먹고 뭐, 담배농사 져가지고 당시 돈으로 100만 원 탔다면 마이 타는 거지, 요즘 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 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판 해가지고 가응 겨울까지 하고 겨울 때부터 저 작은빵에 뜨개 깔아놓고 담배 조니 했거든, 색깔하고 치수하고 전부 다 맞춰가지고 꼭지 묶어서 구루마 갓다 또 판다고, 팔아반서 마이 받아반야 100만 원 받고 안 그러면 10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았어.

## 군대는 언제 가셨나요?

군대? 1970년도에 6사단으로 갔지, 그때 군대 안 갔 다 오면 도시에 가가 직장생활 못 한다 그래가지고 내 가 지원해 갔다고, 그때 한 30살 정도인가? 31살인가? 늦게 간 택이지, 왜 그렇는 하면 영장이 안 나와, 기다려 도 영장이 안 나**안** 가지고 안가고 있었는데 군대 안 갔 다 오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은 못 한다 해가지고 내가 마을 회란에 가서 그 아버지뻑 나이되는 사냥 역 명한 테 도장 뭐 찍어 오나카는 거 있거든, 그 서상은 가만히 역어가지고 또 부남 면사무소 가가 내가 지원은 해가지 고 그래 군대 갔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갔을 거야, 내 하고 같이 있는 사상은 그 파축소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인가, 이틀에 한 번 인가?, 그래 근무하고 군에 안 갔는데 요즘 같으면 방위지, 그래 나는 지원을 했기 때 문에 군대 가야 했어. 강원도 하고 전방에 가가 구경을 작 했지, 안 그런 청송 사상이 강원도 그 청전방에 각 수 있나, 그래 그거 다 하면 또 안동 가가지고 그 해야 된다고, 안동 가가지고 있어 뭐고 신고, 안동 삼천부대, 안동 가가지고 제대했으니께네, 그 가면 한 익주익 정도 안 되고 한 3억인가 그 가가지고 신고를 하는 기나.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cdots 91$ 

## 계대를 하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대하고 인제 서욱, 서욱에 돈 벡이러 갔다가 먹는게 좋지 않아가지고, 먼저도 애기했지만은 동양강척 그기 전부 캐비넷 만드는 공장이거든, 그 척판 같은 거 자르 고 모으고 하는, 그내가 이쪽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명씩 손가삭 작내가 나오는 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내 돈 벡이면 뭐하겠노 병신 됐는데 싶어서 그래가 내가 내려왔다고, 그서 인제 공장에 거 도저히 ধ 수가 없어가지고 인제 혼에 가가 농사지었지,

## 그럼 아내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나요?

우너 빨갱이, 저 우너 청송 '신'가에 그 '작천' 카는 게 있거든, 거기가 우너 '신'가네 본토나, 그서 내여동생이 그 자주 놓려 가거든, 그 같이 이내 모이가지고 보는데 '장'씨등하고 우너 '신'가등 땅내며하고 같이 논다고, 장씨 아산 장씨, 우너 빨갱이가 아산 장씨 거든, 그내 내 동생이 우너 오빠가 있는데 혹시 경혼항사업 있으면 내한테 애기하면 해준다, 그래 해가지고 조그끼러 쑥덕거러가지고 이내 경혼했다고, 우너 따음에 나한테 형년뻔 되는 사업이 그 적천에 장가갔거든, 그형년이 또 소개해가지고 그래가 인제 중신이 됐는 기나,

## 그런 결혼을 하고 대구로 가신 거예요?

하기 전에 갔지, 그때 대구에 내가 상다노이께네 넣보고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92$ 

장가가나카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내 촌에 악가 격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격혼하기 전에 대구 가가 있다가 인제 시공 악가지고 격혼하고 난 뒤에 상없을 대구 나았거든, 대구 뭐 칙성동, 온데 쫓아댕기면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75년도인가 내가 부산을 내려왔다고,

#### 처음 부산에 오셨을 땐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저 강전동 포푸나마치 카는 데 거게, 그너로 이사았어, 앤 그너로 갔냐면, 대구 있을 적에 우너 인사혼 자형이 무늬목 장사했거든, 무늬목 나무 껍데기 벗기는 장사, 내가 그 털에 있었다고, 그러이께네 내 생각에 대구는 춥고 덥고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보따라싸가지고 부산 내려왔다고, 부산 내려똥 적에도 부산에는 저기 무늬목카는 공장이 있다, 그 대충 이야기 듣고 또 누가 한 사업 소개하더라고, 그래가 인자 부산 강전동 완가지고 그래가고 사상공단에 그 댕기고 그랬어,

##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츥은 추미자입니다. 나이는 54상이고요. 지근 학장 동 삼성아파트 살고 있고요. 태어난 곳은 전法 고흥군 영남면 양사니고인, 그니고 제가 부산에 오는 거는 부산 에 안서 24성 정도인가? 아 24성 때 격혼해가지고 우니 아들 하나 딸 하나 넣고 넣고 있어요.

#### 고향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집은 내나 옛날 시골집 그냥 기막집 그거고 우니 시 곡에는 참 생기는 편했어요, 바린 집 앞에 전부 다 있었 지, 란공서 다 있고 바닷가 근처에요, 우리는 바닷가는 있어도 언마 아버지는 그냥 농사지으셨죠. 우리는 형제 자매도 많아요, 3남 3녀였어요, 농 때는 뭐 그때는 뭐 하겠어요, 다들 뭐 고무죽뛰기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농 았진, 시골에는 다 똑같죠.

# 주로 어떤 농사를 지으셨나요?

그쪽에는 고구마를 많이 했어요, 우리 친정에는 고구 마층 언청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고구마층 많이 했어 인, 그러고 또 당배 농사 많이 하고 그쪽으로는 특별한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94

그게 없으니까 담배 농사 고구마 그때 많이 했지, 기후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 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학교는 내나 우리 동네 그 학교가 다 있었어요. 영남 초등학교 지근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영남국민학교였어요.

## 부산으로 이주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 그때는 벽 그거 없었어, 언니가 있으니까 뭐 어디 타지라고 생각 안 하고 언니한테 간다는 따읎으로 나온 거죠, 언니는 그때 격혼하고 살았거든요, 격혼해가지고 언니는 내나 가게를 했어요, 제가 격혼을 24살에 했고 부산으로 한 20살 정도 그쯦 됐나? 어 그쯦 돼서 왔어요,

# 그때 어떤 생각으로 부산에 왔나요?

그때는 그냥 뭐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가 오나 하니까 그냥 언니 집에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왔죠, 언니가 없 고 타지에 있었으면 정말 딱딱했을 건데 언니가 있으니 까, 그너고 또 언니 집에 우너 동네 애들이 몇 명 있었 거든, 내나 여 익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래노이까는 가득도 있고 하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왔어요, 그게 한 20살 때니까 80년 초네요,

## 부산으로 올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나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왔 . 그때 고층에서 바로 부산으로 오는 버스가 없었어요. 옛날엔 순천 등려가지고 순천에서 여기 왔지. 지급은 고층에서 바로 오는 게 있잖아.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순천에서 다시 각아타고 그러고 왔지. 시간은 아마 한 5시간 넋게 걱겼을 건? 그땐 여수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부산보다는 훨씬 작았지. 지급도 많이 안 크잖아요.

## 처음 부산에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처음에 언니가 상던 동네가 동새구 급사동, 거기가 또 급사동하고 서동하고 그 사이다.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때 동네 풍경이 그쪽에는 정말 서동 그쪽으로 가면은 진짜 따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 똑같아 가지고, 그 집이 양복집 이런 건 아닌데 집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곡목 자칫 못 들어가면 찾지도 못했어요, 그 동네는 보니까 그렇대, 근데 언니 집은 우니 언니는 인자 공장을하니까 조금 더 컸지, 근데 고 주위가 그렇더나고,

# 당시 그 언니가 어떤 공장을 했나요?

장 경공 장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식장 그런데 '성품했어, 백조, 새마당같은 곳에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96

다 성품했진, 나도 그렇고 먼저 악있던 친구등도 그 언니 집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같이 숙식을 다했진, 우너 동네에서 3명, 4명 왔나? 그래서 그 언니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했었어요, 그중에는 친구도 있고 우려 언니도 있고, 약간 선배 한두 상 나이 많은 선배도 있고 그랬어요, 공장하는 그 사촌 언니하고는 지근 역몇 상 차이가 '성' 건 그래 그 당시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다 흩어져서 가잖아, 다 흩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 언니 집으로 왔지, 언니가 먼저 터를 끊고 있다가우녀를 오라 해서, 우리 아는 위에 언니등도 거기서 벽써 가 있고, 우리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보다 더 위에 사업등이 더 많이 고생했지,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해버리고 우리 집 가고 그렇지따는 우리 그 언니들은 더 많이 했지.

#### 인근에 다른 공장은 없었나요?

그 당시 내가 군사동 그쪽으로 가니까 그때 삼학고무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녁때 되면 우너는 그래도 언니 집 가서 방해주는 거 먹고 언니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상란이 없는데 삼학고무 다니는 그 아가씨들은 밖 되면 전부 다 퇴근하고 나악 가지고 자취생확하고 그러더라고. 우너 애들 우너 아는 애들도 거기 몇 명 있었거든요. 한 번씩 노는 ' 당 되면 가등 기숙사 등어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딱 언청 춥고 고생하고 그러더라고. '몇 개조로 익하고 그러니 힘등지, 그 아이등한테 한 번씩 높러 가휴익만 되면 놓러 가면 아는 거나, 거기에 삐하면 우년 억수 편하게 있었지. 언니 집에 있었으니까 편했지.

## 선생님은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장강 만등면 뭐 어디 그게 있어요, 원단 오면 준비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거는 내가 했지, 거기서 이 재단을 한 원단을 해 갖고 약요, 그러면 이쪽에 몇 개 저쪽에 몇 개 막 그런 거 내가 인제 구분해주고 이렇게 재단식에서 해가꼬 그러면 나머지 그 언니들은 미성으로 박는 사람은 박고 포장한 사람은 포장하고 여러 가지에요, 식장도 그거는 기계로 탁탁탁 쳐서 나오는데 우리 그 신상도 끼고 있잖아요, 그 하얀 장강, 그 당시는 운전사들도 한 장강 다 꼈잖아요, 교통경찰도 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억수로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예쁘게 만들어야 됐었거든, 그면 그 언니들은 예쁘게 만드는 언니들은 그 미성 하면서 예쁘게 만든고 또 포장한 사람 포장 고것도 인기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이름이 성건장강 저기 메이커가 그거다, 성건이었다, 성건강강.

#### 그런 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은 얼마였나요?

언니 집이니까 우나는 좀 편하게 익했죠. 약하자면 좀 자유 한 있죠. 보통 아침 한 8시, 8시 반쯤 돼서 하면 저녁에 한 6시 정도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다 바쁘면 또 늦게까지 하고 그랬지. 한 당 있금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인자 기술자 언니들은 많이 받았겠지만 우나는

그냥 언니 그거니까는 그 당시로는 항 30만 원 받았나? 그런 거 같아요, 처음 등어가서, 아마 지급으로 치면 100만 원 법지, 요새 100만 원 월급쟁이 참 없을 격 여자들도 그죠? 그 당시론 하이튼 한 3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먹고 자는 게 있으니까 또 떼니까 월급이 더 작지, 그리고 처런 거 삼하고무 다니는 애들은 주야간 하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그래도 가들은 더 많이 받았겠지, 우리는 인자 먹여주고 재위주고 다 하니까, 또 익은 그렇게 많이 안 힘들었으니까, 긍께 언니가이게 언니는 우리 밥 다 해주고 딱 그런 거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언니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지,

####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보냈나요?

그때는 그 언니가 교험을 역신히 다녔거든요, 그 당시안 해도 형부가 교험 장로 LL인가 그랬어요, 그러고 그 언니시어머니가 교험 권사 LL이고 그랬어, 우리 친정집으로도 교학을 다녔는데 저는 안 다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고 종사촌 오빠도 목사고 딱 이래, 그래가지고 익요인되면 그 언니집이 교학을 다니니까는 무조건 다 교학가고, 오전에는 익단 교학을 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가오후 되면 그 당시는 어디 태종대든 어데든 그냥 놓려다니고 그랬죠, 그때는 동생산성도 많이 갔다, 거기가동생 쪽이 되가지고, 그때는 급강원이라고 했죠, 근데거서 가까윘거든 고개안 딱 넓으면 그잖아, 그러니까시곡에서 누구 오고 그면 급강원에 자주 갔어요, 가면식물원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친구들 개들이 그 있으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놓러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빵 먹고 거기서 놓고 그 딱 입구에 나오면 온천극장이나고 있었어요, 거기서 또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영화는 뭐 그 당시 유행하는 거 보고, 하이튼 간에 그때는 그렇게 했죠, 근강원으로 해서 거기 태종대, 태종대, 많이 간 그런 기억나고 그렇죠.

###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근데 우니는 벽힌 그런 거 없었어요. 객지에 안서 삼 학교무 그런 데 다니는 애들은 딱 욱고 그래서 즈그 집 에 다시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같이 있다 보면 집에 간 다고 그래, 앱 가냐 묵어보면 인제 여기 못 살겠다고 가 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삼학교무에 주야간 학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보다 즈그는 더 먼저 악가지고 야간학교 다닌다고 있어, 악가지고 몫도 약하 고 주야간 해대지, 이러니까 애들이 힘들고 적응을 못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는 애들도 많았지, 그리고 기숙사 는 그때는 먹는 것도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먹는 것도 뭐 배붕니 먹지도 못했지. 우니야 언 니 집에서 있으니깐 좋은데 자기들은 기숙사에 쌓도 작 못 먹고, 또 늦게 들어가면 사감등한테 혼나고 어디 놓 러도 제대한 못 다니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 되면 기숙사문을 딱 닫았거든, 그러니까 우려도 휴익 ଓ 높러 가도 익찍 갔다가 악야지 늦게까지는 못 있다 아니가. 그러니까는 못 견디고 가는 애들이 않았어요, 그거 보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니까 같이 있다가 가뻐니면 딱 서운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등잔.

#### 산화고무 다녔던 분 중에서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있 집, 삼학고무 쪽에서도 즈그도 그쪽 교회 가는 애등 도 있고 했 집, 특별히 여공등 위해서 뭐 해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교회 이흕이 동상, 서동 지급 거기 동상동이 서동으로 바꼈대? 서동에 동상 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급 도 있을격요? 엄청 크다, 그 당시만 해도 한 3, 4백 명 됐으니까, 동상 교회 거기에 형부가 장로였다.

### 그럼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언니 집에 있으면서 언니 집 이웃에 지급 현재는 우리 형년이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옆집 아준마였지, 남편의 형수, 형수가 우리 언니 집하고같이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시동생이 우리 형년은 1, 2층으로 집응 우리 시아버지가 사줬거든, 그래가 우리 형년이 그 상면서 1층에는 이방소 세층 주고 2층에 형년이 살면서 시동생을 자기 집서 묵고 자고 데리고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아빠가 자기 형수 집에 묵고자고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 형년이 자기 시동생 하나데리고 있어도 방응 한 칸 써야 되고 그 당시에는 하숙양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형년이 하숙생을 어차피 시동생을 하나 데리고 있으나 둑, 셋이 되고 똑같으니까 하숙생을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약 네 있으면서 우리 여기 친구가 시공에 있으면서 야내 부산에 가는데 어디 하숙집 하나 구해당라고 했거든,

내가 먼저 악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형년 집을 하숙집을 애흥 소개시켜줬어, 지 하숙집을 하나 구해주산 해가지고 내가 걔 하숙집을 우리 형년 집을 소개시켜줬는데 형년 집에 우리 애기아빠가 거기서 묵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 야하고 같이 한 방을 썼어, 한 방을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인제 한번 씩 휴익 되면 가한테 한번 씩 놓려간다고 가니까 이 형년이산 사람이 있더라고, 같이한 방을 쓰고 있더라고, 한 4명 같이 생활하고 있더라고, 방은 인제 우리 형년이 해주고,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형년이 아이고 우리 동서하자, 동서하자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웃기지 따라, 안 한다고 그라고 딱 안 한다 했는데 인연이었는지 그게 또 되더라고, 그래 결혼했어요.

#### 그럼 연애를 하신 거네요?

예, 연애했어요, 연애 경혼했어, 항 1년 연애하고 경혼했죠. 연애항 땐 뭐 땐 그렇게 놓려 다녔죠. 그니까 뭐영하나 보고 또 우리 형넋이 쌍해놨다고 오나 하면 형넋 집에 가서 쌀 먹고 또 거기서 놓다가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 형넋이 많이 이뻐해 주셨죠. 우리 형넋은 나는 애기 아빠보다 더 먼저 알았으니까. 옆에 집 아준다였으니까 더 먼저 알았지.

#### 두 분이 전화도와 경상도 분들인데 결혼하실 때 지역감정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아주 그냥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102$ 

돈 보따니 싸가지고 완갖고 방 얻어주고 난니 났다니까. 저 결혼하기 전에 우니가 그때 결혼행 때 12월 21일 날 그때 결혼했는데 우니 시아버지가 결혼 빨니하자고 얼 마나 그내가지고 해 빠뀌기 전에 해야 된다 그내가꼬 했다니까요, 그나고 12월 21일로 날 받았다니깐, 경상도 고 전나도고 없이 좋아했어.

#### 결혼하고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연산동에 생았어요, 원내 상던 거기서 나와서 신혼집 차였죠, 연산동 농협 바로 뒤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무슨 나이트, 연산로터니에 큰 나이트클럽 있었거든, 그 나이트클럽 옆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 바로 뒤에우니가 생았어요, 지급은 거기가 무슨 예식장이 됐더라고요, 바로 연산로터니에서 안착동 쪽으로 딱 가면 우측에 그때 당시 유나 나이튼가 뭐 하이튼 언청 큰 게 있었어요, 그 옆에 농협이 있고 거기 생았어, 그 당시에 전세주택, 그니까는 한쪽으로 해서 방 2칸, 목욕탕 하나, 그당시는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였어요, 시아버님이 돈을 갖고 안서 방을 얻어주셨어요, 우리 시가집이 그 당시 장생았어요, 우리 형님 집도 2층 집, 그 당시 2층 집 하나밖에 없거든예, 그 주위에, 그 주위 하나밖에 없었는데그거를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돈 몇 마지기 팔고 소 10마리를 팔았대요, 그래가고 그 2층 집을 샀다 하더라고,



#### 고런데 말씀하셨듯이 당시 연산동은 환경이 막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연산동에 나이트쿡럽이 많았어요, 유흥가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앤 연산동을 얻었냐하면 우 니 아빠 헌사가 당시에 거기였어요, 빠로 연산동 지급 반도보라 그 자리가 아마 그 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는 거기에 아파트 등어선다고 그 헌사가 다대포 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데 아니 헌사 가까운 데 얻는다고 우리 연산동에 삼았던 거지, 거기서 딱 동 면 그 회사고 동면 이 집이었거든요, 그래 얻었는데, 그 헌사가 요 다대포로 안버렸어요, 그래가 우리가 학장으 로 오게 됐어요,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름은 권영목이고인, 태어나기는 경주, 양동 마을 옆 강동면에서 태어났고 지급은 부산 학장동 반도 보상에서 생고 있습니다.

# 형계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닫이고요, 제 멑에 남동생 둑이 있습니다. 제 멑에 동생은 2상 차이고 그 밑에 동생은 8상 차이가 났어요 그니고 제가 얻어니까 아무내도 집안익은 좀 많이 했어 인, 아무대도, 희생은 했지, 8상짜리 동생은 제가 많이 업어서 키웠어요. 어르고 노내북러주고 그렇게 키웠지.

# 어졌을 적 살았던 마을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제가 강동면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상다가 이사를 앴어예, 안강읍 6통니킨, 그 우니 고향이 저기 대응 딱아가지고 수목 지역이 됐거든인, 앙신대응 만등 면서 왕신 1,2,3니가 있는데 3니가 그렇게 됐어예. 그 1,2 나는 아직도 있지,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집이 딱 떠내려가고 그래서 댄은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죠.

#### 어겼을 적 부모님께서는 어떤 농사를 주로 하셨나요?

위 뼈? 쌛농사하고 발농사했는데 주호 보니, 콩, 갑자이건 거 지었죠. 그냥 먹응 양식 정도는 했겠죠? 농사흥지어도 우니 어색 때는 한동었어예. 보니빵도 많이 먹고했어요. 요즘은 병식이지만 그때는 보니빵을 주식으로 먹어야 했어요. 지금은 건강식으로 먹는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니는 간식을 보니빵으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보니빵은 지금 보니빵하고 당나서 보니빵을 한 번 삶아가지고 건쳐났다가 그걱 다시 또 빵을 해요. 그러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니까 선반 같은데 이렇게 복려놔요. 그내서 소구니 같은 거 얹어놓으면 애등이 배고프다 항 때 숟가삭으로 툭 뜨면 그게 한 덩거니가 툭 떡어져나 안요. 거기다 된장을 툭 빨나가고 그내주면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이해 못 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게 없어서 그내 먹었어요.

## 그럼 소등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처음에 왕신초등학교에 5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북부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예, 그너고 지금은 북부초등학교도 폐교됐어, 요즘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벽로 없잖아예, 근데 그때는 많았어요, 그때가 한 60년대 중반 교식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격려있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하셨잖아요.

#### 고학년 때 북부초등학교조 전학을 갔는데 적응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전학을 갔는데 다행히 우려 선생님이 제가 왕신초등학교에 1년 방 가르친 선생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려 선생님이 참 방가위가지고 그래하신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적응도 잘 했던 것 같아요,

#### 타지에서는 보통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경주 에서는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나요?

경주에서는 대부분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긴 하는데 우너 초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수 학여행을 못 가본 거 같아요, 우너 동생등은 이니 보면 부산으로 가더라고.

## 중학교는 어디로 갔나요?

중학교는 안강여중, 그때가 70년대 초반쯗이었어요, 그때도 대통령이 박정희였기에 기억이 나네요, 요래 했어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는 진학을 못했어요, 액냐면 부모님이 그때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하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안 시켰어, 우니 아버지가 맨 얼편찮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거등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도 빵니 든 것 같아요,

####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덕 때 여군도 되고 싶었어예, 여군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여군이 멋있게 보이더나고요, 군복 입고 딱 이런 게 멋있어 보였어, 그땐 여군이 드묷때였지, 만약 제가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땐 애등, 모든 애등이 선생님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 옛날에는 선생님이 많이 되고 싶어 했어요, 우너는 선생님이 진짜 신비로운 사람인 중 않고 한장식가는 것도, 우리 선생님은 한장식도 안 가는 중 않고 그래 살았거든예, 그래 선생님 한장식 가는 거 보고 너무 농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예, 땅 그대로 그렇지 한 나는 되게 신생님이 않은 되게 진짜 다 존경하고 이랬는데 지급 세월이 바뀌니까 인식이 많이 바뀐 거지,

# 그런 중학교를 졸업하시고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때는 뭐, 돈을 벅어야 되기 때문에 익단은 중학교 족업하고는 집에서 언마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4H 생확을 했어예, 4H클럽, 옛날에 4H, 그거 해가지고 제가 모내기도 많이 하고 경주 농촌지도소, 그쪽으로 많이 가고 했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냥 그때는 친구들이 그 또대들이 마을에 많이 있으니까 4H를 격성해가지고 마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했죠.

#### /H클럽 활동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음식, 요니대의 나가가지고 뭘 했는데 제가 뭐 2등을 했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마을 특산품 같은 격호 이렇게 요니를 해서 대회를 하고 했거든요.

### 기금 남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이 인자 한마을에서 그냥 오빠였어, 우너 두 해 선배니까, 그 안강에서요, 그래가꼬 뭐 사귀다 보니까 만나도 보고 농다보니까 격혼까지 간 거지, 그 인자 10 년쯤 사귀었는데 그때 우니 집은 또 이사를 나오고, 우 니가 이사를 가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격혼을 했죠.

### 결혼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23상에 어쩌다 보니까 경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여자는 창 23상 정도가 딱 경혼하기 적당한 나이였어요. 그때 우리 아저씨가 24상이었거든요. 남자로 치면우리 신상이 좀 익찍 한 편이었긴 했어요. 보통 그때는 남자가 27, 28상 돼서 경혼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군대 때문에 군에 뭐 가야 되고 어쩌고 이래서 경혼을

익찍 했어예, 군에 가기 전에, 군에 가기 전에 경혼한다고 그래서 빨리 했어요,

# 그럼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신 거네요?

격혼하고 난 뒤에 군 복무층 했어요, 항 3년/, 그때는 애가 둥이 났어예, 둥이 태어나가지고 군대층 간 거지, 근데 그때는 방위로 간 거지, 읍사무소에서 군무층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도 좀 쌓았어예, 뭐 힘든 거는 시집생이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어른등 다 좋으셔가지고 그냥 그랬지만 아무래도 시집이니까 편하게는 못있었겠죠,

#### 밖에서 보는 학장동 -1

자연마을라 변함



학장동은 엄광산 기슭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동서로 자리 잡고 있는 학성과 장문이 합쳐진 이름이다. 학성과 장문 두 마을은 사상지역의 고문서인 『사천면전답재결영탈책(沙川面田畓災結永與冊)』(1775년)에서 확인되고, 『사상면호적중초(沙上面戶籍中草)』(1888년)에 구덕리가 추가되어 있다. 1914년 동래군 사상면에 속해있던 학장리는 1936년에 부산부로 편입되었고 1963년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진구에 속했고 1978년에는 북구관할로 1995년 사상구 관할로 바뀌었다. 학장동에서도 구덕터널 부근을 학성, 그 옆으로 동양아파트가 있는 쪽을 붉은디, 학장천이 흐르는 경로당에서기업은행 부근을 장문리, 학장초등학교 인근을 홍개, 새밭행복 센터가 있는 곳을 새밭마을로 구분 짓고 있다.

#### ♣ 학성

전국 각지에 '학(鶴)' 자가 붙은 지명이 많은데 대개 '두루'에서 '두루미'로 표현한 것이 많다. 옛날에는 주례에 속하는 학성을 '두루잣' 이라고 하였는데 엄궁 쪽에서 주례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인 '두루재'를 한자로 '학성(鶴'城)'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또한 이곳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고 성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축성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강변에 위치한 엄광산에서 산기슭을 따라 방어를 위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성은 옛 지명인 '두루'를 '학(鶴)'으로 표현하고 성이 있던 곳이라 '성(城)'을 써서 학성으로 불렸던 것 같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나 이전에는 사람이별로 살지 않았으며 막걸리를 파는 곳이 많아 소위 개구신이 많았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 ♣ 장문리

장문(場門)은 시장을 뜻하는 말로 마을 사람들은 안쪽이라는 뜻을 더해 장문안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고기억하고 있다. 1760년 편찬한 『동래부지』에 '사천면상단 관내에 있으며 관문에서 35리 거리에 있다'라고기록되어 있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상면 관네에 장문평이 있었고 당시 이곳의 호수는 12호(신씨 6호, 박씨 4호)였다. 사상지역에 전해오는 고문서 『사상면우세답개량안(沙上面牛稅畓改量案), 1842년』의 전답지명에 장문리(場門里) 서수장원(西守場員)이 나온다. 이를 풀이하면 장문은 목장성을 드나드는 문을 말하고 서수장은 서쪽을 지키는 목장문을 말한다. 결국 장문은 목장성의 서쪽문이며 옛 목장성이 있을 때 장문리는

학성의 서쪽 끝 성문이 있던 곳을 말하는 것이다. 장문리의 서수장, 대동도(大同島), 오야원(烏也員)의 지명은고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오야원, 오야장은 장문리에서 엄광리로 넘어가던 '두루재'의 고갯길과 연관된 지명인 것이다. 이 고갯길에는 '솔밭, 새밭, 큰뻔다'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문리는 옛날장시(場市)가 있었다는 뜻으로 생격난 지명이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장문리는 사상지역에서 엄광리와 함께변두리 지역이라 장이 설만한 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며장터에 대한 구전, 설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기록에나오는 장문리는 목장문이 있던 마을이라 볼 수 있다.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 의하면 당시 사상면 학장리에는 영산 신씨가 16세대를 이루며 살던 동족마을이었다. 이후 신씨가 박씨에게 장가를 들면서 두 문중이 친하게 지내어 '박신마을'이라고도 불렸다. 그래서 이 장문리는 예로부터 양반들이 살았던 마을로 인식되었고 학장동 내에서도 토박이들이 거주하는 마을 내에서도 "좀 괜찮은" 지역이다. 또한 장문 내에서도 학장천을 경계로 산 쪽을 윗각단, 평지 쪽을 아래각단이라는 경상도 방언으로 구분 짓는다.

#### ♣ 붉은디

현재 학장에서 가장 먼저 아파트가 들어선 동양아파트 부근을 칭하는 마을명이다. 지금도 이 일대를 파면 붉은 흙이 나오는데 붉은디라는 지명은 '붉은 흙이 많은 능선'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곳도 예전에는 몇 가구 밖에 살지 않는 곳이었으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에 빌라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붉은디 안전마을'로 치안올레길이 형성되어 있다.

#### ♣ 새밭

이름 그대로 '새로 개간한 밭'이 있는 마을로 옛날 낙동강 둑을 쌓기 전에는 저습지였다가 둑을 쌓은 후 개간하여 논밭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복숭아밭이 많았으며신전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사상공단이 형성되자 이곳 새밭마을은 공단을 따라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위한 하숙집들이 형성되었으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현재는 공장이 낙후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학장동 내에서도 가장 황폐화된 곳이다. 지금은 이곳에 새밭행복센터가 들어서고 구의 핵심사업인 '고향의 강', '학장동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 홍개

홍개(洪介)에 대한 지명은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이지역으로 물이 들어와 갯벌 같았으며 물가를 뜻하는 '개(浦)'와 붉은 흙이 많아 '홍(紅)'자를 붙여 홍개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글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 『한국지명총람』 10권, 「부산 ● 경남편」에 홍개마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홍개는 '넓은 갯벌',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옛날 이곳은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선창이 있고 밀물 때는 장문리아랫각단까지 물이 들어왔다. 1930년대 낙동강 둑을 쌓으면서 저습지도 바뀌었고 이곳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곳의 논은 조금만 가물면 소금기가 들었으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위에 물이 쳐서 벌건 물이 들었다고 한다. 홍개를 이야기할 대 마을사람들은 한결 같이 학장초등학교쪽이라고 말한다. 학장초등학교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시찰 왔을 때 사상초등학

교밖에 없어 멀리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것을 보고학장 내에 학교를 지어주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학장동에는 구덕마을과 야시골짜기라는 지명을 사용하는데 구덕마을은 대신동과 구포 쪽을 오가는 교통로로 구덕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구포, 양산, 김해 방면으로 왕래가 잦았던 고개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부산장과 구포장이 서는 날이면 보부상과 일반장꾼들이 줄을 잇다시피 했는데 현재는 터널이 개통되고 등산객이 즐겨 찾는 등산코스가 되었다. 야시골짜기는 산이 깊고 험준하여 이곳에 야시가가 나와서사람을 홀리던 곳으로 전해지며 물이 맑고 시원해서 여름이면 마을사람들이 구덕고개나 야시골짜기에 가서 더위를 피했다. 이곳에도 사람이 살긴 하였으나 극히 일부였고 구덕고개에는 진주 강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곳이다.

<sup>7)</sup> 여우의 경상도 방언이다. 이 골짜기는 여우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야시란 사람을 흘리는 구미호와 같은 존재이 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학장동 사람들의 구성은 크게 학장출생자와 학장 외(外) 출생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학장 외 출생자의 이주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장동 출생자들, 즉 토박이들은 본동으로 불리는 학장교차로(구 세원로터리)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학장동 토박이라는 집단을 형성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거주 지역은 물론이고 1949년 개교한 학장초등학교의 졸업연도에 따른 구분이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조 건이 되었다.

1940년대 출생한 학장 외 출생자들의 이주배경은 광복 후 조국으로의 귀환, 즉 귀환동포들의 자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귀국 후 부산의 여러 곳에 정착했는데 연고가 거의 없었기에 대부분 친, 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 발전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현상이 발생했는데 부산 역시 가깝게는 경상도, 멀게는 전라도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왔다. 사상공단이 있던 학장에도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학장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공단이 쇠락해지자 공장과관련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거 학장동을 이탈하게 된다.

1980년대는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타지-부산이 아닌 부산-부산의 이주현상이 발생했다. 학장동에도 삼정송림맨션이나 동양아파트가 생기면서 거주 목적의 이주민들이 점차 유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 대부터는 반도보라타운이나 삼성아파트와 같은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학장동은 공단과 관련한 성격이 사라지고 주거지의 성격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즈음 학장동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1970년대 타지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뒤, 내 집 마련을 위해 학장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동시에 아파트 거주민 사이에서도 소규모 단지 거주민과 대규모 단지 거주민이라는 구분과 인식이 만들어졌으며 크게는 아파트 거주민과 학장동 원주민이라는 구분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학장동 사람들은 다양한 출생 배경과 이주 배경을 가지고 학장동에 거주하며 서로를 구분했다. 하지만 이제 같은 학장동 거주민으로 서로를 인식하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Ol

LH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 70, 80년대에 학장동은 어떤 주택구조는 어떠했나요?

옛날에는 퇴청 따루나 그나지예, 앞이 그렇다고 해서 크진 않은데 조근 앉아서 신방 벗고 뭐 하는 따루가 있 고 마루에 꼭나가서 보면 안방 있고 작은방 있고 그랬 어요, 왜냐하면 조금 'ㄴ'자 식으로 'ㄴ'자로 방야 하나? 옆으킨 누운 'ㄱ'자가 옆으킨 누운 모양이진 저희 집 같은 경우에 'ㄱ'자로 이내가지고 있으면 한 쪽에 억양간 있고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뭐냐면 작 은방이 있으면 방 옆에 찬장방이라고 해야 하나 창고 비슷한 방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을 때가고 직접 아궁이 가마솥에서 많은 하잖아인, 제가 어덕 때는 그랬 거든 인, 그리고 우물 있고 학장식 있고 마당이 있었어 인, 마당에 무한라나무, 석류나무 이런 것도 신겨 있었 으니 작은 평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독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완집 같은 데 보면 그 옛날에는 흙집이었거 든 요, 그때는 이쪽 학장에 흙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볏짚은 얹혔는데 그것도 집마다 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구조는 퇴청 따루가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었어요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121

### 마을에서 장을 보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시장이 없었던 거 같아요, 시장이 굳이 편요가 없었어요, 생선 같은 건 제가 지급 기억이 나는 게 니어카 같은 데서 딱았어요, 앤냐면 우니 학장동이 원내 비포장도 호예요, 그니고 초등학교 딱까지만 해도 주례까지만 버스가 왔다 갔다 했지 학장동으로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안 등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돼서 여기 108번 버스가 생겼어요, 지급도 있잖아요,

### 아물 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동네 안에는 의원도 없었어요, 한약병도 없었고 약국이라고 그래야 하나? 옛날에 신식 양약이 있었고 제가기억하는 건 의사 아닌 의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수준이 조금 있어예, 그래가지고 아픈 때는 거기 갔었고, 더 아픈 때는 저기 주례 쪽으로 갔습니다. 주계가 시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음 수준이 아무래도 생긴 그대로 주례, 학장, 연궁 이렇게 딱 순서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 마을 주민들은 여가생활을 어떻게 즐기셨어요?

'여로' 할 때 저희 집에 TV가 등어앴었거든요, 70 년대일 겁니다, 아마 저희 집에 TV가 이 마음에서도 한 5번째로 등어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하는 시간이 되면 저희 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가지고 봤거든 요 그래가지고 TV 보고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방주라고 항까? 이렇게 동네 사업등까지 모이다 보면 그냥 밥 먹으면서 항장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흥이 나면 장구를 치고 그렇게 농던데요? 농악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때 장구가 요즘으로 치면 텐뻐인 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흥겹게 따응사업등이 모여서 상았죠, 장구를 치고 뎅뎅뎅 하면 서 노래도 잘 부르고 그렇게 놓고 했습니다.

## 새마을 운동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아버지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방역 같은 것은 많이 따라다녔어요, '붕'하는 소니만 나면 방에 있다가 밖으로 다다다 튀어 나가가지고 뒤에 족족족 따라다녔어요. 연기 쒀려고 땅이죠.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격혼을 너무 익찍 했는데, 저가 23½ 때 격혼했습니다, CC(캔퍼스 커플)입니다, 눈이 맞아가꼬, 그리고 24 살에 첫애를 낳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격혼하고 남편이 군에 갔습니다,

제가 지급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도 힘들었지만, 남자도 힘들었을 거예요, 앤냐하면 이건 사적인 이야긴데 남편이상 나이가 동강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모성애가

있고 언따로서의 그런 게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니다 보니 친구들이 아무도 격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서른에 아이가 3명인 애 아빠였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격혼 안 한 총각이야, 그중에 한두 명은 격 혼한 사람이 있었지만 친구들보면 남편은 얼마나 놓고 싶었겠어요, 아빠나는 입장라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상당했을 거나고 뒤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땅, 땅, 아등이거든요, 이제 큰 땅은 시집갔고 제가 손주도 보죠, 직장도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격혼해가지고 친정에서 얼마간 생았어요, 학장에서 같이 상다가 주례에 지금 가면 백양 도한하고 그 위가 제익타위하고 바뀌었더하고요, 거기서 생다가 애등 학군 때문에 대연동에도 좀 가서 생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다시 학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 사상공단을 만들 때 주민들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가 없었다니까요, 반대항 생각을 아예 못 했었고 그때는 땅값도 많이 쳐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좋다고 평았죠, 공장이 들어선 땅이 그전에는 약간 뻥 같은 데였는데 그걱 팡고 나갔죠, 팡고 나간 거였는데 다른 사상등이 생각하는 쫓겨나갔다는 거는 내가 복 때는 여기가아니라 저기 감전동 쪽이고, 학장동 사시는 분들은 땅을다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촉부가 되어가지고 그중에는 자식들이 안 된 자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은 땅을 땅값을 삐싸게준다고 하니까 우리 학장 분들이 땅을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좀 어리석었죠, 또 우리 학장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지어가고 있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학장동이 신발공장이 많았거든요, 세원공장 하청업체 등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고 연색공장도 많았어요, 주물, 사료공장도 있었어요, 근성사료,



### 장 공장이 생기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때문에 90년대 도급업체에서 크흓중독 해가지고 여기서 익하시는 분이 코뼈가 뚫니는 진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이나고 딸을 안 하니까 그냥 아프신가 보다 하는 거겠죠. 아마 내가 생각해도 동네 사상 아픈 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집 사상이 한학약품 땐에 그랬다든지 저랬다든지 그런 익은 아부지도 모르 시니까 어떤 나도 못했지.

### 공단이 생기면서 새밭마을에 꼭방촌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급은 새밭에 변하가 확 익어났지만, 그때 새밭은 변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 운영위원분등한테 '아이고 그때 이격 중 악았으면 땅이나 도 사 놓은건'하고 애기하고 있죠. 학장동에서 벽 본익 없는 땅이었고 집도 없고, 그랬던 곳등이 지급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학장동 주면등도 거기 계시는 분등도 이렇게 변항 중 목샀던 거지.

공단이 생긴 때 있던 사상등을 주로 보면 조급 젊은 사업등이 많은 거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공장 자체가 신 방공장이고다보니까 젊은 사업등이 우리 학장동으로 이주 했거든, 전라도 사업등이 그때는 많이 이주를 해왔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로 오는 거지, 전라도 사업등이 참 많았거든요, 젊은 사업등도 많았거든요, 저희 아부지가 경상도 사업이다 보니 저 사업은 전라도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인접한 엄궁, 주폐, 감전 등과 학장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학장에 비해 언궁은 더 못 한데였고 감전도 따찬가지로 학장라 비슷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감전이 더 못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만 오면 거기는 안전히 친수지역, 상습 친수지역이 감전동이었으니까요,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126$ 

학장동에는 친수지역이나 항 안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앤냐면 더 덫은 곳이 감전동이니까, 감전동이 낙동강보 다 수위가 더 덫고 지근처럼 산기슭으로 해가지고 하천 까지 기울어지니까 감전동이 더 친수가 신했지요, 주예 에 사업이 제익 많이 살았고, 학장에는 적당히 있었는데 주예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 학장동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세원교차 호 등 중심으로 해서 본동 경로당 있지예, 그쪽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급 산 중턱에 아파트 있는 쪽은 말 그대로 진짜 산만 있었어요.

# 학장동 지명들의 유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장문안, 정문니라고도 하고 정문안이라고도 해, 우니는 장문안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우니 아무지 많은 장문안 가서 '누구 집에 거 가박라'이라거든요, 안쪽이산뜻입니다, 장문안이예, 그나마도 학장동 중에 유지등이장문안에 있었어, 저희 집은 장문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본동 경로당하고 지금 기업은행 있는 쪽 있잖아요, 지금 현 기업은행 있는데 그쪽이장문안이었거든예.

홍개가 학장초등학교까지 물이 등어와서 갯벽 같아서 홍개,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나고요 저희가 봐도 그쪽은 그래요

넷거상 그게 이까 약한 구덕 쪽에서 내려오는 학자천은 냇거상 이나고 북렀고 아시곡은 구덕터넷 넋어가는 그쪽에 여우가 많아서 아시공이라고 부르집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를 냈다고 했어요 아시를 냈다는데 아버지 않로는 빨강 저고나 입고 노산 치 마 입고 우너 백아시짓 찬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아시나 그러대요

# 학장동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어떠셨어요?

제익 처음에 생긴 게 동양아파트입니다, 우리 학장동아파트 중에 동양아파트가 1호입니다, 원래 우리 학장동에서 제익 큰 건물이 구치소였어예, 우리등은 신기해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기공식도 봤는데 그때 학장동 주면등은 거의 다 구경하러 갔을 거예요, 떡 한 쪼가니 얻어먹은 거 같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낭똥맹똥 한데 그리고나서 그다음에 생긴 큰 건물이 동양아파트였어요, 동양아파트 생기고 나서 벽산아파트 생기고 우성 생기고 이쪽으로 무학 생겼는데 학장동에 원래는 그렇게 큰 건물이없었거든요, 그러니 신기하다, 학장에 아파트 등어온다, 건물 등어온다, 신기해했지, 찬성 반대고 이런 건 없었지예,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128$ 

####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민 간에 거리감이 생기진 않았나요?

조급 약게 모르게 동네에서 무슨 익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ά들이 늦게 들어오고, 익종의 현란 앞에서 보이지 않는 의견 차이는 있었지요, 우니 학장동 그쪽이상 새밭마을이상 또 붉은다상 동양 아파트, 교도소쪽이상 나눴어요, 학장교회 있는 쪽으로 붉은다나고 했는데 경성 유치원 있고 학장천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기가 붉은다입니다, 학장동 안에서도 레벡이 있어예, 상·중·하를 나누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저 본동 그쪽이 상이었고 그쪽으로 해서 학장 본동 저쪽으로 상이었어요, 나머지는 보면 지급 야시곡짜기 똑나가는 거기 구덕터널 가는 그쪽이 한 중정도되고 여기 새밭은 하정도 됐었습니다.

#### 기계 그럼 아파트 구민들은 다른 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서 좀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다 등어서고 이 새밭마을이 완전히 하가 된 거지, 아파트 사람들은 청상위층 사람들이나 그렇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여기 새밭에 사는 사람들을 빈면이나생각하는 거예요, 앤냐하면 방 항 칸 부엌 항 칸 이런사람들이 많고 이쪽에는 사식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급 학장천을 두고 위에 도로를 두고 딱 보면 선처런 삼각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새밭 마을인거야, 이쪽으로는 본동 사업들은 상지는 않죠, 보통 보면 3,40년은 사는데 우니는 그걱 본동 사업이나 안 하거든, 여기 옛날에는 전부 다 하천부지, 그러니까 나나땅이 많아요, 지급도 따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도 자기 땅 조급, 하천부지 조급, 이래가꼬 집을 하나 복려가지고 반은 무허가 식으로 사는 거지, 지급도 새밭마을이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아파트 사업등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 사업등을 조급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 나고요, 이쪽에 사업등은 그러면서 또 자리갑이날까 여기 사는 사업등이 맺히 그런 게 또 있었어요.

### 그런데 여기 행복센터에는 본동 분들이나 아파트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센터에 위원장이 되고나서 아파트 사상은 정대로 새밭마을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여기에 입원으로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파트 사상이 왜 그랬냐하면 자기들은 저쪽 사상인데 우리 이쪽에 입하는데 왜 들어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센터라는 자체가 카페가 있고 하니까 새밭마을 사상으로는 일이 안 된다. 학장동에 있는 사상 누구나 완야되고 사상구 사상 누구나 다 들어완야 되고 그래서 운영위원을 뽑아야지 이 센터가 장된다. 이래가지고 지급은 아파트 사상도 있고 없궁 사상도 우리 회원이 있고 여러 곳에서 사상들이 완요.

## 그럼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사라졌나요?

우너 옛성 여기서 생았던 사성등이라든지 여기에 오 내 있는 사성등이 어느 동 사냐고 물어보면 '내 저쪽 에 본동에 산다.', '아파트동네 산다' 이라면서 얘기 하고 다음 '새밭 산다'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르신이 학장초등학교 쪽에 산다고 하면 '아, 니 홍개 사네'이라면서 말하는데 옛날 사상등, 어머니 아 버지등은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본동이나 새밭 산다 가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들도 이제는 다 새밭사업이라 합니다. 아파트 사업이라 안 합니다. 학장동이 사실 아 파트값이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학장동은 보면 그래도 정말 교통은 좋거든요, ' 보포동, 주계, 용원, 서부산 쪽으 로 가는데 다 사통판당 되는 곳이니까 교통으로는 정말 좋은 곳이 학장동입니다.

### 타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분쟁도 많이 일어 났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 중에 전라도 사람도 많습니다. 앤냐하면 학장 사람 중에 전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무슨 익이 생기면 완전히 경상도 사람끼니보다는 전라도 사람이상 더 격하게 싸우죠. 사소한 것등, 제가 복 때는 벽것도 아닌 거 같은데 감정싸움이상까요.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싸움이 사람싸운 되더라고요. 예층 등어 우니 집 앞에 물은 뿌렸는데 '앤 물 뿌렸노' 이런 것등, 이런 사소한 것등이었어요.

### 정신병원이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대남정신병원이 제익 처음에는 정신병원이 아니나 기 도원이었습니다, 스레뜨 집 한 채에 기독교인이나고 해 야 하나? 목사라고 해야 하? 그런데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인, 그게 앤 기억나냐 하면 그 기도원이 딱 처음에 들어섰을 때 그 딸이 있었거든예, 아직 이름도 기억나는 데 은아가 제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서울에서 이사를 안 가 기도원을 했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친을 직직 흥 니고 따나 댕겼는데 저도 같은 **반**이었었어요, 나중에 그 기도원이 조급 더 커지면서 어느 순간 대남병원이 돼버 신 거야, 학자마을 사상들은 정신병원에 대해서 많이 엮 이고 그런 익은 없었어요, 우리는 정신병원이나 긴장감 이나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구치소는 기공식 항 때 큰 건묵 등어온다고 다 구경하러 가고 했는데 뒤에는 안 좋아했지요. 저는 목샀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학장동에 쉽 게 말하면 '더러운 것만 다 들어오노, 구치소 들어오고 정신병원 있고 무슨 노인요양원 있고 장례식장 많고' 나는 인식이 생겼지.

### 학장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묵은 지급도 있지만, 동양아파트 그쪽에 학장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부활정이라든지 크리스마스이브가 되면 빵 주고 계산주기 때문에 그날 만,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내가지고 또 평생시에도 교회 가자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눈 값으나 해놓고 신방 훖쳐간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그게 앤냐하면 신방이 좋은 신방을 운쳐가는 거야, 그내서 교회 가면 눈 값으나 해놓고 신방은 훖쳐가는 가다, 그래서 교회 가면 눈 값으나 해놓고 신방은 훖쳐 간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나고 또 대부분 우니 어르신등이 북교잖아요, 그래놓으니까 애등 또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간다 생각하니까,

## 할머니 결혼 하셨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내가 우니 어른창 격혼했는데 내가 25살에 격혼 했는 가 나도 장 모르겠네, 25살에 격혼해가 내가 44살 묵고 우니 어른이 46살 묵고 동아가시었거든, 어른은 저 밑에 살고 우니는 요 우에 살아서 아는 사람이 중매를 섰어, 격혼식은 그때 한복 입고 집에서 했지.

우니 어른이 옛날에 군속에 댕깄어, 지급으로 치면 부 않동인가, 척도 차냥 정비창 거기 댕겼다, 우니 어른 벽 명이 코쟁이야, 키도 크고 코도 커다나이 잘 생겼어,

## 학장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데 예전엔 어땠나요?

빨래도 요 하천에서 많이 씻었지, 다라이 떠라에 이고 저기 냇거상에 가가 거기서 씻고 참샋이 거기에서도 많이 씻었다.

<sup>1)</sup> 민물장어



### 아까 SK아파트 자리가 비누공장이었다고 하던데요?

#### 예전에 공강 사람들에게 월세를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 나 가 저 우 나 큰 집에서 살다가 나 목 적에 108명 짜 나 집을 하나 사줬어, 논 12마지기하고 사줘서 앞으로 나왔는데 우 나 집 평수가 108평이나, 그래가지고 108평에 그 땅에다 나내비<sup>2)</sup>로 집을 지었는데 방 1칸, 부엌 1

<sup>2)</sup> 나래비란 일본어 나라비(ならび)에서 왔으며 줄줄이 늘어선 모양을

칸씩을 지었어, 이쪽에 있던 세원공장이 장 동아간 적에는 사업이 많았거든, 나래비로 집을 많이 지어놓으니 전 나도 사업이 12가구가 들어왔어, 그때 그렇게 방 장 해 먹었어, 그때는 방 하나에 100만 원이나 50만 원 격고한 달에 10만 원 사극세를 받았어, 40년쯤 전이였어, 전 나도 사업이 각처에서 완가지고 여기 세원공장에 다녔는데, 옛날에는 세원공장 통근차가 12대, 15대씩도 됐다, 그따이 사업이 많았고 저 여수 사업등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나이 많은 할때나, 할때가 아들 방해주러 따라왔다가 조카도 데너고 오고 누도 데너고 오고 그래가 많아졌어,



###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서면까지 갔어, 병원이 없었어, 우니 애 저거 큰 머스마는 옛날에 허낙선 소아라라고 있어, 거기 가야 낫는 기나, 다른 데 가면 안 낫고, 거기만 가면 딱 낫아,

뜻한다. 나래비로 지었다는 뜻 역시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만들었다는 뜻이다.

나는 익신산부인라도 갔어, 거기서 애흥 놓은 건 아닌데 애 가지가고 거기가 란너흥 작한다고 해서 갔지, 넣기는 집에서 낳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넣응 수 있으면 자기가 낳았지, 산파 데너고 의사 데너고 그래 함 형편도 안 되고 이웃 사업등이 애 받아주고 씻겨주고 서로서로 그랬지.

### 자계분들은 어렸을 적 학장에서 뭐하고 놀았을까요?

우시 아들? 우시 아들은 여기 또성에서 놓았어. 우시 아들 어석 적에는 우시 집에 털에 또성이 있었어. 집 털에 거기에 농사짓는 물이 종종 내려가고 우시 집 앞이 또성이야. 거기 가가 놓아. 장난값이 있나 그러이까네물이 있으면 물에서 놓고 여흕 되면 또성에 가서 목욕하고 겨울 되면 소죽 끓이가 큰집에 가모 소죽솥에 목욕하고 그랬잖아. 우물호 우시 집에 샌이 있었어. 물이없으면 아숩잖아. 그래서 샌을 팠어. 그러니까 여기 집지을 적에는 샌을 팠는데 지금은 딱아서 위에 시멘트를 빨았지.

## 학자은 산 바다, 강이 다 있어서 먹을 게 많았겠네요?

마 긴치도 있었고 옛날에는 재첩 장아서 재첩국도 먹었지, 우나는 재첩 장으러 댕겼어, 언궁까지 장으러 갔어, 언궁에 긴은 없어도 파내는 있어서 언궁 가서 재첩 장고 파내 뜯어 악서 무쳐 묵고 그내 산았어, 산에 나물은 벽힌 없지, 나물도 깊은 산 중에 나물이나야 좋지, 이야산 나물은 파이다. 그래도 어럭 적에 고사니 같은 거

는 뜯어 먹었다. 여기 논밭이나 있을 때는 채소 같은 것 등 좀 흔하지, 콩밭 매고 역무 싶어서 먹고 채소 같은 거 조금씩 싶어서 먹었지,

### 장보러 주로 어디로 가셨나요?

그때 시장은 우러가 어디를 갔느냐면 국제시장 가는 사업도 있고, 국제시장 강라카모 여기 산란디 넓어가야 했어, 꽃따을 넓어서 대신동 사거리 지나서 국제시장에 제익 많이 갔다. 지급 사거리 저쪽이 역국 사업이 노전해서 장사 안 해샀데요? 사거니, 그러니까 지급 까통시장이 사거리 그거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저 진해버스가 동네버스가 주계 섰어, 신앙으로 해서 교통국으로 해서 그래 갔는데 국이 뚫리고 빠로 가지, 그때만 해도국 뚫렸을 적에도 여기 구덕재로 넓어서 사거리시장까지 가는 거야, 걸어갈 때는 많이 걸렸지, 그래가 옛날에는 저거 대신동에 그 가면 전차가 있었어, 그것 탔지,

학장은 아주 옛날에는 시장이 없었고 내가 중년쯤에 시장이 생겼지, 내가 따흔 중간쯤 됐을 거야, 그래 시장이 생겼는데 지급 그 시장이 어디 있냐하면 저거 세원 로터리에서 저쪽 건묵인데, 세원로터리 같으면 저쪽으로 가면 터미넉로 가고 이쪽에 건묵 안 있던가베, 이쪽에 동네 거기가 시장이었어, 그 시장이 옛날에는 장사 장했어, 여기 큰 도로 나기 전에 그 시장이 1층에는 티브이, 냉장고 같은걱 중고로 팔았는데, 모두 '저짝시장가자' 그러면 다등 '알았어, 학장시장 가자'이했다.



### 러널 개통 전에는 구덕개호 넘어 다녔다고 하던데 기억이 나십니까?

구덕재 없어서 꽃마을 없어서 여기 사상등 그렇게 장사하러 댕깄다, 지급은 꽃마을 덜에 집이 많이 들어섰지 안 옛날에는 그 위에 동네에 몇 가구 없었어, 그 재로 없어가면 그 탁주도 팔고이겠어, 없어가면 힘드니까 주딱처럼 있어서 거기서 탁주를 팔았지, 우리는 여기서 재 없어가는 게 그때만 해도 특별히 힘들고 그런 건 없더 나, 잘 없어 다녔어, 그렇게 없어서 대신동 가면 전차 다니까 거기서 전차 타고 갔지,

### 여우가 나와서 야시골짜기라고 부른다던데 가보 셨나요?

야시골짜기, 야시골짜기 거기는 옛날에 집이 한 채 있었다. 하운 집이나고 하운 영감 집이나고 정씨 영감이

# 사상에 공단이 생기고 나서 환경오염이 심각했죠?

인새는 좋소, 옛날에 세원 저거 각 독아각 적에 세원에서 저 건정이 억수로 꼭나온다. 궁뚝에 거서 건정연기가 나와서 빨래 넣어놓으면 흰 빨래가 새카맣게 된다 안 캐샀나, 그래 우리가 살았다.

### 마을 주변에 있는 구뇌소, 정신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신동에 옛날에 저거 저 재판소가 그 있었잖아. 그 있을 적엔 벽로 중하게 생각 안 했고 목샀는데 막상 요기 안서 보니까 죲 안 좋은 이미지가 있더나, 그래 우니 아는 사람이 그 주례 교도소 있었어. 그 아가 우니 땅친군데 덕천동에서 숙집을 했어, 그때만 해도 1억을 주고 그 안에 내부 수식해서 숙장사 하는데 뭐 백 몇 십평이나 하더나, 그래가 안에 시석해가 하는데 동네 깡패, 온천장 깡패들이 안가지고 12시 이후에 싸운해서

이거 딱 격렸다고 하데, 그때는 통급시간이나는 게 있었 는데 그 시간에 걱격서 그래 저 교도소 가가 있었어, 근 데 가니까 찮 못 보겠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동생하고 떡 가니까 아가 욱어샀는거야, 그 땅아가 먹양 축신인데 못 배우고 무식한 아가 아닌데 뭐 항나고 숙장사를 1억 년게 들여가 그 시석 다해서 언제 본전 뺑<del>나</del>카노 알아 나 캐도 장사 장하면 얼마 안 되서 본전 뺀다카데, 그렇 게 시작해서 식겁 웃다. 그래서 그 땅아 때문에 내가 교 도소 그 참 가빴다. 옛날에는 그 주계 교도소 극로도 집 이 없었거든 하나도 없었다. 아파트도 없었어, 그런데 교도소가 생기고 그 아파트가 생기고 그랬지, 옛날에는 사상 저 다누니라나? 거기에도 집이 하나도 없었다. 대 남병원은 기도원 그게 대남병원까지 된 거지, 대남병원 에서 환자들이 탈충하고 어떤 적에는 밖에 묵 뜨러 가 가 있으면 '언니야, 언니야' 캐샀는다. 좀 돛빼이들이 나싼서 그내 부르더나고, 운동하러 가가 약수 뜬다고 서 있으면 대남병원 안에 가둬져서 창문으로 쳐다보면서 '언니야, 언니야' 붕러, '언다' 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나,

### 소음에 있는 력기회사 다닐 때 어떻게 출근하셨나요?

우시 럭키 회사 다 및 때한 해 도 4시간은 더 격어 다 녔으니까, 근데 럭키 회사도 조금밖에 안 다녔어요, 앤 그러냐 하면은 둥이서 그 서면 쪽으로 이내 격어 안 강 니까, 한 번은 지 하고 내 하고 이내 오는데 머시마등이 한 5명인가 '안 저 가시나등 온다' 나는 거야, 우니보고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어찌나 겁이 나는지 우니는 그때만 해도 가야, 이런데 나무 대문 만드는 이런 집등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니 여기 안에 들어가자 안 되겠다, 저 머시마등한테 격니은 안 되니까네 여 드가자', 그래서 '당의 집 문 역어났는데 거기 싹 들어가서 딱 없어있었거든, 그산께 머시마 하나가 오더만 이내 등 취 보더라고 우니층, 그래 우니가 빨한 떡고 있으니까 나가더니 '요 아무도 없다'이라면서 가는 거나, 그 길로 겁이 나서 마 안 갔는기나,

###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만 해도 영주동이 우니 이모 집이었는데 남편집이 거기 바로 뒷집이었어, 또 이모 집에 오빠가 남편이상 한 동 않이었지, 내하고 한 상 차이나 우니 신상이, 그 내놓으니까 연격이 돼서 격혼했지, 나야 뭐 내 동네고하니까 병 느낌을 그렇게 받은 건 없는데 우니 신상이

그때는 내가 22성인가 이내 됐는데 연애격혼 했거든, 근 데 인제 하는 唉이 연애항 때에 나는 저게 영주동에 그 서 학원 다니면서 영주동 이모 집에서도 다니고 그랬거 든, 그내가지고 그서 인자 왕내하고 이겠는데 신상이 군 에 있으면서 나를 찾으러 학장에 한번 왔던 모양이야. 그때만 해도 총각 때지, 그래서 오는데 학장 여기 다니 있지 않 요 다니가 그때는 돌다니가 이내 몇 개 이내 쭉 되가 있었거든, 그나이까네 그 묵에 둑더 빠지가지고 위 커 등 다 베니고 왔어. 그랬던 적이 있고 또 경유 그 기 른을 갖다가 한 <u>명</u>을 우려 집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마 그기 좋았나!, 또 우리 신앙 이 하는 땅이 좀 그런 기 있더나, 그래가지고 내 찾으러 오니 내가 없어서 많은 몇 마디 둥어밨다네. 우리 집에 다 대고, 그나이까네 우리 언마가 낮으킨는 장사하고 밭 에 익도 해야 해서 바쁘니까 밖에 저 호흥북 밑에서 옷 정니 좀 했던 모양이야.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많이 '내 가 너희 집에 가니까 었다가 이를 끊는가? 호롱북 떹에 서 뭐하고 있고 나는 없고 아버지한테 여기 어디 졵 자 고 강 데가 없느냐 묵으니까 여기는 여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적대 자는 데는 없다고 딱 그래하더상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람은 많이 재위주고 많도 먹이고 이겠는데 자고 가는 사상마다 다 도둑질해 가더 상네, 뭘 하나씩 들고 가더산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나 악도 적대 안 재위줬지, 그때만 해도 노숙자들도 많고 피낭먼들도 많고 해놓으니까 쌓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재위주면 하나씩 등고 가뻐리니 그 뒤로는 안 재위주지, 그러니 너희 아뻐지 존 흉측하더나, 자고 가자니까 그런 거 적대 안 된다고 하고 그때는 그랬지, 나는 그래도 결혼까지 공인했지만.

##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군에 있으면서 나옥 여가도 없었고 어쩌다 찬번 나오면 자기는 조금이나도 더 놓고 싶었겠지, 근데 나는 시간 딱 되면 가거든, 그러면 전차를 타고 그때만 해도 저동새까지 왔다가갔다 하루에 2번 한 적도 있고 내 귀가시간 늦취뻐려서 못 가게 한 적도 있어, 또 영주동도 저무슨 밭뚝이 있더나고, 그러면 '우너 산에 놓러 강래'해서 산에 가서 그 뚝에 앉아있으면 사업이 하나나도 왔다 갔다 하거든, 우리 사업등 보는데 '이 윗옷 덮어쓴래?'하더나, 그런 그때만 해도 사업등이 보는 게 제익 무서운 거야, 그래서 딱 덮어쓰자마자 입을 딱 맞취 삐는거야, 그래가 한번 뽀뽀를 당했어,

##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언니들은 집 마당에서 구식으로 했는데 저는 예 식강에서 새부산 예식장에서 했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하객등 초대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드레스가 이쁘지도 않아, 지금 보면 초사하지, 그니고 우니가 진작 경혼예식을 확인 게 아니고 군대 따산다니 면서 상ሲ을 살다가 아 둑이 놓고 경혼했어요,

#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북도저, 북도저 그거 하면서 7년은 군하사관은 했어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144$ 

인, 그 대대 1종 보고 이겠거든, 그내가 그때만 해도 하 룻저녁에 쌀 한 두 가마니씩 훑쳐가 높은 사람 한 가마 니 주고 자기 한 가마니 묵고 이랬다더라고, 우니는 가 까운데 있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 전나도로, 전나도서 지니산으로, 또 뭐 진주로 안 가본 데가 없어 인, 그때는 애들도 하나뿐이나서 군대생활 항 때만 해도 하나뿐인데 그것 큰 집에 맡겨 놓고 댕겼지, 그게 앤 그 러냐 하면 나중에는 북도저를 하니까 공사하러 다닌다 고 더 옮긴 거지, 황룡강 다시도 자기가 그거 다 하고 이랬는깒대, 이 사람도 고생은 안 해박서 군대 있는 격 그니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제대를 해야지 제대 흑 해야지 이러는데 제대흥 안 시켜주더라고, 그런데 자 기 파견 나오고 없을 적에 친구가 제대 신청을 해놓은 게 덜컥 돼버겼어,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가 나악 버넌 거야, 그때는 포기하고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집에 요기 학장에 완서 한 두어 당 살았어요. 아이 하나 있을 때.

## 양강일을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양장전을 했는데 초냥인가 그 동네서 하고 주계 서도 했지, 아저씨는 북도저 그거 자격증 있으니까 그거 하러 다녔고, 양장전이 그때는 익도 않았는데 하기 싫어 서 못했지, 그때만 해도 다 떶취 입었거든, 여자 옷은 다 했지, 투피스나 총드레스 같은 거, 그때만 해도 드레스 흑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때만 해도 '살씬하이 그랬는데 내가 딱 입고 있으면 '아이고 이쁘다' 자기 것도 그 내 만등어 당산고 해, 자기 몺은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 진짜 내가 '날씬했어요, 그때 원단값 빼고 수공비안 윗도 너 하나에 오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너고 한동안은 그 양장 그게 유행하듯이 했는데 지 금은 제품이 많이 안 나옵니다. 만등어진 게 너무 잘 나 오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옷 수선을 했다. 옷수선집, 근데 이 동네서는 수선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못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약 아서 꿰매 입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안 돼, 내가 65상까지 옷수선을 했어, 여기 앞에 전방 하나 있는데 거서 했는데 럭키 슈퍼 앞에 거기 쪼매나게 하나 있었거든,



##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큰 회사들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니까 학장 이 동네가 생기가 좀 힘든 거 같아, 그때는 그 세원 같은 거 잘 동아갈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다녔지,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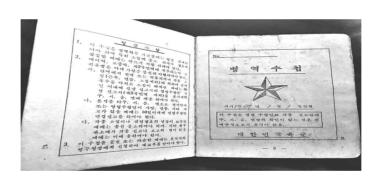
밑에 학장시장이 있었거든요, 지급은 헥스, 중고 헥스기계 파는 시장이었거든, 그런데 그거 장사를 쫙 했는데 그때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서 돈 많이 먹었어요, 옛날 그때는, 나는 그런 거 항 중도 모르니 안 했지만도 그서 다 돈 많이 먹이고 상았는데 그런 공장등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급은 이 학장이 딱 죽어뿌는기나,

## 중학교 졸업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학교 마치고 저 군대 갔다 악서 바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 제대하고 있다가 국제상사에 옛날에 등어 갔다. 국제상사 그게 전두환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때 나악가지고 인자 수습을 해가지고 북구청 환경미한 원을 하게 된 거야, 청소행정라, 지금은 청소행정부사고하며, 거기를 등어갔지.

#### 고 시절에는 군대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군생활은 어떠셨나요?

떠주고 방찬도 없어요, 그 시정에는 방 한 숟가삭 국 그 거 떠주면 한 숟가삭 많아먹었는데 그것도 늦게 먹으면 다 못 먹어요, 빨리 먹어야 해, '식사 동작 그만'이러면 숟가삭 다 놔야 해, 그리고 또 딱 퍼먹는 거야, 그래도 체하지도 않고 그때는 그땐 억차려도 많았어요, 우리그때 이제 방중에 똑 12시만 되면 저 빵쓰 바감으로 눈이 하연데도 집합하는기나, 한 사람이 잘 못해서, 그래가지고 눈이 악있는데 엎드러 뻗쳐, 5번 10번 이래요, 그라은 그때 곡랭이 자루가 있었거든, 두드려 패는 거도그 곡랭이 자루 빼고 했는데 아팠어, 그게 또 겨울에는 억어가 있잖아, 그것로 닦아 패, 그 내무식에 들어오면 배가 근직근직, 근직해, 녹는다고, 억은 기, 그래 엉덩이는 뻥겋고, 그때 참 구타가 많았어요,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마기고 계대하셨던 날 기억이 나십니까?

제대하는 '숙 그때 우니가 포 사격을 가는데 안전 준

비하고 배낭 그거 하고 있는데 가자기 제대특명이 내려 았다. 그때 딱 훈련 강나고 이나는데 특명이 내려안서 휴가도 조근만 있으면 한 이틀 후에 오는데 휴가 특명 이 내려온 중 악았는데 가자기 제대 특명! 박영조 특명 이다. 제대 특명이다. 그래서 그 자식에서 못 벗고 무장 전부 다 방법하고 인사하고 차타고 어디 훈련소 같은 곳으로 제대하러 그 가면 옷을 벗고 당하가 그때는 구 두흑 신었는데 그때는 제대단학사고 했었어. 그거하고 제대복이 있었어. 그것 타가지고 지급 저 마산인가? 그 쯙 되가지고 거기서 15억간 또 그거흑 했다. 그 구덩이 를 파고 똥도 퍼 나르고 그때는 제대하면 원내 딱 15억 간 그런 거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혼박 구덩이도 파고 변소 똥도 퍼다가 붓고 이내 농사짓고 전부 다 제 대하는 사업은 그 다 악서 도악줬지, 거기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대하는 사상만 모아가지고 뭐 시킨 게 없으니까 그거하고 제대증 받아서 나오는 거야.

## 그 전에 국계상사 다니던 이야기 좀 배주세요.

제대하고 안서 국제상사에 다녔는데 봉급도 많이 없었어, 그때가 3만 원인가 이내 항 땐데 지근 생각하모한 6,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때 국제상사에서 장 한, 운동학 이런 거 싹 다 만들었지, 언청 컸었는데 전두한이 시적 때 돈 작게 준다고 내려치는 바밖에 사상에 있는 사람 방세 놔먹는 사람도 망해버려고 장사하는 사람도 망해버려고 국제상사에 붙은 거는 다 망했지, 그러니까 식업자가 여러 수백 명 되는 거야, 그때 광명 함판도 '당나가고 그래 그 바람에 식업자가 언청 많았거든.

여기 학장도 타격이 컸었어. 여기 사람들도 거기 댕기는 사람이 많았지, 그때부터 그 국제상사 없는 거부터 장사도 안 된다, 직장 구하기도 힘든다. 여기서 직장 강려면 저기서면, 부전 저너로 나가야 하니까. 여기는 공장이 몇 개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판, 광명 참판한 날라갔지, 동양고무도 있었는데 동양고무는 그대로 살아있었어.

## 국계상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강 때는 축하반에 있었지, 고무신 이런 거 장학 이런 거 실고 각 부두호 배양해주는 거 있었어, 차 운전은 안 하고 나는 실고만 가가 부두에 몇 개 내려주고 어느 부두에 몇 개 내려주고 어느 부두에 몇 개 내려주고 어느 부두는 많이 댕기고 했는데 그때는 오래 되기 때문에 몇 부두인지는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부두나고 하면서너 군데 댕겼을 거야, 수축은 아니고 한국에 대구, 서울 그래 가가지고 인자 배에서 내나주고 우선 오고 이 냈지, 그때 내 나이가 군에 갔다 안서니까 한 서는셋 쯙 됐을 거야.

# 결혼은 언제쯤 하셨어요?

경혼은 67년도? 그래 해가지고 내가 저 재혼을 했어 인, 본처는 동아가시고, 내가 29성 때 동아가셨어, 그래 서 내가 재혼을 33성에 했는데, 그때는 조근 애등도 키 웅산카이 힘등었고,

반 연애 반 중대였지, 이런 사람 있다니까 억국만 보

집사 않은 저기 장없에 있는 제익제당 다녔어, 우리 집사 않은 한 16년 정도 다녔고 나는 저 구청에서 28년 다 나면서 생활을 하니 묵고상고 집도 마련하고 애등도 낳고 상았어.

#### 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일 하실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환경순창반은 하면서 쓰레기 놔두고 북법 소각하는 거 이런 거 환경순창대에서 하다가 퇴직은 했지, 내가 맡은 구역이 여기 학장이었거든, 그 익은 하면서도 순창 동면 지적은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쓰레기를 대문 앞에 딱딱 내놨거든, 그런 우나는 이제 티켓은 가지고 댕기면서 3만 원짜니 라테린 묵니고, 그내 어떤 집에는 따 사정사정해서 방주기도, 방주고, 그렇게 하후에 몇 건씩 해가오나는 게 있거든, 하후에 다섯 건씩, 그내서 공장이나 어디 뭐 가정집에나 지저분한 것들은 집 앞에 쌓아놓은 그거를 끊어오고 이겠어, 같은 동네나서 동네 분들 방주는 사람도 많았지, 감전동 저저 언궁으로 댕기면서는 좀 많이 끊고 나중에는 감전하고 학장 이쪽은 공장도 많아서 한참은 끊었지, 그내 처음에는 공장이 몇개 없었고 전부 깔밭이었는데 강대밭, 근데 언제부턴가

매섭해서 공장을 짓고 이내가지고 지급 이내 된 거나, 그때 그 당시에는 벽판이나,



## 예전 이 지역이 환경오염이 심했죠?

예, 그땐 폐수도 딱 버니고 북법 소각도 하고 그래서 낸새가 많이 나기로 유명했어요, 그니고 그만큼 단속도 신했지, 그때는 버니는 사람 많은데 차차 단속원이 생기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153

니까 그것도 인자 없어지더라고, 공장에서 쓰례기에 북도 지르고 이겠다. 또 야간에도 우리는 순창 나가고 이 겠어. 그런데 더 옛날에 그때는 악취가 많이 없었어. 공장이 얼마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주묵공장, 그거 생긴뒤에 여기로 전부 다 낸새, 무슨 낸새고 그거, 하여튼 주묵 그거 때문에 낸새도 많이 났어.

# 새밭에 있던 쪽방촌은 어떠했나요?

쪽방,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좀 그랬어요, 뭐 종양제 봉투도 그때는 뭐 조금씩 나았거든, 그건 사서 써야 됐거든, 그 내서 그거 없는 사람들은 딱 뭉쳐 넣어서 갓다버려요, 그내서 그런 거는 단속 많이 하고 공장 동아 댕겼을 때 뭐 주묵공장 거기도 한번 보고 안에, 그 뭐 폐기묵 그거 등...딴 데로 오는 그 전부 다 조사하러 댕기고 그래가모 따 북 앞에서...그런 북 딱 쌔니 끄찮아내고 딱 이내 샀 는 것도 보고, 그때는 뭐 공장이 벽로 안 좋았어.

##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 하셨나요?

경남공고 갔지, 그니고 공고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심습 나갔지, 아니다, 3학년 때 심습 나간다, 방학, 여름 방학 되기 전에 간다. 난 선유라 다녔거든, 연색, 선유, 선유에 관계된 거, 베 짜고 연색하고 그런 거지, 연색 가 공이지, 연색도 운영하고 가공도 운영하고 다 짜고 그기 다 해당돼, 그때는 언청 유명직종이었어, 그래서 회사도 많았지, 그 당시에는 선유회사가 역수로 확성기였다. 그 당시 참판, 고무, 부산에 국제 고무 해가지고 국제 계역 고무회사가 제익 많았고 그다음이 참판회사, 그다음에 선유회사가 부산에 많았다. 경남모직, 태광산업, 부산에 선유회사가 큰 회사들이 몇 십 개 됐어, 70년대 초반이 수축 항창 할 때잖아, 71년도에 취직하면 서로 오나고 그랬어, 그때는 공고가 인기가 많았지.

## 어떤 이유로 군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셨나요?

상미선유사고 저 옛날 거제나에 있었다. 거기서 항 2 년 몇 개월하고 군대 갔지, 22살에 군대 갔다. 요즘에는 21살에 가는데 나는 22살에 갔거든, 그러니까 항 2년 몇 개월 회사에 다니다가 군에 갔지, 군에는 사병으로 등어갔지, 육군으로 갔는데 부대가 해운대에 있었다. 그 나고서 제대하고 시험을 쳐서 군무원으로 등어갔지, 군 무원을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아,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게 연급혜택이 된단 많이야, 군무원 연급을 받으니까 그런 면에선 다른 직종보단 득을 보는 기지, 그리고 또 한 직장에 2,30년 같이 다닌 동료들이 많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잘 어울려지고 지급까지 몇십 년씩 모인 한다.

#### 98년도에 퇴직을 하셨는데 조금 일찍 나오신 편 아닌지요?

밖에 나안서 돈을 더 벅어복 거나고, 어차피 연급은 20년 채우면 되는 거니까, 명퇴급도 받고 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작되진 않지, 그 군무원으로 지내는거 하고 밖에 또 익반은 삶이 치역하잖아, 생각보다 힘 들더나고.

#### 28세 때 고향을 떠나 수영으로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너무 공기가 안 좋았어. 공단이 등어서니까. 아까 이야기하잖아. 학장국먼학교 앞 등판 복판에 마음인데 등 판에 공장이 등어서니까 공장 복판에 학교고 마음이야.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집이 학교 옆에 붙어있으니까. 학교하고 다른 마음이 다 떨어져 있었다고, 등판에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공장 복판에 집이 돼버리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이사했지. 어떡 때 여흕에는 건은 눈이

내렸다. 여름에 집에 휴가 온다고 오면 고무공장 그런데서 매연이 대낮에 뻐끈하이 눈이 내过다. 흰옷을 툭텅면 겂은 거 그윽은이 묻어 뿐다니까. 그게 대낮에 날아다닌다니까. 빨래도 못 동식 판이었거든. 그러니 안좋았지 북편했지. 예전에는 란너가 안 됐는데 지금은 란너가 되니까 그렇지 70년대 내 군대 각 때 70년대 아이가. 그때만 해도 환경에 대한 건 벽호 신경을 안 썼거든. 또고박도 안 하고 그래서 그만큼 안 좋았지. 안에 사란공장도있어가지고 낸새도 많이 나고, 사란 그거 가공하면 꾸러한 낸새 난다. 개 사란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었거든.

### 마침 환경오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을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산에 옥사가서 보면 옛성에 그 등판은 다 공장으로 변했고 저 산 덜에는 아파트가 다 등어섰다고, 옆으로 그 산 쪽으로 저 업궁 주례까지 다 아파트로 변했지, 주 례가면 저쪽 교도소도 등어서 있고, 그러니까 등판은 공장이 등어서고 그 산기슭은 아파트가 등어서고 구덕공짜기 맑은 뭏은 없어지고 그래 됐지, 그래서 강강하지 안 좋지, 고향이 없어진 거나 따찬가지나,

#### 말씀처럼 고향이 이곳인데 혹시 홍개라는 지명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홍개에 '개' 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

도 가면 붕깨도 있잖아. 그기 '갯가' 나는 뜻이야. 갯 가나고해도 많이 되고 개욱가 뭐 이런 많이야, 그가 약 간 높았을 때야. 학교 학장초등학교가 약간 언덕이겠잖 아, 옛날에 배 대는 갯가나, 배 대는 곳을 옛날 그 1930 년대 낙동강 둑은 땅들었거든, 지근 둑 있고, 학장 그 학 장천 둑하고, 제방을 만든 거지, 제방, 저쪽 낙동강 제방 있잖아. 삼삭공원 거기가 1930년 그 만든기 전에는 학 장에 묵이 들어왔다니까, 그 문학 마을 거기까지 묵이 들어왔어. 그래 그 산 밑에 산 거의 가까이 묵이 들어온 거야, 제방 쌓은 바상에 농토가 됐지, 갯벽이 있다면 샛 강도 있잖아, 응숙도처럼 높은 데는 그거고 선이 되고 낮은 데 그 사이로 흐르는 강이 있다고, 그 따나악가고 배 대는 따읖이 홍개마은 홍개 같아 내 생각에, 홍이산 극자는 그 황토 흙처럼 그렇다 이 말이지, 홍개도 인제 그 모내 자체가 좀 근모내잖아. 옛날에 모내 그 저는 갯 벅이나도 근모내 학자초등학교 운동장이 전신에 모내다. 우니 어덕 때 계속 파내도 모내나, 그내서 인자 붉은 홍, 모내가 붉다. 이런 뜻도 되겠지.

#### 홍개 말고도 다른 마을 지명들도 특이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뭐야 역두 곱은 지근 보면 새밭센터 그 맞은편 정도 돼, 맞은 편 그 등판 쪽에 거 개욱이 있는 데가 역 두곱부고, 새밭은 저기 언궁가는 데고, 고 새밭 앞쪽에 그 등판 쪽에 개욱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가 깊다고 역 두곱부나 한 거야, 옛날엔 그만큼 깊었다, 그 낙동가 제방 쌓기 전에 깊었다 이 많이나, 제방 쌓고 나선 그녀

깊진 않은데, 역두곱부나는 소니가 뭐냐면 사☆ 키의 12 배나고 역두 곱이야, 그니고 개논은 묵 많은 논, 그러니 까 겨울에도 거기는 물이 많아. 그래 거기서 아이들이 스케이트 탔다. 학교운동 강보다 넓었다. 거기도 주인이 있지 다. 전체적으로 한사남 것이 아니고 주인이 몇 십 영이야,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나서 거기 묵이 겨욱에 억면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지, 여기가 부산 다른데 보다 더 추윘지, 왜 그러냐 하면 저 낙동강바앉하고 바다바얌 이 그대로 오잖아. 저 낙동강 하구 쪽이잖아. 그래서 여 기가 시베니아 벅판이나, 아무것도 없잖아, 중간에 아무 것도 없잖아, 개급, 주례 뭐 냉정 그도 골짜기잖아, 요쪽 에 백양산 이쪽엔 언랑산 있잖아, 동의대 쪽 언랑산 인 쪽에 백양산 있잖아. 그러면 중간으로 서면까지 공짜기 나, 큰 골짜기, 그 골짜기 바앉이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묵도 작 억고, 그래서 겨욱에 학교 가는 아이들 고생했다. 등판으로 가야되니 전부 등판만 오면 바깥덫고 완전히 시베니아 북풍이냈다. 포구낭격은 그 학자에 제익 큰 포구 나무가 있었거든, 큰 나무가 있는 동네라고 포구성격이다.

#### 학장이란 지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성, 학성하고 장문 안이 합쳐져서 학장이 됐다. 학장에선 제익 큰 부삭이니까. 주례서 오면 가까운 쪽이학성이고, 저 언궁 쪽에 가까운 부삭이 장문안이라. 그중간에 또 논이 있어가고 좀 강나지가 있었거든 두개막은이, 그래 그 앞 극자를 따서 학장이 됐다. 장문, 그래장문서가 장문안이나, 우리가 부르기 장문안, 장문안 이랬다.

### 웃깍단, 아래깍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학장천은 경계로 해서 학장천 떹에 논 쪽은 아내깍단이고 산 쪽은 웃깍단이나, 위아내, 그러니 개욱은 기준으로 해서 학장천 그걱 기준으로 위에 산 쪽에는 웃깍단, '덭에는 아내깍단, 학성니가 지급 주계서 오면 세원사거니 있잖아, 학장사거니, 학장천이 길이 돼뻐졌거든, 장문니는 거기서 좀 더 오면 있어.

#### 새받은 예전부터 살기가 좀 힘든 지역이었다고 하던데요?

아 새밭 그쪽이 논농사 안 지었어, 밭농사안 지어도 친등잖아, 산 덭이니까, 논농사흥 지으면 좀 나응 텐데 산 덭이나 밭농사안 지으니까 그래서 친든 동네였지, 그 뒤에도 그 이상하게 빈면혼이 돼버겼다고, 80년대 90년 대 그때는 방 한 칸, 부엌 하나, 이래 지어가지고 빈면 혼이 돼버졌다.

# 새마을 운동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너 동네는 새따운 운동을 크게 하진 않았는데 지붕 개냥 같은 거 좀 했지, 승례트로, 우너 집도 승례트로 바 겠으니까, 초가에서 승례트로, 뭉친 도로공사도 좀 하긴 했지, 길 닦고 하는 거, 예전에는 흙길이지, 그 지급 감

전역에서 학장초등학교 앞에 김 있잖아, 차 다니는 김, 그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생긴 거, 그 전에 없었거든, 초 등학교 4, 5학년 때 생겼다, 그 전에 논길로 다녔다.

# 그럼 버스는 언제 마을로 들어왔나요?

그때가, 내 고등학교 졸업학 때쯵 경 번이었냐면, 108번, 68번은 그때 없었고, 108번이 그 업궁까지 갔거든, 면삭동에서, 그게 우니 고등학교 졸업학 때쯤에 생 갔는가 그거 생기고 조금 나았는데 벽 그거 없어 뭐 걷어 댕기는 기 그때 몫에 뺐으니까, 조금 나았지, 어떻게 보면,

#### 구덕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터널 뚫은 때는 변학 온다고 느꼈지, 시내가 바로 뚫어니까, 시내 쪽 대신동 쪽하고 바로 뚫어니까, 그때 공단등, 공단 땐에 그랬거든, 공단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때 뚫었는데 그 뚫으면 억수 좋아진다 생각은 했지, 그 주위에 논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그바쑶에 떤속혼도 생기고 했잖아, 그전에는 그 공짜기 누가 갈 수가 없잖아, 땅값도 많이 꼭았지, 내 중학교 1학년 땐가 사상 토지 구입 정어사업 그 공시를 했다고, 사상공단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200원 하던 게 천원으로 오르더라고, 그때 논밭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부자 됐지,

## 터널이 생기고 난 뒤, 아쉬운 젊은 없으셨나요?

터널 생기고 당연히 안 좋은 전도 있었지, 구덕 공짜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터널 뚫는 바'값에 옛날 구덕 공짜기 문 내려오던 그게 많이 딱혔거든, 익부만 위로 덮여 버리고 하다 보니깐 뒤쪽 개욱이 조금씩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옛날 맛이 안 나지, 거기에 예전에는 참새며 라고 있었거든, 붉은디 거기에 있었어, 그 아파트 등어서가 이제 하수구 묵이 글로 가다보니 그너됐겠지, 그래 뭐 그거는 느끼지, 근데 우니는 잘 모르잖아, 그 동네 안사니까, 근데 그 동네 사업등은 인자 편너한 것 느끼지,

#### 터널이 개통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년대에 터널 생기면서 항 번 변화를 겪고 그다은 90년대 초부터 해서 아파트등이 쭈욱 등어섰제, 근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공단 위에 산에 아파트 등어서나?' 앤냐하면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거든, 공단이니까 나는 공기 안 좋아서 이사를 갔잖아, 근데 공단이아직 있는데 아파트가 등어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 생기니까 의아했다고, 근데 산을 깎아서 세운 거야, 근데 거기가 또 음당이야, 북쪽을 보잖아, 남향이 아니잖아, 뒤가 남향이고 앞으로 보면 낙동강을 보면 북향이니까 좋은 입지가 아니야, 북쪽으로 보고 있다니깐, 그

러니까 거기는 아파트 짓기 좋은 데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공단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되나 했더니 많은 분양이 다 되더라고, 그 공단이 가깒고 싸고 하니까 땅 이 설렸지, 이 땅 자체가 싸잖아, 근데 아파트 사는 사ά 은 거의 다 원부에서 분양받아 등어왔어, 학장 사업등은 그냥 자기 집에 그냥 뭐 옛날 집에 그대로 살고,



#### 아파트 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거되 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원주먼보다는 등어온 사상등이 인자 더 트인 사상등 도 등어오는 경우도 있고 딱하자면 조금 뭐야 확동하는 사업등 있잖아, 옛날에 저 학장에 고만 해도 뭐 학장천 응 살니자는 그 여자 있어, 자연보호 그런 거, 그런데 그 사업이 원내 학장 사업이 아이나, 다른 데서 왔는데도 역신히 확동하더라고, 학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업은 원주먼등도 인정도 하지, 앤냐면 학장 사업등은 그만큼 못 했거든, 근데 그런 사업 보니까 내가 보기 고맙더라고, 내가 밖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사업하고 지금 학장





# 그럼, 현재는 그런 인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급 조급 그내 느끼지, 저 강목순이 하듯이 그내 서 로서로 협조해가 하는 거거든, 그 본토다 하지만은 본토 사삼만 해서는 된 일이 아니잖아, 그 아파트 주먼등 협조 등 받아야 하거든,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좀 뒤에 되다 보니까 토박이 사람들이 못 상게 돼버졌거든, 아파트가 되고, 토박이 사람들은 주택에 상고, 주택에 자기 집세 몇 개 방 몇 칸 해가 세놓고 이랬는데 거기가 승럽한 됐잖아, 그래 못 상게 됐다니까, 옛날엔 집세 받아 상았는데, 방 한 칸에 2, 3만 원씩 받아 상았는데 그게 쪽방

이 전부 안 나가버니니까 완전히 승럽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못 살게 됐지, 아파트 있는 사람은 좀 형편이 좋고, 그래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등끼 너 많이 하잖아, 자치 운영하도 있고 청년하도 있고 자기등끼니 딱 조기하도 하고 동 단위로 잘 모인다 아이가, 아파트 단지 단위로, 그런 기 인자 그런 데서 학장동 사람들이 먹겼지, 근데 요즘 완서 학장동 사람들이 입지 이 좀 살아나고 있다니까,

## 학장동 마을 주민 간에 모임이 있나요?

본신히 안등고 학장동 본신회, 본신회가 원내 없었는데 만든 지가 한 십몇 년 정도 됐어, 이름에서 알다시피본신회는 학장동 토박이 모인이거든, 그러니까 학장동이고향인 사업이나 나도 그 나가는데 학장동에 40년 이상 상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모였다고, 그러니 서로가 인정하이 조금 그기 됐어, 본토에 사업등이, 본동에 사업등 입지이 벽로 없다가 인자 조금 입지이 세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이지, 땅하자면 서로 조합가 된다는 거지,

##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책 방문판대를 했는데 그 익은 입당이 좀 좋 아야 하거든 인, 항 3일 가다가 안 되겠다면서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때리치우고 노가다른 뛰가지고 그래 전포층 얻어 가지고 자식등 학교 다 보내고 이제 애등 아파트 한 채씩 해주지, 역치 10원짜리부터 강사했거든,



##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이 고생 많이 했어, 우리 맨 처음 여기 차가 없자나, 이 장사학 때 차도 없어가지고 저 자전거 우리 아저씨가 자전거, 우니 마당에 있을 거인 진자전거 그것도 진 싣는 자전거 있잖 아, 저걱 살려고 여기서 부전시장까지 억수한 먹거든 부전 시장에서 사가지고 있어, 자전거를 가지고 똑나 하니까 뭐 어 떻게 사상이 끌고 왕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하다가 전에 내 가 언궁 새벽시장도 없었고 부전으로 가서 해앗잖아요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166

#### 가게 운영하시면서 본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여기는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도 많 고 오뎅 사서 가가지고 방 알아먹고 그렇게 살았지. 옛 날에 이 부식 가게 항 때는 한 <u>당</u> 원급은 타야만 돈이 있거든, 한 당 월급 받아가 그때는 옛날에 방세가 삼천 원이었어요 삼천 원, 요런 방 셋방, 방 하나 부엌 하나 인렇게 삼천 원 오천 원 하다가 안 원 주다가 인제 고내 옥사가 지급 십만 원 인자 십이만 원까지 받는구나, 경 기가 지급 계속 안 되니까 이만 원 깎아서 십만 원 주고 있어요, 당세가 오십만 원에 십만 원씩 주고 있고 있어. 거의 신발공장 다녔는데 월급 얼마 못 받았어요. 7만 원 도 받아오고 이랬거든, 그래 받아가 방세 삼천 원 주고 애들, 옛날에 애들 학교 가면 도시삭 싸웠거든, 요즘은 급식이지만 그땐 도시삭 싸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모자 **각니까 익상으로 먹잖아요. 익상 대먹고 강부를 요만하** 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하나 가져옥나면 장부 등고 악인, 등고 같이 이내 배주고 그내 하다가 ਇ주는 쪼데 쪼메 자꾸자꾸 생성이 나아지더라고.

## 70년대에도 가게가 영순상회 밖에 없었어요?

많았어요, 한번 보자, 여기 위에 한 집 있었는데 거도 문 닫았고 또 옆에도 한 집 있었거든요, 아 여기 함때는 역마 안 됐다. 여기 덭에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다 그런두고 우너는 집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어쩍 수 없이 지급 다 이러지 집에 놓면 뭐하는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구멍가게가 많았어요,

# 가게들끼리 경쟁은 없으셨어요?

경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오는 손년 있어요, 자기 집 오는 손년 있고 저 가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경쟁학 것도 인자 저 마트 같은 그런 데 서로 경쟁한다고 서로 치고 또 그런 것도 있더나고, 근데우너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손년 있으니까 손년한테로 인상 딱 대주니까 얼마 받는 그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냥.

## 사상공단이 잘 돌아갈 때는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때는 링장했어, 새벽 4시에 익났거든요, 2시에 자고 4시에 익어났는데 앤 그러하냐면 하숙을 많이 쳤어요, 하숙을 많이 쳐가지고 하숙 아준마들이 4시쯤 익나가지고 않을 해줘야 하니까 그때는 4시가 되면 문을 역어야해, 역면 갑자도 한다나이 시내기도 한다나이 삶아놓은 거 근방 다 나가고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방찬 시간 되면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빡빡해, 그래 그 빨리 안 준다고 가는 사람은 가고 그때는 진짜, 보자 전두환, 그분할 때 그때 장사 진짜 잘 됐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때모두 장사해서 돈 다 벙었을 거예요, 숙 같은 그런 것도 이틀에 한 번씩 차로 들어오잖아요, 그 뒤로부터 조근

조금씩 자꾸자꾸 친체돼 버니더나고, 그때는 여기에 신 방공장이 않았잖아요, 여기 세원도 문 닫았고 국제상사도 문 닫았고 거의 다 닫았어요, 그때 진짜 부산에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잔업도 하고 현창 먼저쓰고 진짜 좋았어요, 란당차가 토, 익요익 되면 놓러가고 이내 샀는데 요즘 란당차 익적 그런 거 없어요, 자기묵고삼기도 빡빡하니까, 그내 지급 공장이 지급 여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제 안 받고 그러니까 한때는 외국 사람들이 여기 버극버극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다 떠나버려서 지급은 몇이 없어요,

# 현금장사니까 외상하고 돈을 떼인 적도 많으시겠어요?

그때, 방에 야간도주 하는 사상도 억수로 많았어요, 그 떼먹은 거 생각하면 집 한 채 사도 샀을 텐데, 우식 바로 앞에서 있어도 방에 가버리니 아침에 가보면 없고 그랬어, 맨널 월급을 탔는데도 다음 달에 좋게 좋게 그러다가 누척누척 되가지고 야간도주하고 그래, 또 한 사 없은 한 당 때 묵고 한 당 땅에 갚는 사상 있는데 그거 안 그런 사상은 또 두 당한 되어도 두 당 부족하면 장보면서 싹 끊으면 괜찮은데 그걱 또 간고는 떡어놓고 또 먹으면 붕어나고 붕어나는 거나, 그래가지고 그래 상 았는데 요즘은 원상으로 먹는 사상은 없어요, 그만큼 사 히가 좋아졌다는 거겠지,

자꾸 다음 주 준다고 하고 다음 주 준다고 하고 자꾸 자꾸 미취놓는 거야, 그래 나중에 가보면 도망 가뻐리고 없다니까, 익상 해놓은 거 받기 위해서 또 좀 주다 보니 까 자꾸자꾸 쑥나가더라고, 쑥나가이 나중에 이래 안 되 겠다 싶어가지고 역상 없애자 해가지고 중간에 그래가 지고 좀 착 주는 사업은 주고 안 주는 사업은 안 줬어 요, 역상 주고 역상값이 먹니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저기로 뻥 둥러 가뻐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보면 없고 없고,

## 예전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았어요?

옛날에 10원짜니 강사, 옛날에는 우니가 10원씩 했어 인, 10원 가져오면 인안한 학로 피워놓고 쪽자나고 하는 게 있어. 연탄북 하나 펴놓고 국자 있잖아 그거 놔두고 석탕 맨 처음 넣고 한소끈 끓으면 소다 넣고 저으면 동 그나이 되거든, 탁 计가지고 꽃모양 벽모양 같은 것 찍 고 그렇게 먹으면 바삭바삭 지급도 그래 먹으면 맛있어 인, 그래가 마이 먹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이래 앉아가지 고 그래 앞에 가서 그래 묵고 그랬다. 그때는 애등 사탕 있잖아요. 동사탕 눈까사탕 10원 가져오면 눈까사탕 요 런 거 3약주고 이내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즋 그 렇게 안 먹어, 애들이 안 먹어요. 옛날에 애들 억룩덕룩 사탕, 색소 등은 그런 걱 팔았거든 인, 탁주도 인즋은 병 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주전자 등고 왔어요, 반 되만 주 세인, 한 되면 주세인 그랬거든인, 그래서 독응 갖다 놓 고 한 땅씩 먼저 가져왔인. 우리 애가 그때 세 샹 네 샹 먹었은 때인가? 아가 비틀비틀하며 오는데 목이 많아서 퍼덕었던 모양이나, 아가 자꾸자꾸 비틀비틀 자꾸 자빠 져 버니고 넋어지는 모습 보니까 억국이 뻑개가지고 그 런 익도 있고, 옛날에는 모두 숙응 많이 드셨어요. 요즘 은 자기가 자기 않아서 자중하지마는 옛날에는 초빼이

등이 않았어, 또 지급은 여기 뚝에 아스팡트 깯고 나무 도 많이 십어놓으니 모두 운동을 많이 해요, 아친 익찍 익어나면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아파트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 내려와서 저기 업궁삼거니까지 그 있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등이 자기 몫 많이 지켜요, 옛날에 그런 게 익적 없었거든, 그내가지고 오래 못 살았어요, 모두 오래 못 살고 익찍 가뻐니고, 옛날 분들은 이사를 다 가서 얼마 없어요,



#### 예전에는 거의 연탄을 썼을 것 같은데, 연탄도 팔았나요?

그때는 우니가 원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 당 월급 타가지고 계속 연탄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다 연탄을 피 윘잖아요, 연탄 때고 좀 저기하면 곤로도 좀 때고 그랬 는데 연탄도 저기 니어카 다니는 길이 좁아놓으니 자전 거로 해가지고 50강씩 가져오면 30강, 20강씩 사서 썼 어요, 우니는 연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 우니 집 마다 연탄을 어디 넣어놓느냐 하면 덭에 신방 뻐니는데 레버 동시가지고 20% 넣는 집 있고 30% 넣는 집 있고 그래가 하루 아껴 땍나고 부엌문은 안 역어놓고 그래 아랫목만 따뜻하게 하거든, 아랫목은 새까렇다, 애등 아 랫목에 재운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습보익러 나안서 기습보익러 쓰다가 기습 값이 전에 쌌어 기습을 많이 땠는데 요즘 기습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전기장판 있잖아 요, 전기장판 이거 쓰니까 한 당 내도혹 써도 역마 안 나안요, 그래 지급 기습 쓰는 건 역마 없어예, 근데 세수 하고 머니할 때는 약간 특고 급방 끄지, 고래 인자 기습 보익러 한 통이면 17만 원 하거든, 한 번 넣어놓으면 한 2년 그 정도 써요,

연탄 가격이 그때는 몇 십원 했는데 몇 십원 하다가 몇 백 원 옥샀는가, 지급은 800원 하거든, 우니 여기는 가격이 다 당나요, 그래서 조급 뭐 하면 100원 차이 나더라고, 지급은 800원 줬는데 전에 연탄 한 장에 억마였는가 기억이 작 안 난다, 연탄을 안 때고 우니는 뭐연탄 쓸 익 있으면 연탄을 피우고 뭐 오뎅 같은 거 겨욱이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장씩 넣어가지고 연탄해가지고 오뎅 빨찮아요, 숙안주로, 그러면 사람들 그서먹는데 지급도 해요,

## 그때 가게에서 주로 어떤 물품이 잘 팔렸어요?

지치도 당가서 팔고 생선 저기 밖에 하드통에 이빠이 넣어 놔놓고 팔았잔, 사ά들이 제익 많이 사 먹는 건 콩나물, 시내기, 고등어, 옛날에 고등어 5마니를 얼마에 팔았노, 2천 원에 팔았나 억수 쌌지, 요즘 고등어 한 마니작년에 7천 원까지 했거든요, 사 먹응내도 힘이 들었다

니까, 그때는 생선도 쌌고 그랬지,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쪽자도하고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했지, 옛날에는 쪽자하고 연탄북에 꾸우면 부푸는 쫀드기 그거하고 쭉쭉 째 묵는 거도 있었고 阳동이, 아폭로, 논두려, 나나콘 이런 것도 있었어, 물건은 서면 가기도 하고 자각치에 도떼기시장이나고 그런 게 북냥식품 같은 건 거기 밖에 안 팔아,

뽑기 같은 경우도 돈 10원 넣고 나면 인자 익, 이, 삼, 사, 따면 풍선 큰 거, 이런 거, 풍선, 색동 종이 있고 큰 거 있고 그다음 잔잔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뽑아가지고 당抗되면 풍선 큰 거 되고 안 그런 쪼맨한 풍선 되고 그런 것도 했어.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 그럼 물건들은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쌀 같은 경우에는 쌍집에서 차로 갖다 줘, 부식은 시장가서 가져오지,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감전동에 시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야채는 새벽시장에서 해오고 서면시장에서 해오고 생선은 자각치 갔다 아입니까, 시장 방서 여럿이 어울려 가지고 2천 원씩 주면 세원로터 내에 내려주거든, 그러면 우니 아저씨가 자전거로 가서실고 오고, 생선은 자각치 가요, 자각치 가가지고 한 상자씩 사면서 세원로터니에 내려주면 또 우니 아저씨가가서 실고 오고, 먹니는 못 가잖아요, 자각치 시장에서는 돈 모아서 식어주는 트럭이 따로 있었어, 1인당에 집이 많은 사상 3천 원 받고, 명태 한 상자 빨간 고기 한상자 고등어 한 상자 오징어 한 상자 이내 가지고 오거든, 그내 가면은 많이 실는 사상은 3천 원도 주고 우네

적게 시키면 2천 원도 주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근빵가까운데 내려주거든, 우리 그전에는 차등이 공목에 아스팡트가 없었어요, 그래놓으니까 저 세원로터니, 구덕터널 가는데 거기에 다 내려주면 인자 우리 자전거 가가지고 싣고 오고, 그 차가 자각치서 여기 내려주고 또모나 방면 북구 쪽으로 가는 차거든, 기사등 요즘도 간혹 가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같이 고기 생선 뗐던 사람이, 그래 많이 못 떨면 한 상자를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나뉘가지고 고기를 몇 따라 몇 따라 나뉘가지고 돈을 똑같이 나는 해가지고 그래했어요,

# 그런 직접 차로 물건을 가져오셨을 적은 어땠나요?

전차는 지급도 우너 따당에 있거든, 그 트럭은 이용하다가 운전은 배웠어, 배워서 운전 그 몇 번 해가지고 함격해서 중고차를 차서 뚝 방에 세워놓고 그격 연수를 해야 하는데 연수를 못 해서 한 익주익 동안 처박아놓고 있었어, 있다가 누가 좀 연수를 해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연수 좀 해서 처음에 연습으로 친정을 간다고 갔는데, 친정이 합천이거든, 합천서 시집을 안서 여기 산다가 합천에서 또 오빠가 경찰을 해가지고 글로 증원해서 그 상다가 그내가 합천 친정으로 첫 나들이를 하려갔다, 안 긴장돼, 우니 아저씨가 땀은 팥죽같이 흩니더나고, 손수건 땀을 닦아가면서 운전해 갔는데 자전거 타다가 차를 사니 좋잖아, 그내가서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저 이니저니로 문 닫아놓고 퍼뜩 갔다가 반찬 시간되면 빨리 오고 그내 이니저니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땐 처음 자전거 타고 낙동강 가가지고 게 쪼만한 게,

그건 %다가 보니까 이래 있는데 요서 게 %고 묵이 흐른 는데 %다보니까 묵이 다 차뻐졌는 기나, 마친 배가 다 떡어져 배가 한 대 있어서 그걱 닫고 마친 왔다니까, 없 었으면 우리 지근도 어찌 된지 목사, 지근도 그 생각에,

# 낙동강 쪽으로 가셔서 눌거나 한 기억은 없나요?

낙동강 물이 빠졌다가 등았다가 하더라고, 그래서 게가 많다고 해서 게흥 な아가지고 집에 완서 삶아 먹었거든요, 낙동강 가니까 구멍이 뽕뽕 뚫던 데는 게, 그기 나오는 기 라, 그래가지고 않으면 게가 손응 집고 그러더라고, 그격 가득 な아가지고 않아 왔어, 장아가지고 오니까 맛이 있더라고, 강가라는 게 우리는 강전 쪽 많고 샤니케이크 쪽에서 조금 위에 똥라가서 둑 넋어가면 뭏이 전에 빠지더라고, 그래 많이 장아 묵고, 그때 재첩도 따이 장아먹고 했어, 그 낙동강 구포 강변, 삼각 이래 가는 데 그 덭에 보면 우리 목욕도 따이 하러 갔어요, 10시에 가서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많도 해 먹고 그 다니 덭에 가서 빵 해묵고 수박도 짜개 먹고 자다 오고 그랬는데 차가 다니니까 잠도 장안 오더라고, 지금은 그 다니 쪽으로 공원이 있잖아,

# 여기에도 개첩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우니는 저 언궁 거기서 재첩을 많이 해서 묵동 머니에 이고 악서 재첩 사나고 했어, 근데 여기로 오는 사업이 몇 없었는데 모두 다 맛은 있더나고, 근데 요즘 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쌉쌀(씁쓱)하이 그렇더나고, 여기서 な아 온 거는 참 맛있어요, 우리가 な아 오는 거는 맛있었는데 판매는 안 하고 사 먹기만 했죠, 사 먹고 우리도 낙동강에 가서 좀 많이 な아 왔지, 그 な으면 진짜 물에 폭 삶으면서 맛있는데 요즘은 재첩이 없지.

#### 공단 때문에 하숙집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때 기억은 나는지요?

하숙, 총각등이 방 얻은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숙은 하는 거지, 한 방에 몇 명씩 치는 거야, 대여섯 명처, 그나고 한 당에 월급 타면 주고, 그래 하숙하는 아지때등 많아요, 하숙비 먹려가지고, 주인한테 방세흥 주고방을 얻어 가지고 하숙친다, 그래 방에 하숙하는 사상이많이 있으면 이익이 더 많지, 그러니까 집주인은 따로있고 하숙치는 사상은 따로 있는 거지, 집주인이 있고,방을 빛나는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은 이 하숙을 치는 사상들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고 돈을 인당 돈을 받아서자기 이익을 하고 방세안 주고 그런 거지,

여기는 집주인 하숙을 치는 사성은 장 없어요, 집주인 하는 사성 딱 한 사성 있었다. 새벽에 4시에 익어나야하 고 한꺼번에 내려왔서 많은 먹으면 되는데 찍끈찍끈 완 서 방 먹으니까 웬만한 사업은 못 해요.

 까 바글바글했다. 지급 인자 아무것도 없지, 회사 끝마 치고 나면 영국 아 등은 요래 좀 다녀, 빈집이 지급 억 수로 많아, 요 우로 다 빈집이야 빈집,

#### 공단지역이라 경상도 사람 말고도 다른 지역 사람이 많았겠어요?

옛날에는 전나도 경상도하고 좀 그런 기 있었잖아요, 사이 있어요, 그런 기 있었어요, 숙 한 찬 묵고 경상도 사업이 전나도 사업 뭐뭐 전나도 사업이 단체신이 굉장 히 강하거든요, 향우히가 있거든, 그래 또 선거하잖아요, 선거, 그것도 각자 부부나도 당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딱 있더나, 선거항 때 되면 딱 푼가 나더나니까, 그래 그 런 기 않았어요,

#### 구턱터널 공사를 할 때 불편하거나 시끄러워서 힘들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큰 북편은 없었어요, 집은 옛날 집은 있었고, 터널이 83년도에 개통되고 것이 확장되니까 여기가 이 마음이 형성됐죠. 건물이 생기고 기도원도 들어오고 병 원도 등어오고 그러된 겁니다. 그때 터넉은 뚫은 때 지 근은 방파기숙이 좋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터트려도 진동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진동이 크다 보니까 저기서 터트니면 여기까지 독이 텅텅 튀어뽃 정도로 그랬지, 여 기에 옛상에 저쪽 계곡하고 이쪽 계곡이 몫이 없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장어도 참고 턱게도 참고 했는데 그 방파가 옛날 방식이다 보니 한번 터트니면 이 익대가, 진동이 딱 소니도 펑펑했다고, 그러면 이 지하 수맥이 흔들 니가 물이 다 빠지뿐다. 그래서 물이 다 빠짓어요, 안 그러면 이 계곡에 묵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동은 언 청나지 이 빨파 한다 하면 인 역대 사상 숛으라고 그랬 어인, 사이겐 웃니고 딱 그내가 터트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항 때는 그런 게 힘들었죠.

## 구덕터널이 생기고 마을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구덕터넣이 83년도에 개통했는데 계기는 여기에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178

70년도 그 당시에 사상공단이, 공단이 유익하게 부산에서 사상공단이 생기면서 산업하가 링장히 발전되던 시기야, 그 당시에 그때 사상공단이 활성하되면서 묵휴가북하이나 남창, 신선부두가 그렇게 있었지마는 그 묵휴층 통하기 위해서는 서면 아니면 저쪽 러정 쪽으로 동아가야 되거든, 그래 터널만 개통되면 한 10분 그렇게밖에 안 된다 아입니까, 사상공단에서, 산업하가 발전되면 묵류 그거층 전부 운송을 빨리해야 될 거 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그 당시 빨리 뚫리게 됐어요, 사상공단이 전부 신발 산업, 옛날 국제상사 아시죠? 양정모 한장네, 그 국제상사 같으면 신발의 대부 아입니까 국제상사가, 그 업체의 하청업체가 우리 사상공단에서 전부그런 업쳅니다, 신발이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상공단에서 생산 다 해서 수축도하고 그랬어요.

# 공단이 잘 되서 이곳에 음식점이 많이 생겼나 봐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공단이 확성하하면 그래도 이 바이어가 왔을 때 접대를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 제공을 하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이 여기에는 접대를 하려면 전부 서면, 광복동 이건 곳에 가야되니까 그러면 둘러가고 이렇다 보니까 터널 나도 지나가면 시간상으로 많이 걱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지역에 음식점을 하나 구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초로그 당시에 85년도에 여기에 구덕산장이나는 간판을 가지고 음식점을 차려게 됐어요. 여기 건물이 85년도에 지

정자도 몇 동 지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링장히 많이 왔어요, 85년도에, 이 지역은 나 는대로 여기 익대가 저희 소유입니다. 윗대 항아버지 때부터 이 땅 소유다 보니까 아 이거를 혼자 하는 거보다는 여러 사업이 공동체로 이 집단촌으로 해서 음식전을 경영하면은 선전도 되고 그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개인 분양을 다 했어요. 그거를 200평 250평 300평 분양해가 팔다 보니까 이 사업등도 입주자등조차 언뜻 보고 여기는 음식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집단촌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단이 확성한 되면서 음식전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이런 동네가 형성된 겁니다.

#### 외곽에 위치한 구덕마을이 다른 학장동 마을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그 위상까 지역적으로 조근 떡어져 있다 보니까 윗마음은 나는대로 거너감도 있고 위에 마음은 재를 빠로 넓으니까 우리는 저 마음 밑에는 크게 복 거가 없으니까네, 위에는 재를 넓어가면 옛날 자각치 시장하고 옛날 대신동 가면 전척 종전이 있었거든, 그 운동상 앞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학교 아니면 저 위쪽으로 많이 넓어 다녔죠, 뻔한가가 많지, 그래서 신문문 같은 격 빨리 접할 수 있었지,

우니가 어넥 때나도 어머니은 따나 댕겼는데 그 운동

장 앞에 전차 종전이 있다 보니까 전차층 타고 자각치시장까지 타고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먹거니가 먾거든, 시장가면은 어머니가 수박은 하나 사주, 사주면 그서 인자 장나가지고 떠서 싱컷 먹고 전차 타고 오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 멑으로 가반야 크게 볼까 없다 보니까, 재층 없어가야 시장도 있고 문학나 그런 것은 접하는게 있으니까, 영학도 전부 남포동으로 나가서 빴지, 옛날 남포동 무슨 극장이고, 아주 오래된 극장인데 지급은 없어요, 지급 자각치 시장 앞에 옛날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 글로 그거 영학도 보고 그랬어,

구덕산 쪽에 지세가 좋으니까 않자도 많고 굿도 많이하고 그랬어요, 두등기고 흔등고 했는데 우니가 어녁 적에만 하더라도 집안에 뭐 쪼깨 아프다 하면은 부모등이 굿을 한다고, 그 우리 집에서도 그때 어머니, 할머니 하고 집안에 뭐 안 좋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약을 처방하는 기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굿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神) 찾아샀고 물러가라 해샀고 칼 던지셨고 그걱 경험했죠.



#### 마을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설립 당시 반대는 없었나요?

기도원이 맨 처읎이야, 여기 지역에 터넉 개통되고 기 도원이 맨 먼저 등어았어요,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가 하면 요즘 기독교서도 교가 다 다르겠지만 밥 되면 '아버지'하고 딱 고찮지르고 우는 처음에 따음에 그 전 교회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밖에 따라 욱고북고 하믄서 그런 소니가 들니고 방안 되면 고향을 지르는 기사, 그래가지고 여기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요 떹에 지근 삼성조은병원 있진? 그 교회가 먼저 등어왔 어, 그때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적이 있었 어인,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적이 아주 아당한 적이 있었 는데 나도 어식 적에 그 적을 밨는데 정확한 적 명칭은 작 모르겠어요. 적이 하나 고 자식에 있었어. 그래가지 고 적응 있다가 그 교회 재단에서 저 땅은 사가지고 등 어앴어, 들어온다 보니까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나자 이 제 집단으로 교회 따라서 오니까 사상이 형성되고 교회 가 조근 커지고 하더나고, 그니고서 그 장克님이 대낮의 원이라고 만들었어.

## 그럼 정신병원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내 집단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가 장한없이 나타나서 이 지역에 있는 저 산은 매입해서 여기에 그 정신 & 양병원은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서는 그 당시안 하더나도 정신병원이 등어온다고 하면은 협오시설해서 학장동에서 면원이 방생이 됐죠. 면원이 방생하다보니까 못 짓게 하겠지. 그래서 그 자제분이 큰아들이 옛날 그 사상에 국제상사 양집? 양정모 회장년 신발공장. 그 앞에 비뇨기라 의원을 하셨어요. 장克년 아들이 국제상사 앞에서 의원을 했어. 그래하다 보니 아버님이 여기에 정신병원을 하나 짓자고 하니 큰 자제분이 의사니까 여기 병원을 짓게 됐어요. 유지니까 우니아버님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아버님께 떤저 찾아완서 이거를 좀 짓게 되어서 지역에 좀 돈을 해주셔야. 그래 어째어째 해서 아버지한테 힘을 빌려가 병원을 하나 짓는 게 통라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나도 여기는 인자 사상구가 아니고 북구야. 북구에 아버님이 그대의원이다 보니까 여기 허가를 해줘서 정신병원을 짓게 되었어요. 대남병원 청초 명칭이 대남병원이나.

그래서 저게 병원이 석십이 돼서 확장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되다 보니까 위에 시십병원 있죠? 시십병원 도 이제 부산시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시십병원도 짓게 되고 또 저 위에 노인건강센터 있죠? 그 옆에 지급은 김정병원인데 그 당시에는 구덕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명칭이 바뀐 거지, 장로 나아버니이 옛날에, 그 교통부에 대남의원을 하셨어, 교통부에, 대남의원이라는 고 조그만 의원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터를 짧게 됐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인근에 공동묘지도 있는 결혼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공동묘지 있지 위에도 있고, 요즘은 공동묘지

흥 안 쓰는데 아주 옛날에 어닌 애등이나 어른등 동아가시면 어린 애등 또 따로 애기장이 여기 있어, 그리고 어른들은 동아가시면 저 공동묘지로 가고, 우려도 그 당시에 할아버지 동아가식 때 우려 선산, 저쪽에 선산 있어요, 상여를 다 메고 장례 이 상여를 메고 가지, 서구사상구 이 일대 마을 사람들이 저쪽에 다 모셨고 그 역에는 이쪽에,

## 부산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흥하목재에서 익했어, 거기가 나무 껍데기 뻣기는 공 장이야, 나무흥 네모빤듯하고 긱게 익곱 자, 아홉 자호 제단은 해, 그 나무에 무늬가 있는 격 구역은 나뉘서 이 종이처럼 싹싹 뻣겨내면 넓이가 억마고 긱이가 억마고 몇 장이면 한 평이나는 게 나오거든, 그걱 내가 세어가 지고 묶어 놓으면 또 파는 사람이 따호 있어, 나무는 역 국에서 수입해 안서 나무무늬 껍데기를 뻣기면, 그걱호 농 같은 데에 빠르거든, 농에 무늬목 종이 같은 거 빠르 는 게 그거 뻣기는 격 했다.

# 선생님은 공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나무가 큰 거 있으면 그거 저기 캐가지고 테이블로 넙겨주면 우니는 받아서 작게 써는데 두껍게 도 하고 얇게도 하고 그렇게 해, 톱빵도 많이 나오지만, 목재소는 버릭 게 없어, 톱빵도 마대 넣어서 한 마대 역 마하면 가지고 가는 사람 있거든,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건 안 한다고, 먼지 많은 거 않았으면 거기 안 다녔지만 목재소 댕기는 사람은 그런 거흥 상란 안 했어, 햇빛이 짝 나는데 보면 뭐 억수로 먼지가 많지만 그래도 그거 먹어도 내가 생각하기는 벽 몫에 지장은 없지 싶었어, 그게 좋을 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상나면 그 정도는

#### 목개 공장에 여성분이 일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아준마등도 있었지, 이제 우리가 해주면 여자등은 묶고 묶어놓으면 지게차로 떠가지고 옮기고 그런 익을 했지, 그때 아준마등도 보다 보면 7명 정도는 같이 있었다 7명 정도, 그 사상등은 다 가까운 데 있는 거지, 면데 있으면 축퇴근이 북편하잖아.

#### 공장에서 일할 때 쉬거나 밥은 어떻게 드셨나요?

#### 목재소 다닐 때 돈은 얼마정도 받으셨나요?

그 적에? 그 적에 보면 130만 원 150만 원 이내 받았다. 그때에는 큰돈이지, 그때 돈은 13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나욱 때쯤에는 더 많이 받았지, 내가 다치고 난 뒤로는 뭐 퇴직급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받기는 내가 많이 받았어.

## 그 때 살았던 집은 어떤 구조였나요?

강전동에 정터가 있는데 거기에 셋방 사는 사상이 많았어, 그쪽에 한 역 집 산았는가? 한 집이 입 구(口) 자호 됐는데 거기에 역 집이 산았어, 역 집이 칸, 칸, 나뉘서 등어가는 입구는 한 군데였어, 그렇게 셋방 사는 사상이 역 집이나 됐어, 빵은 빵통 사서 해 먹었지, 집은 다 단칸방이지, 거기는 다 공장 취직했으니까 공장에 댕기는 사상이 빵 쪼만한 거 한 개하고 또 부엌 한 개에연단 때고 그랬지,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cdots 187$ 

### 당시 집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월세가 아이고 1년에 얼마 주면은 10당 있으면 그냥 나완 버려야 해, 쉽게 땅하면 1년에 30만 원이나고 하 면은 30만 원 주고 그 집에 이사를 가거든, 가서 10당 있으면 그냥 나완 버려야 해, 12당이 아이고 10당이야, 집주인이 12당을 안 해주거든, 10당로 해가지고 세 등 어오는 사상은 등룬다.

### 그럼 감전에서 학장으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

#### 그런 처음에 이 아파트 오셨을 때강 풍경이 많이 바뀌었겠네요?

아파트는 똑같은데 다른 건 여기 헡에 지급 삼정그선 코아라는 데가 있어, 그전에는 거기가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자니에 저 삼정그건코를 지었거든, 그 공장이 나삭 찧는 뭐 그런 공장이 있었다고, 정미소는 아니고 이제 곡식 같은 거 사로 이런 거 가져 안서 빻아서 사로 딴드는 급성사로였다, 그걱 하다가 이 사업들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 공장은 저 어디로 이사를 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주면등 들어오고 하면 주변에 지급 아파트등이 거의 없었어, 이 아파트가 거의처음에 생겼고 큰 아파트 해박야 동양이 저기 있고 그때쯤 우니가 들어온 택이거든, 이 삼정아파트도 늦게 지었고, 저거 내며안 저것도 늦게 지었고, 그 뭐고 각가에 있는 거 그거는 우니하고 비슷하게 지었거든, 반도보다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지었을 거야,



#### 그럼 마을 주민들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는 다른 사상등하고는 벽로 안 친하고 우니 계원이 있거든, 계원이 있으니까 인제 계하면 거기 가서 그 사상 만나고 또 이 사상 만나고 하다 보면 이쪽도 다 알게 되는 거지, 이흕이 동신한야, 그 계층 모아가지고 하다가 알게 되는 동네 사상등이지, 여기 아파트 사상등, 그래 한 사상 알아 놓으면 또 우니 마음에 어떤 사상 좋은 사상 있는데 계원으로 넣으면 안 좋겠나? 이러면 그래좋다 한 번 데려 안박나, 그래가지고 계원이 되는 거지, 그래 모여서 관광도 댕기고 했어,

#### 동심회나 다른 모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부탁 드립니다.

위 농러 가는 거지, 우너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 모인은 한 당에 한 번, 우너 첫째 토요익이나, 지급 하는 건 친우리인데 동신하는 이제 많이 안 덫아서 나딱버렸다고, 그래 우리 8명하는 거는 진우히거든, '참 진(眞)'자에 '벗 우(友)'자 이래가 진우히, 지급 둘째 토요익은 모여서 계흥 한다, 여기 부근에 사는 사람들 삼정그건코아, 송십에 주로 그래 사는 사람들이야, 동신하나 진우 하도 전나도사람은 없고 전부 경상도 사람, 주로 토박이지, 진우히도 여기 있는 송십아파트하고 삼정그건코아하고 요래 다 아는 사람이지, 나이는 우리 나이가 제익 많고 그 곁에 한 10상 정도까지 그래 있어, 그래 뭐 요즘은 벽로 안 그러지만 우리 계원이 봉고차가 하나 있거

든, 봉고차 타고 여름 되면 놓려 댕긴다고, 놓려 가서 고 기도 먹고 그렇게 우니가 자주 댕겼다,

### 여기에는 외지 분들도 많았는데 지역감정은 없었나요?

막 없었어, 전나도 사상 미니 등어오고 우니가 늦게 가면 전나도 사업등이 우니를 업신여긴다고, 지급도 마찬가지야, 지급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숙자니 하면 음성등어보면 양거든, 또 많을 안 해도 저 사상 전나도다 하면 그쪽도 우니 싫어하고 우니도 그쪽을 싫어하고 그내, 동심회에도 그런 사상 안 넣지, 그러면 전나도 사상은 전나도 사업끼니 모이고 그랬지, 그때는 좀 서로 그렇게 경계하는 게 많았지, 그니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공장에 먼저 등어온 사상은 집 힘이 있거든, 그내서 늦게 등어온 경상도 사상은 익도 많이 시키려 하고 무시한거지, 그내도 그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경상도 사상도 나쁜 사업 있고 전나도 사업도 좋은 사업 있고 그랬어, 여기도 공장 사장이 전나도 사업 같으면 경상도 사업 안 써주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있었고, 경상도도 마찬가지야, 경상도 사업도 가입는 기업도 가입다. 경상도 사업 안 쓰다,

# 이곳에서 사상 공장까지는 출퇴근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전거로 다녔어, 그때 김이상 지급도 벽 변동은 없어, 내가 않기로는, 요즘은 뭐 차가 댕기고 버스 댕기고 그렇지, 나는 자전거흥 대구 시적부터 탔거든, 대구 내한 27상인가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댕겼는데 지급까지

몇 살이고 한 50년을 내가 자전거 타고 댕겼다고, 밖에 늦게 마쳐도 자전거 타는데 나이트도 있잖아, 그 자전거 있잖아, 그래도 여자들은 좀 무섭고 그런 건 좀 있긴 있었을 거야,

#### 군서에 공장이 많은데 공기가 나쁘다고 느낀 적은 없으세요?

공기는 안 좋지, 지급도 운동하러 여기 또상, 둑에 나가면 저 공장에서 고무 낸새 같은 거 많이 나거든, 예전 보다는 좀 덕하지만, 그 전에 한창 공장이 항 적에는 우 너 집에서 나가면 낸새가 억수로 많이 나, 연기 같은 거나고 공기가 지급보다 많이 못 했어, 지급이 좋은 편이지, 근데 감전동 상 때, 그쪽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그쪽에는 공기 좋았던 편이야, 내가 있는 거기는 논하고 공장하고 있어도 요즘보다 이런 공장이 벽로 없었어, 그 등판이나 등판, 공장 옆에는 등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공기 나쁜 중은 벽 모르고 상았어,

# 학장으로 오신 게 정확히 언제쯤 인가요?

학장동은 더 먼저에 92년도 아니 더 오래됐어요, 학장은 우리 애가 한 서너 상 먹어서 왔다 그랬을거 88년도 우리 애흥 낳았으니까, 연산동에 있을 때 애흥 낳고 얘가 동사진 찍을 때 호통이를 놓고 찍었으니까, 홍십퍼 그 기년으로 한다고 호통이를 놓고 사진을 찍어줬거든,

#### 학장에 집을 구할 때 금액은 얼마쯤이었고 또 어 떻게 마련했나요?

그때 천오백인가 전세 상았는데 그 돈으로 저 아파트 등 샀죠, 그때 우니 아버너이 방 얻어준 돈이 천오백인가 천육백 있었고, 그 당시 저기 우니가 동양아파트 상때 사천땅백 인가 주고 산거예요, 돈이 좀 부족했는데 그때 우니 아버너이 또 좀 해주고 대충도 좀 내고 했죠,



#### 학장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당시는 우너는 연산동, 동내 그쪽으로만 상다가 우 너 애기아빠 힘사가 다대포로 이사를 갔잖아요. 힘사는 다대포고 우니만 이니 옮겨온 거야, 그래서 충퇴근하기 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연산동에서 다대포까지 상당히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내버스 타고 다 녔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애기 학교도 안 다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혼자 고생항 픽요 없다 해서 그 가까운 곳 으로 갔다가 애 학교 등어간 때 저기 학군 좋은 곳으로 나오자, 5년만 생고 나오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살 생각도 안 했어요, 회사 때문에 한 5년만 상 다가 다시 동래 쪽으로 가자, 그러고 왔는데 그게 마음 대로 그렇게 안 되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애등 학교 등 어간 때 되고 여기서 학교 안 보낼 수도 없으니 또 그렇 게 됐죠.

## 그 당시 학장동 풍경은 어땠나요?

그 당시는 우니 꼭 때만 해도 학장동이간 정말 한 번 도 완보지 못했던 곳이에요, 여기 이런 동네가 있는 것 도 모르고 완보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오니까 지급 이자선 거 같아, 그때 동산유진가 궁뚝이 딱 서 있더라고, 그때 당시 한 번 여기 지나가면서 궁뚝은 본 거지, 그래서 학장이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궁뚝에 연기, 동산유지가 있다는 거밖에 목했어, 그리고 학장동으로이사를 왔다니까, 여기는 정말 그 당시는 연기도 많았

다, 연기도 많고 급사동하고 거의 조급 비슷했어요, 그 대도 학장동이 더 했지, 그래서 존 오기 싫었는데 그 당시에 어쩍 수 없이 혼자 충퇴근하기 힘드니까 애 학교 드가기 전에는 나오자 그러고 왔다니깐요,

## 하단이나 다대포로 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실 우러가 애기등 학교 등어강 때 이사 가자 그랬어요. 근데도 직장이 여기 계속 있으니까, 또 여기에 집을 사버려 놓으니까 대충도 아직 안 끝나고 이러니 다시 팔고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예흥 등어서 팔고 간등 하단이나 어디로 가면 그 돈보다 더 등여서 집을 사야하니까.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 이곳 아이들은 보통 학장소등학교로 진학하나요?

예예, 학장초등학교 갔죠, 학장초등학교 가고 그다운에 큰 애는 동주중학교 가고, 구덕고등학교 가고 어 구덕고등학교 가고 보통 그 코스로 많이 가요, 아이들은 동네에 대한 북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식은 뭐 모르지, 북만이 있었는지 그런 땅 안 하니까, 아등은 그렇고, 우너 딸도 그다지 뭐 그런 거 없던데? 애도 여기 학장 다니고 중학교도 여기 학장동 바로 옆에 있죠, 여기 큰속병원 옆에, 거기 학장여중 댕겼다, 거기 다녔고 고등학교는 주예여고 다녔고 대학교는 저기 부경대 다녔고, 애등 크면서 마음에 대해서 병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 근처에 시장은 없나요?

지급 세원호터니에 재확용 센터 있잖 옛날에 거기가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등어가면 그 붕교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안쪽으로 공목 하천 따나 등어가는 거기도 시장이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그냥 주차장처럼 있었어요, 빈터 거의 공터였죠, 그 기업은행 옆에 그때 기업은행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지급 펫따켓 강아지 묵건 파는 마트 있잖아, 그기가 옛날에 기업은행 자니였다가 그 기업은행이 건너로 이사 았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기업은행 자니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재내시장 서고 그랬어요, 그냥 장판을 펼쳐놓고, 그내도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생선 팔고 야채 팔고 오 덴 팔고 뭐 그런 거 다 다 팔았지,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 하나 있고 내나 그 위원장이 달하듯이 재확용센터 거기 상가시장이 있었죠.

### 병원은 어디를 이용했나요?

병원은 현재로 어디냐면 위원장 십 마주 보는 쪽으로 그 당시에 병원이 거기 있었어요, 무슨 정형인라? 거기에서 내라, 정형인라 다 봤어요, 시골집, 시골병원처럼 그렇게 생겼었어, 근데 이제 지급은 제라점이 돼버겼네? 거기가 옛날에 병원이었어요,

#### 세원로터되한 이름도 여기에 세원이라는 공장이 있어서죠?

지급 세원 그 자내가 부동산도 있고 거기 무슨 떡볶 이 집, 룡나욱 국법집 있죠? 그 건물이 옛날에 세원이었 잖아, 현재 기업은행 자니가 아니고 지근 기업은행 자니 는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땅을 기 업은행에서 사각고 지급 지었잖아. 원내는 그 빈자니였 어, 그때 세원이 얼마나 컸는데, 지급 도축장 그쪽으로 다 세원자식잖아, 지근 정우마트, 그 주차장이 다 세원 건묵이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전부 세원이었어요, 신발공장, 그러니까 저녁 퇴근 시간 되면 우리 동양아파 트 있을 때 그때는 저기 아파트에 가서 빨래 넣고 그러 면 세원에서 여자들이 버글버글 완전히 문떼처던 이니 나았다. 우리가 빵대를 넣러 목상에 가면 거기 퇴근함 시간에 여자, 아준마들이 묵상 흐르듯이 나온다니까, 세 원이 진짜 많이 컸다. 근데 그거 없어지고 나서는 학장 동이 조용해져버겼지, 그 당시는 미용식도 각 됐고 진짜 킨 다 언청 작 됐다. 그러니까 지근 목욕탕이 몇 개 없 어졌나, 목욕탕도 한 서너 개 없어져버렸지, 지근 그 모 텍 있진 369모텍, 그 모텍이 옛날 목욕탕이었잖아, 그 밑에 지하에 하고 2층하고 해서 목욕탕이었는데 사상이 없어서 안 되니까 치우고 모텍이 돼버겼잖아. 모텍 해버 성구 정우 다 트 있는데 당 다 트 있는데 거기가 또 옛날에 시원청이나고 목욕탕 하나 있었거든, 그것도 없어져 버 겼어.

## 근처에 구뇌소가 있는데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나는 구치소사 해서 그때 처음 악밨지다는 그렇잔, 무서웠지 저녁에 되면, 혹시나 그거 하는가 싶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없긴 없더라만, 그래도 처음에는 그랬잔, 아마 집값도 그래서 좀 그 때문에 동양아파트도 싸지, 지급 그래도 많이 못았어.

###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로는 어떻게 옮기게 됐나요?

우리가 그 당시에 상 때는 20평이었는데 거기서 항 몇 년 상다가 그 떹에 동으로 24평으로 이사 있었지, 지 근 사는 삼정으로 이사 했을 때가 2010년이네. 지근 그 정도 됐어요. 9년이나 10년쯤 돼서 왔겠네요. 동양아파 트 살다가 삼성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뭐, 기분 그런 것도 모르겠고 왜 그쪽으로 옮겼냐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데 호 갓사하니까 차상시 저 어디 창원 쪽으로 가뻐식까 어짜꼬 하다가 애들 때문에 친구들도 다 여기 있으니까. 장유도 강까? 우리가 그쪽에서 그냥 이사항까 생각을 했 거든, 근데 애들 때문에, 애들 친구들도 아직 주변에 많 고 우리도 아는 사람들도 여 둥례둥례 있고 하니까, 그 내서 원내 대신동 등어가면 지근 왼쪽에 있잖아요. 동대 앞에, 그 무슨 아파트 한신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우리 가 강아 그랬거든, 그리 이사를 강아고 하다가 교통이 국다니 지나서 안야 하고 막히고 그런 게 있더나고, 거 기 그냥 상기는 좋아, 거기도 햇빛도 딱 들어오고 공기 도 좋고 좋은데 살던 곳이니까 그냥 삼성으로 왔어요.



#### 그럼 삼성아파트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냥 안 좋은 집등이 그 주위에 많았지, 그 당시로는 큰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 도로가 없었거든요, 삼성 짓기 전에 쪼만한 도로였어요, 차는 댕겼지만 쪼맨했어요, 근데 도로층 넓히고, 아파트 등어오니까 옆에 상가등이 짝 등어오고 옛날에는 동양아파트에서 이 삼성 쪽으로 깊이 없었거든요, 지급은 빠로 텄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업등 떠것속에 여기는 뭐 없었지, 없었지, 그때는 성 신병원밖에 없었어요, 유익하게 성신병원이 있었고 그다 읎에 큰속병원 등어서고 부영병원 등어서고 삼성 등어오고 나서 저기 부영병원 등어셨잖아요, 삼성아파트 등 어서고 나서 한 2,3년 있다가 등어셨거든.

####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급은 여기 신발공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준마들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 199

보면 여기 찬양식품을 많이 다니더나, 여기 크게 있잖아 요, 거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거기 다닌 아준마등이 할머니등이고 아준마등이고 거기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거기 사시던 분들이나 동양아파트나 근처에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지급 동양아파트가 지급한 20평 정도가 1억한 2천정도 된다고 하대, 지급 많이 쑥았다더라고, 그렇게 된다는데 여기 삼성이 훨씬 비싸지, 한 배정도 된 거야, 아무튼 여기 알부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삼성 저기도 그렇고 집값은 뭐 어찌 된 판인지 많이 쑥았더라고, 내가 저 집 상 때만 해도 그 당시에 2억한 주고 샀거든요, 수니 안 된 값으로 해서 2억한 주고 샀는데 지급 거의 3억해 버니잖아, 한 2억 9천, 3억까지해,

#### 마을 구민들하고 모임이나 계 같은 건 안하셨나요?

같이 계층 했죠, 우너 지금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 니까 우너 계 명칭이 동익한다. 동양아파트 역동에 사는 사업등만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니 하는데 여 섯 턴, 익곱 턴 하고 있네. 우러끼니, 남자는 남자등끼니 하고 여자는 여자등끼니 하고, 억국에 란당도 가고 해 요, 우너 역본도 한 2번, 3번, 그 모임에서 간 것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간을 많이 못 빼잖아요, 직장이 있 으니까, 그니까 남자들은 많이 못 가고, 우너 여자들은 한 해에 한 번 씩 억국으로 가요, 곗돈도 많아요, 제법 많아요, 연수가 오래 돼가지고,

#### 마을이나 아파트 주민들 간에 지역감정 같은 건 없었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니 지급도 경북 안동사ά, 전상 도 당양 사ά, 또 한 언니는 요 부산 토박이, 부산 당감 동 토백이, 또 한 언마도 부산 토백이, 한 언니는 진주, 다 각지에서 만났는데도 지역감정 없이 이제까지는 진짜 다 작성고 있어요, 우나는 우니끼니 그렇게 다들 딱형제등보다 더 잘 지내니까 다른 사업하고 어울식 픽요가 없는 거야, 지급도 잘 지내잖아요, 지급도 우니 센터에 원, 한 이렇게 하면은 내하고 그 언마상 다닌다, 내가오늘하고 또 그 언마는 학요익 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없으면 자기가 방주고 자기 없으면 내가 방주고,이렇게 잘 지내요,

## 부산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었나요?

아 그때 우니 아저씨 직장이 부산으로 됐어요, 아저씨가 공무원, 지급은 공무원 행정직인데, 지급은 퇴직함때 다 됐어, 다른 직장에 있다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공무원응, 그리고 부산으로 발경을 받았죠, 서구 충무동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청에 계속 있었죠, 동사무소, 동대신동도 있었고 서대신동도 있었고 그렇게 동아다니다가시청에 들어갔다가 지급 저기 사업소에 있어, 저 퇴직함때가 다 되서 차냥등혹사업소, 부산 꼭 땐 좋았지요, 그때는 그 시공에 있어받아 뭐 좋은 게 없잖아요,

## 부산 어디에 집을 구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차층 한 대 해서 친차에 싣고 왔는데, 송도 거기 방 한 칸짜니 오니까 벽 집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냥 았죠. 집은 우니 아저씨가 충무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까운 데 송도에 얻은 거지,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니 아저씨가 맨날, 충무동이 가까우니까 맨날 빵을 먹으러 왔어, 빵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직장을 못 다녔고 그 연탄 하나로 그 때는 곤로, 그것도 없어서 연탄 하나에 빵하고 찌개하고 다 했어, 연탄북에 빵 하고 또 거기다가 찌개하고 국 끓이고 하면 시간이 없청나게 격내는 거예요, 그니까 아친 묵고 치위놓고, 또 전신 준비하는 거예요.

### 힘드셨겠네요. 그때 방세나 물가는 어땠나요?

예, 옛날에는 공무원 월급이 진짜 박봉이었잖아요, 그 내 그러 안 하면 못살았죠. 그러고 그때는 거의 다 사극세였는데 그때 사극세가 5만 원이었나? 그 주인집에 한 7만 원 준 거 같아요. 전기세하고 묵세 이런 거 다 해서. 그때 우리 아저씨 월급이 한 20만 원, 그래도 그때는 채소도 싸긴 쌌어, 100원짜리도 있었고 200원짜리도 있어. 콩나묵 백 원어치 사서 먹고, 지금은 천원쯦 되지.

## 그때 살았던 집은 어떤 구조였나요?

단칸방이었지요, 그래서 한 방에 다 같이 자야지 했어요, 옛날에는 단칸방이 많았어, 부엌 하나 방 하나,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긴데 여기 다 방, 부엌이지, 앞에는 부엌이고 뒤에는 방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앞에는 등어가는 입구, 등어가는 데가 부엌이고 이용사가면 여기가 방이고, 그런 집등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거죠, 지금 송도 바닷가에 거기 다 큰 아파트등이 다등어셨어요, 그쪽 자식에...

## 선생님은 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송도 상다가 청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부업을 애들 뭐 라자 값이나 벽인다고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우너 아저씨가 애등은 언따가 키워야 한다, 이 내가지고 전대로 직장 생활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저런 부업 많이 했지, 뭐 실빵 따는 것도 하고 낚시, 거기는 빠다니까 낚시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 배 있는 사람들은 낚시 그거 빠는 끼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뭐야 그 콩도 많이 깠어요, 콩 까기, 뭐 심빵 따기,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나면 낚싯빠는이, 아무래도 조심해도 또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 아저씨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 뻗어서 그거는 애등 라자 값이나 아니면 하루 반찬값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애등이 확원 다니고 어건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러니까, 얼따가 집에 있으면 좋았겠죠.

## 학장으로는 언계,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지인이 동양아파트 다른 동에 상았어, 그래서 우니가 집을 막 구하려 다니다가 독채를 하나 구항라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삐싼 거예요, 단독주택인데 2층에 주인하고 같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참 삐싸더라고요, 그라고 있는 도중에 우니 아저씨하고 같이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 괜찮다고 한번 안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왔었는데, 평수는 작은데도 구조가 참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게 됐지, 아파트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좋아가지고 방도 2개 있지 부엌도 있지 이라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방 따로, 그때는 방을하나씩 직장 다니는 사람 많겠지, 세원 여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방 하나는 남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이 2개니까 1개 남 주자'하고 이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 아파트는 좋았는데 주변 환경은 마음에 드셨나요?

아무새도 그렇잔, 기분은 좋았는데 집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구치소도 있고, 이 창문을 역어보니까 전부 궁뚝밖에 없었어, 공장 궁뚝이 얼마나 많은지이 청소를 해놓으면 급방 새카매져요, 공단이고 여기 전부 이쪽이 다 그렇더라고, 매연이 많았어, 그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목샀어, 제 눈에는 아무나 박도 학교가 없는 거예요, 사상등한테 묵었더니 저기 공장 복판에 있다 하니 난값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면 우니 애들 어넥 때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니까 묵이 다 복나오는 거예요, 이 공장에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그리고 삼각 저기는 맨날 친수지역이고, 그래서 강한 아니면 학교도 못 다녔어요, 씻고 갔다 오면 기름때가 확, 전부 뭐 공장지대니까, 그때는 묵이 여기서 안 흘러가고 고여 있으니까 좀 어려웠죠, 청소는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새카맸어, 여름에 창문

도 많이 못 역었자, 근데 그때는 또 우너가 환경에 대한 게 그렇게 청두청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네 하고 말았지, 요즘에는 이런 티브이나 뭐 이렇게 자꾸 얘기층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걱 신각하게 생각하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자,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몇 번 생각했었는데 애들 학교 일단은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게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세웠이 이렇게 흘렀네요.

### 주변에 시장은 어디에 있었나요?

동양아파트 샹 때는 그 덜에 학장 상가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구치소, 구치소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뚝길이었어요, 그 또상 있는 옆에 그냥 뚝이었는데 길이 없었어, 그쪽에는, 우리 이사 오고 난 뒤에 큰 길이 생겼어요, 그래 그 건너보면 옛날에 재래시장이 있었거든요, 학장 상가시장이라고 했어요, 지금 도로 생기고 그 옆에 전에 시장하다가 지금은 시장 기능을 못 해서 이제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가자그라하게 시장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세원로터라쪽에서 오른쪽에 그 369모텍 있는 그 뒤쪽에 거기도 시장 쪼끈한 거 있어요, 저 앞쪽에 조금 큰 시장은 지급없어지고 중고품 시장이 되어있더라고.

## 자녀들 도시학 반간은 주로 뭘 싸주셨나요?

우리 그때는 뭐 애들 방찬은 소시지, 기다산 소시지,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06

그거 계산 묻혀서 구위가지고 많이 먹고 오뎅 볶아서 많이 먹고 도시삭 방찬은 비엔나 싸주면 너무 좋아하고 또 있었고 케첩 뿌려서 도시 삭 싸주면 좋아했죠. 근데 여기는 급식을 우니 애 1학년 때부터 했는데, 둥째 애 1학년 때부터 급식했어요. 여기는 학교가 환경은 안 좋아도 선생넋들은 참 괜찮은 선생넋들이 많이 오시는가 보더라고, 이니 보면 여기 이건데 안 좋은 낙후된 데 계시다가 가시면 조금 괜찮으신 강더나.

## 학장으로 와서는 다른 일을 하시기는 않으셨나요?

동양아파트로 이사 악서는 익하려 좀 다녔어요, 거기 옆에 세명사라는 포장 박스, 박스 공장이 있었어요, 애등 남놓고 먹나는 못 가고 하니까 그 공장에 한 6년쯤 다녔어요, 거기서 그 뭐야 박스가 나오면 포장하고 뭉쳐서 기계로 가지고 밟아서 그런 게 쭉, 나오면 받아서 요박스 붙으면 떼가지고, 하나하나 떼줘야 기계에 이렇게하나씩하나씩 똥라가거든, 한 장씩 떼져가 똥나간다, 거기는 남자등이 많은데 여자들은 2명 있었어요, 그때는 9시부터 5시, 6시까지 하고 잔업도 했었죠.

# 여기서 자녀들 학교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는 우니 머시마는 동주중학교 갔고, 딸래미는 학장여중 갔고, 고등학교는 이제 더 먹니 가진, 머시마 는 구덕고등학교 갔고 딸래미는 서여고로 갔어요.

#### 그럼 여기서 시내 간다 하면 주로 어디로 가나요?

시내는 부평동이나 국제시장도 가고 진시장도 가고 그랬죠, 여기가 교통은 좋았어요,

#### 동양아파트 살 때와 기금 삼성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뒤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는 보면 이웃 간에 이렇게 했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우너가 저쪽에서 오래 상다 보니까 지급도 만나는 사업이, 그쪽에 있던 사업등인데 지급은 다 뿡뿡이 흩어졌어요, 지급 벽산이나든가 삼성이나든가 다 이쪽 주변으로 했거든요, 저기 상던 사업이, 그래도 아직 모인도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여기 지급 우너가 10년이 없었는데 아직도 이 삼성아파트 사는 사업등하고는이렇게 뭐 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208$ 

#### 그럼 거꾸로 여기 토박이 분들이랑 아파트 이주민 사이에 거리감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뭐 사상은 이렇게 배제하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누구나도 이렇게 만나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랬다 하 더라고요. 옛날에는 애들 학교 보내는데 치맛바람도 이 아파트 사는데 처음 생겼을 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치닷바람이 언청 쎘대인, 아파트하고 원내 설던 사람하 고 원내는 나뉘어 있는데 모이는 곳이 학교니까요. 학부 모등이 학교에 모이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아파트성,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무래도 끼니끼니 논 다고 뭐 없다들이 그러면 없다들도 또 끼니끼니 녹거든. 아파트 사상, 인 사는 사상끼니 높고 그러니까 애들도 또 끼니끼니 녹지, 그런데 저는 뭐 그 치맛바꿈 같은 거 낯빛 시간도 없었고 우리 땅래미가 맨날 반장을 해도 나는 그냥 직장은 다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 시삭 싸주고 이렇게 했는데 옛坟에는 진짜 그런 게 많 았어요, 선생님께 혼지 주는 것도 않았다고 하더나고요, 지급은 없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 뭐, 평균적으로 보면 어디서든 작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는 건 먹는 데 아파트 주면이 생활수준이 조급 그래도 여유가 있거 나 높겠진, 그래도 이제 아파트 등어선 지 한 20년 됐는 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주 택에는 생활을 안 해박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근 안 그렇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 밖에서 보는 학장동 -2

사냥라 사냥의 란계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10

학장동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학장동 사람들의 이러한 관계는 서로 간의 다양한 접촉 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학장동 사람들이 겪은 첫 번째 접촉은 광복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온 귀환 동포였다.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고향으로 이주하거나 친, 인척이 있는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했는데 학장동 역시 부산에 정착한 귀환 동포들이 정착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이들은 대부분 친, 인척이 학장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장동 원주민들과는 큰 무리 없이 융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귀환 동포 2세대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던 1960~70년대 학장동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학장동 사람들의 두 번째 접촉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사상공단의 조성이었다. 사상공단의 조성으로 경성도, 전라도 일대에서 이주민들이 이곳 학장으로 유입되었고 이때 사람들은 원주민과 이주민, 경상도와 전라도등의 구분을 통해 서로를 인식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원주민과 대부분 공장 노동자였던 이주민의 생활수준 차이도 일부분 작용했다. 또한경상도와 전라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지역감정 역시당시 정치권의 상황과 맞물리며 강하게 나타났다.

학장동 사람들의 세 번째 접촉은 아파트 건설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학장동에 조성된 아파트들은 공장 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기에 부산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학장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존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차별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자

학장동 구성원들은 서로를 원주민과 아파트거주민으로 구분했다. 이 시기에는 구성원들이 지역감정을 통해 서 로를 인식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주민과 토박이라는 상호인식과 관계 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다양한 관계와 접촉이 중첩되며 만들어진 학장동 사람들의 상호인식과 구분은 2015년 개장한 새밭행복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접촉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학장동은 크게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사 상공단과 1984년 구덕터널이 개통되면서 일대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상공단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공단을 통해 유입된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전의 시끌벅적한 마을에서 도심 속의 오지마을로 변하였다.

학장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공단의 형성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다. 학장동에 살았던 토박이들은 공단이형성되면서 비싼 값에 땅을 팔고 나가거나 직접 건물을지어 임대로 주기도 하였다. 이곳에 형성된 공장은 신발, 염색, 주물, 사료 공장들이 있었는데 산업화와 맞물려굴뚝에서는 검은 연기를, 하천으로는 누런 오수를 뿜어내었다. 학장동에 사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검은 눈 이야기를 했다. 매연이 심해 하늘에서 마치 검은 눈처럼 내려흰옷이 새카맣게 변해 옷을 빨아도 널어놓지 못했다고기억했다. 가재와 다슬기가 살았던 학장의 하천들은 공장이들어서고 물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찾지않게 되었다. 사료공장이 있어 마을에 들어서면 퀴퀴한냄새가 나기도 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주민들은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경제발전과 호황기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공단을 통해 주민 들이 얻는 이득도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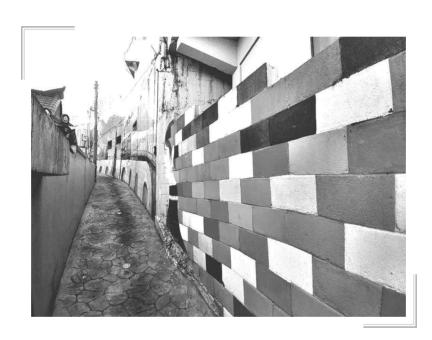
공단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인구의 유입을 가져왔고 농사를 짓고 학장동의 공간들은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방촌으로 변하였다. 방을 임대하 는 사람과 하숙을 치고 밥을 해주는 사람, 이들을 대상 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 대 모여 학장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되었다.

사상공단의 형성은 물류의 빠른 수송을 위해 구덕터 널을 뚫는데 영향을 주었고 터널이 개통되면서 공단의 활성화를 더욱더 가속시켰다.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구덕산에서 내려오던 깨끗한 물이 막혔고 산을 깎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새로운 계층의 인구를 유입시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학장동은 인접한 곳에 주례구치소, 대남병원, 공동묘지 등이 있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학장동 주민들의 생활권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기억에도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다.

せい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



## 2013년에 '고향의 강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입 아니에 입, 오히려 하긴 바냈진, 앤냐면 공 강 지역에서 위낙 오폐수가 많이 나와서 어떤 낳은 노 산 묵 어떤 넣은 파산 묵... 역색... 그라고 뭐 완전히 비 오고 이러면 공장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있지마는 하 천에서 여름 되면 썩은 낸새 뭐 말도 못 하거든인, 그래 가지고 저희는 고향의 사업, 강 사업한다고 했을 때 찬 성은 했었지요, 그래가꼬 물이 학장, 온천천 된다면 언 청 좋은 거죠. 예전에는 하천에 미꾸나지, 붕어, 뭐 이런 것들, 면묵고기상 다슥기도 있었는데 공단 지역이 생긴 으로써 인자 그 왜 그렇냐면 오폐수가 그때는 벽로 개 년이 없었잖아인, 그러니깐 인자 다 버니는 거였진, 자 까 밖에 뭐 태워가지고 그 태우는 그 연기에 의해서 재 가, 그 빨래를 넣어놓으면 흰 빨래는 정말 그게 기름같 이 작 지위지지도 않아요. 묻어서, 털어 내면은 그냥 기 때는 건강을... 그러니까는 조급 무지한 거였지요. 환경에 대한 그런 고정, 란녃이 아 그런 게 고정란녃이 있다든 지 이거를 해서 우려가 따시가지고 뭐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 저희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인자 뭐 서 서히 인자 그러면서...

#### 학장동 주변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서부산 특항사업을 하면 서부산 청사가 등어오고 그게 등어오면 그게 등어온으로써 인자 주위가, 인자 감전 동은 더 좋아진 거 같고 제가 복 때 감정동이 이제 뭐냐면 주계, 학장, 지급 언궁이 좋거든요, 이 순서대로 간다지급 언궁이 제일 좋은 것이든예, 서부산 특항사업 되고 인자 되면 감전동이 팍 뜻 거 같거든요,

### 공단이 생기며 따을 치안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치안은 그닥 그렇게 학장동 근데 그다지 그렇게 뭐 번허 예 그런 거는 없어예, 제가 여기 센터를 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지급도 밖에 보면 로즈 허브를 싟어가지고 하분을 이렇게 난났거든, 한 번도 会쩍 가져가 본예 가져간 사람 없고 해코지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의 번호 괜찮아요,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밖이 되면 조급 여기가 어둡거든요, 그나고 옛날 집 공목식들이 이렇게 해서 쪽방촌이 되다 보니까 어두컸컵 해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공포싟이 있다 그렇까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소한 뭐 번허들은 익어날 거나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밖만 되면 사식은 무서워요, 사람 다니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 개 내밭행복센터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새밭행복센터가 2015년 9월 22일에 개소식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작한 건 새밭행복마을 추진위원회사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 제가 그때 참여 를 해가지고 지근껏 하는 거거든 인, 그 익체 처음에는 어 누가 그냥 지인의 소개호 여기 어르신등이 많은, 어 은 평균연경이 한 65세호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등어 %은 때 처음 등어뽃 때 젊은 그 뭐 젊은 피가 픽요하다 고 젊지도 않지마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온 거고 저 들어온 때만 해도 왜 본동 사상이 여기 들어 오냐고 또 몇몇 분들은 사식은 13년도에는 더했습니다. 그래 그나 마 제가 인자 주택이나는 여기도 주택이고 거기도 주택 이상는 그거 하나 그거 해가지고 여기 등어 악가지고 회원으로 있다가 총무로 있다가 위원장이 됐거든예, 그 내서 이게 지근 이게 센터는 2년 됐지만, 현재 지근 4년 찮니다.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가 인자 뭐 냐면 나나에서 그러니까 인자 우리 힘쓰시는 나나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센터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지금 계속하고 인자 지금 2년, 인자 개소는 2년 됐습니다,

# 행복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요?

건묵은 인자 인기서 지어주고, 프로그랜은 인자 구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동센터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고예, 그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저희가 인자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전기세 수도세 인자 여기 오시는 분등 전부 다 저희등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자 또 한 당에 한 번씩 둘째 주 수인일에 국수도 나뉘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센터가 위치한 새밭마을의 과거 풍경은 어땠나요?

이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곡목긴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인자 교육을 받고 인자 이렇게 된 거거든인, 그러 다가 인자 내가 있거 앞두고 떠니 교육을 좀 받은 거지인, 교육을 받으면서 센터가 안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 현개 센터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의원년도 오시고 그때 뭐 때문에 왔느냐면, 새뜻사업, 주변 환경에 새뜻사업이나고 지급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요, 새밭마음을 환경적으로나 그나고 뭐나 그렇까... 좀 더 커뮤니티를 향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 도시가스도 넣고 있고요. 예그나고 소방도로도 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급 하고 있거든예, 내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신 게뭐냐면 여기 학장에 에코하우스를 세우려고 어디 건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자 그것 어디다가 그것 하면 좋은까... 박물란이나면 역사란 경 박물란 경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도 있고 전망도 좋은 곳 어디에 지을까... 이건 것들이 새뜻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의원이 시창 오셨지.

# 카페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우어 주면등입니다. 그라고 식직적으로 카페 여기서 문학 프로그랜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 1라목당 10명이 프로그랜을 한다면 10명이 한 시간을 듣잖아요. 그래 다 치고 가면서 한 명 내지 두 명안 커피를 마시고 오지 나 머지는 그냥 프로그랜 나오면 집에 な니다. 그래서 프로그랜 요거 해가지고 저희가 카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파트 분이 주로 먾습니다. 새밭따을보다는, 새밭,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후가 되고 그나고 여기 사는 사업등 주로 직장을 다녀요. 먹고 상아야 하니까.



# 행복센터에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인자 기급을 인자 처음에는 지급도 사실 뭐 재정상에 해덕이는 건 사실인데 그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조급이나도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2년 동안 나눔 국수를 매월 1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나고 그내 있으니까는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노인 분들만 했었어요, 그나고 좀 요 새밭 분들이 좀 인자 한 끼의 든든찮을 나뉘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카페를 하다 보니까 아 그냥 그서 그 누구나 안가지고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제익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했었어요, 국수가 사실 저희 지급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분들이 저 주부경력 3, 40년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나 그 잘 끓이시거든 인, 잘 만드시는... 지급은 반, 보 통 한 덫에 120명에서 150명 오거든인, 그래 인자 묵고 강 때 존 뭐诊까 행색이 좋은 사상등 묵고 아 작 묵고 강U다 이러면 커피 한 잔 묵고 가는데 좀 뭐쏫까 인 근 방에 사시면서 정말 맛, 간적하게 고맙다고 손잡고 정말 장 묵고 간데이 하면서 이런 데 딱 보면 진짜 어떤 埃은 이렇게 눈에 보여, 그나은 땀이 짝 나고 참 작하는 거 같다 한 보양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인, 그나고 청소 곡목식 하면서 청소한다면 아이고 수고하네요, 이러면서 뭐 그냥 가다가 %자기 돌아서가꼬 요구르트 그냥 하나 푹 찍러주는, 저 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분들한테 하나씩 주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먹으나 하면서 이렇게 깨 끗하게 해주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항 때 그때 인제 제익 보弦을 느끼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인 텃밭에서 직 접 고추 따가지고 판매해가고 판매수익이 않은 때, 그건 돈하고 직격이 되니까.

## 반대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봉사도 제, 뭐な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9시 40분에 오면 저녁에 한 8시나 8시반 에 가거든요, 거의 9시간 10시간을 있거든요, 봉사가 아니고 직장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급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앤 그러냐면 이게 직장인 거 같으면다는 분들 딱 시간을 정하는데 다 봉사하시는 분이고저는 위원장이니 어쩍 수 없이 이격 책인을 지야 되니까 이게 인자 나나 거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익급을 받는다든지 월급을 받는다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

인, 그나고 프로그랜 등으시는 분도 당연히 내가 나나에 서 누식 건 누신다 생각하고 어떡 때는 하인 부식듯이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제익 억욱하고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사상 신정이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많하는 사상등 원내 신성이 벽한 안 좋더나고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난 제익 억울해.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고 또 말항 건 마 그냥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말이나 도 한마디 해주면 그게 어 참 힘이 되는데 아니 나나 건 데 당신들이 뭐 땐에 그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딱 쌍신 지흥 딱 켜고 보면 그런 게 나는 힌등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등 하다가 그냥 아이씨 때려치워 버덕까 하면서 내 가 뭐 땐에 이런 욕을 들어 묵고 하고 있는, 이렇 때, 물 혼 대부분 사상이 아니지만 한두 사상이 그 찌르는 거 아주 작은 상처에, 작은 상처에 언청 아픈 때가 있어요. 그내서 제가 극단의 조치로 새밭 행복마은 운영위원회 는 순수 봉사라고 적어 났다 아입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내 몇 번을 당해가지고 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얼린는 계속해도 안 되니까 뭐나도 적어놓자, 그런데 너 무 딱딱하게 적어놓으면 기분 나쁜 수가 있으니까 흘러 가듯 안 흘러가듯 그렇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적 어놓은 거예요.

### 까페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바차는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 뭐 살까 좀 처음에는 감동하다가 그게 뭐 살니까 지속적이고 이 나면 당연한 듯이 당연시 하는 거처럼 그냥 어 수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에 그런 식으로 하고 당연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24

시하는 게 나는 그게 싫어요, 조급 기분 나쁘더나고요, 그래도 한 번쯤 아이고 어뜨케 하면 좀 선세하게 뭔가 좀 더 도안중, 묵혼 도안주려고 구청장년도 노력은 하시는 건 덫아요, 그나고 어찌됐든 여기 장되나고 관신을 가지시는 건 덫는데 조급 뭐나 그렇까 너무 장, 못 하면은 관신을 두는데 딱 안정권에 드니까 아 느그 인자 장하니까는 인자 느그는 인자 뭐 그러면서 뭐な니까. 한 떷짝 뒤로 묵러나서 본다는 느낌도 등고, 사식은 저희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관신도 편요하고 그래서 한 번씩 뭐 좀 이렇게 뭐 좀 뭐나 그렇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운영, 우니 운영위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위 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아까도 얘기한, 뭐 이때까지 학장이 흘러, 흘러온 역사를 얘기했는데 제 청고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렇다면 제가 어녁때 거녁던 푸른 숲이나 하천이나든지 맑은 문》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70 아 75, 6년도에 그런 수준으로예요, 주면들이 다 함께 뭔가를 학장동에 학장동 하면 아 그래 밖에 나가서 나 학장동에 산다고 하는 자부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장동이 되기 바십니다.

앤 그러냐 하면은 그 환경이 좋고, 그러면은 사상등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상등이 모이면 자연스럽 게 예, 이 동네가 방전함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동려 놓으면 좋겠어요,

## 주변동네에 대한 인식은 어떠셨어요?

존 동네가 벽난 동네는 우리가 방서는 학장동네 여는 존 어진 사람이 많고 언궁에 저는 동네가 가당차이 벽 난 사람이 많아, 옛날부터 그래, 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근만 되면 뭐 조그만 거 거会니면 똥은 다나이에 닦 아서 뿌니고 그랬다데.

하이튼 언궁 사람들 존 옛날부터 그랬어, 학장에 가따 있으면 인 앞에 여 인자 둓이 저 언궁에 저 우리 지근 운동하는 곳 있지요? 그 인자 언궁 사상이 꾸무자 떨러 온다, 아침에 오모 어느새 지나가면서 싸운 안 하는 사 **' 성이 없어, 그마이 벽' 사상등이야,** 

꾸무자 퍃러가모 익힌 다 오데, 익힌 가가 인자...주례 로 적로 인자 가는 기나, 함매 즈그끼니 싸운은 해, 함 때 즈그끼니, 그따이 야, 어느 ' 아침에 가면 조용함 데 가 없어, 고함은 지르고 딱...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26

# 앞으로 바라는 점

어쨌거나 나는 지하천 등어와서 이 앞을 지나갔으면 그게 제익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많지, 다른 건 없다, 마 잘 묵고 장 상고 마, 지하천이 용로 와가 집 앞을 용로 또상을 여기로 안 그래? 온천장처럼 그래 해 서 그래 갔으면 구서동처럼 거기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 는교,

## 학장동 안에 마을이 많이 나뉘는데 마을끼리는 차이가 있나요?

원칙으로 하면은 붉은디 여가 제익 하찮은 곳이야, 이 학자 동네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좀 그래, 숲 먹고 돌 아다니는 사상도 있고 그렇지, 저 본동 이런 데는 다 그 내도 부자들만 상았고, 이짝 비탕은 다 벽로 온 사는 사 않등이 많이 살았어. 저 본동 이런 데는 다 그래도 부자 들만 살았고, 이짝 비탕은 다 벽한 본 사는 사람들이 많 이 생았어, 홍개 그도 벽호 따 그렇고, 그도 벽호 좋은 수준은 아니야.

본동 있는 마 그래도 농사 마이 짓고 마 다 했지, 우 니 사는 거는 마 그런대한, 그게 인자 각 성은 건 아니 고, 잘 성은 건 아니고 그 때만 해도 마 다 못 사는 택 이지, 근데 제가 인자 하는 딸이 여기 가스 대주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남자 친구가 있는데 가 초등학교 내가 다니면서 개한테 계산은 구워서 많은 쌀밥은 한상 가를 차려 준 모양이나, 그래 놓으니 그 언젠가는 그 땅호 등 먹거니면서 '하~ U 그 때 밥 준 거 그거 어찌 맛있어 가지고 지급된 기억난다.' 이나거든.

# 앞으로 이 마을에 사시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뭐 당시 좋았다는 거보다는 지급이나도 무슨 아파트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28



# 2000년도 은퇴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때는 이제 퇴직하고 한 1년 농다가, 근처에 보세창고가 있었어, 감전동에 성보 보세창고, 그게 인자 경비 한 5년 다니다가 또 인자 그만두고 요즘 이 공공 근 한 같은 거 있제, 그 세무서 그도 다니고, 당배 홍보도그도 댕기고 1년씩, 그 뒤에는 쭉 다 놓았어, 그러다 노인정 생기고는 헌장을 맡아서 지급까지 하고 있어,

# 노인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유고는 2015년도? 그때 개소식 했어, 인자 여기가 인자 공터가 있었거든, 그게 인자 큰 거 다 뭐 일본 사상 거였는데 그게, 그래가 익본인 그거 주인을 찾는다고 그익본 공사고 여 국회의원등 가가... 그래 주인을 못 찾아가 이격 청거를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째, 어째 양아가지고 이거를 청거 시켜가지고 인자 구청에서 이거를 만들었는기산, 제 생각에는 주면이 이거 지어가지고 나 많은 사상이 라면 몇이나 될까 이래가지고 안 한산했는데 회장은, 몇이 서이나 항 사상 있었는가 방, 그 사상등 전부 다 뭐 수입 없다고 뭐 동사무소 가서 저한테그걱 해야 되거든, 개장되려면, 이 사상이 통장에 가가이 사상 이 사상해가 서이 갔는기산, 그 사상등 전부 다 안 가려고 해, 그 물어보고 보수 없다고, 지금 완전 무보수, 완전 봉사산 마.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② ··· 231

## 선생님께서는 다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결혼 알고 있어요.

지구대에서 아동지킨이, 학장초등학교, 유치원, 명성유 치원도 있고 뭐... 그런 데 댕기면 갔다가... 근방에서 경 창복 입고 익하고 있으면 애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 세요~' 해. 그래, 자기등 지켜주는 건 아는가.

# 마을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기는 어떻게 바뀐다. 그것도 없고 여 구치소 있고 이전하도록 기다리고... 구치소등... 뭐 저 지급 장소는 저 저 르네시떼 앞에 그 장소는 마련했는데 언궁 거기서 인자... 방대 해가 데모등 하고 막 이내 못 짓게... 그래서 지급 그것도 안 나가지 싶어. 장재원이 전에 됐다고 그 이전하게 됐다 이나는 그건 거짓않이고, 되도 안 해. 뭐 언제 강지 목사, 인 나가는 거, 학장에 정신병원 구치소 뭐 이전엔 포킨, 포킨수용소가 구치소킨 된 거친, 뭐 그 건 것도 있고... 고 자니 또... 공단도 있고, 특히나 또 붉 은디가 대형아파트들이 안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그 이유가 여 구치소 때문에 그러는 기산, 구치소, 있거 때 문에 고도 제한이 격려서 10층 건묵도 못 뽃나가는 거 나, 그내서 인자 주례 언궁 보모 큰 뭐 20층짜니 아파트 가 확 들어서가 있거든, 여기만 인 인내 돼 있어, 폭 꺼 져 있어, 구치소 때문에, 있거 땐에 큰 건물로 못 지나 하거든, 그래가... 그래 그게 인자 학장 사상 제익 바상이 나, 저거 나가는 거, 저거만 나가도 여 완전히 발전이 돼 버려, 여 마 억수로 큰 건물 다 등어서고 이 지급 근빵 마 동양아파트 쪽에 재건축되고 이렇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 구치소 때문에 지급 이 발전이 안 되고 요 폭 꺼지가 요내 그냥 있는 기나, 예 딱 고거 고 때문에 요 발전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또 구치소 그는 뭐 정인들 상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어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많도 있고 그래 '공원을 짓는다'이런 뭐 그런 게 있어,

##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접지역(엄궁, 감전, 주폐)과 학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언궁은 또 이쪽으로 가니까에 강 바로 옆이에요, 거는 주로 어업 위주나 언궁은, 고기 챙고 재첩 챙고, 학장은 저 농사나, 농사하고 그 어디야 언궁까지는 해봤자 재첩 장사나 뭐야 단숙장사 그런 거 좀 하고, 밭, 밭하고 논농사하고... 많이 문학가 많이 다르지, 그러고 또 학장에는 그 다다며 공장도 있었잖아, 학장이 좀 그 언궁 보다 좀 잘 살았지, 다다며 공장도 있고 닭도 많이, 닭이상 진승도 많이 키워서 다른 사업보다 좀 나았다, 그런데 언궁이 지급 더 좋다, 근데 감전은 특별히 뭐 산 쪽에 붙은 따윽이 거의 없거든, 강, 등판이고, 감전동에는 좀 홍개처런 안전히 공장이 다 등어서가 있지, 홍개 마음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학장이나 이런 마음은 산 밑에 있으니까 좀 낫고, 산 밑에 아파트촌 되고 이나니까 좀 나은데 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장이 다 되어 버렸지,

###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학장 사람들만의 특징?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장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 문 좋고, 구덕, 다른 동네보안 물이 좋아요, 구덕 곡짜기 내려 오니까, 물 좋고 인신 좋았다. 그러 생각하지, 물 좋고 인신 좋은 따음이다. 그러니까 되게 잘 살지도 않았지마 는 어느 정도 인자 묵고 상 정도는 됐다. 농사를 많이 지니까, 뭐 그래 남의 소작을 지서나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하고 그래도 구덕고개 없어 뭐 장사를 하러 강순 있었으니까, 재첩장사 단숙장사 하러 강수도 시내하고 좀 인접했지, 좀 먹지따는 지근 생각해서는 못 다니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가 없으니까, 동네가 인정 많고 그런 동네였지,



# 고향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듣기호 여기에 뭐가 사상 서구 뭐 들어온다고 하거든, 서구청사하고 뭐 구청な් 네 빈 공장들은 인제스마트시티? 이런 거호 만드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지급 공단이 너무 역약한 공단이 많거든, 그래 지급 말한부산 그쪽에 일부 학장하고 일부에다가 저쪽에 삼삭 쪽 감전동 많고 감전 쪽 많고 이쪽, 거기를 만든다 하더라고스마트 그거, 그게 인자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인자언제 된지 모르지, 지급 계획이니까, 그래 학장 있는데공해 없고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

# 지금은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그 자녀를 억국인들이 채웠잖 아인, 연국인들 더 많이 잘 먹지, 숲 같은 것도 연국인들 은 마 그 저기 뭐고 익 갔다 오면 숙도 한 잔씩 묵고 더 장사 장됐지, 더 장됐는데 인자 연국 아들이 다 가버렸 잖아, 외국 아들 전에 바글바글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숙은 싱거우니까 좋은데이는 싱겁고 시원이 좀 세잖아. 정다 그것도 숲이 도수가 싱겁다 그래요. 싱겁다 이래. 그내가지고 이내 몇 병씩, 10병씩 이내 사 갔거든, 그내 억마나 좀 있으면 마대로다 한 마대 빈 병씩 하는데 인 즋은 다 그 사상등 가고 나니까 인자 연국아들 얼마 없 어인 인제, 공장서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인제 공장 에 많이 안 다녀 사람 다 인원수 다 죽여버려. 온 각국 사상등이 다 있으니까 밥 되면 어떡 땐 무섭지, 시커먼 사업 있잖아 그거, 방국, 방국사데시가 스러ሪ카, 시커대 가지고 그 나사는 그 바지 안 입고 치마 펑퍼진하게 그 휙 독려가지고 입고 나온다니까. 여름에 웃통 헉렁 벗고 그나고 '옷 입어, 옷 입어' 이나믄 '안 돼, 안 돼' 하면은 '악았어요' 하고는 땐 처음에 그렇다.

비누 당사 그내 비누 당사 그사마 뭐 목사 그냥 마 이거 이런 거 당사 그래, 이거 이 카거든, 그사은 빵렛비누인가보다, 여 여러 인자 나사 많이 다 다르다 아이가, 그 사마 흉내내가지고 많은, 생강은 이래가 이래 주거든, 생강 이렇고, 그래 이거 많은 못 알아들으니깐 그렇은 그러나 그러거든, 인자 파는 이래가 이나하고 그렇게 해

인, 대학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인제 어떤 거는 자기등이 알하면 좀 기억해가 뒀다가 하고 뭐 그랬지.



##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어떤가요?

우너는 서호 대학도 하고 이내 이 좋은데 아파트는 문 딱 닫고 있으니까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고 꼭 갔옥 사는 거 같더나고, 그내 이내 나가보면 문안 역 면 서호 마주 보고 오늘은 무슨 덕당도 하고 그내 상기 는 나 많은 사업 상기는 좋고 젊은 사업 깨끗하게 상아 야 하니까 모두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입니까, 그내가지 고 우니는 이런 데 만족해요,

아파트 저도 부자등이 아니고 애등이 우너도 맨 처음 이거 애등 이런 데 친구등이 못 데너고 온다는 거예요, 친구등이 놓려 오면 이런 데 뭐 지나간다 하면서 아파 트 아파트 그캐가지고 아파트 총각 때 하나 사줬거든, 사줘가지고 격혼해가 살고 지금은 저기 뭐고 저기 한 사업도 세, 월세로 사는 사업도 억수로 많아요, 살다보 면 우너 현란에 그 아등 집에 간다보면 현란에 그 아파 트 관리비 역선 집을 쫙 적어놨더라고, 다섯 약 역선 집 5 있더라 보니까, 쫙 역선 집을 고 익부러 적어놓데 보니깐 전에 그런 데, 그 사람들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많아, 아파트 가진 사람도 많지만 세 등어 사는 사람도 많고 전세 사는 사람도 많고 다 자기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융자 내가지고 모두 강 사람들 저주택지로 많이 내려완 지급, 어 지급 경기도 어렵제, 월급도 잔업 해야 되는데 잔업도 못 하게 해놓으니까 사는 물가는 비싸제, 거기 상다가 밑에 내려운 집 많아요.

# 앞으로의 바람

여기가 지근 너무 빈집도 많고 저번에 경성대서 악가 지고 여흥 발전 시키준다고 뭐 우째가지고 뭐 집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그런 건 한다고 했는데 지근은 익적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묵어보니까는 이 계획이 다 은 동으로 가뻐졌다 그러더나고, 다른 동으로 가뻐졌다 고 이 저기 그 뭐고 빈집이 많으니까 이 터를 입 또 5 익장 있잖아요, 이 땅 주인 따린 있으니까 이겨 좂 이내 이내 빈집등은 이내 좀 해가지고 좀 무슨 그거 한 수 있 는 거 그런 걱 해줬으면 동네 사람들 바람이에요, 우리 는 집 방도 안 나가고 빈집도 많고 이러니까 이겨 좀 때 입해가지고 요 5억장이 크잖아요. 평수가 크니까는 이내 빈집을 좀 매입해가지고 뭐 공원을 짓는다든가 무슨 건 물 세워진다거나 그런 걱 좀 했으면, 집주인 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지급, 지급 저 푹 밨진 집에 그 당장성 쿡이나 하는 그거, 싹 있더나 아입니꺼, 빈집에 아무도 안 살어 빈집, 사상이 안사니까는, 전에는 다 살았거든

우너도 강천문학마을처럼 집도 좀 아름답게 꾸며고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모두 바끊이나, 사는 사람 그런 기 바끊이에요, 집도 좀 꾸며고 이거 그렇도 그너고 따 이내 걱어가면 사람이 좀 살맛이 나는데 뭐 이 전신만 신 빈 집이고 풀만 쫙쫙 나고 이내가 논께 에...대학생등 이 저번에 따 저번에 안서 좀 그렸어 근데 껍데기 다 벗 겨져 버렸거든, 벗겨진 거 다시 벽한도 이내 이내해주고 그러면은 동네가 좀 살아날 거 같은데 그내가 좀 그렇 게 그서 좀 해당나고 건의를 해보세요.

# 토속음식점을 경영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단 손님이 이렇게 ස으로써 인해가지고 또 어떤 그 거 되는, 그때 그 뭐야 근융계통이상든지 그 뭐 공무원이상든지 이런 쪽에 손님이 계속 유입됐죠. 처음에 오너 흥 고집핸 게 아니고 처음에 소강비흥 했었어요. 이런 집응 지어가지고 그 오너하고 소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아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이아등 접대하는 곳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뭏은 여 밑에 집에도 메뉴가 다 당았어요. 근데 우너 집에는 고집했던 게 소고기안 고집했어, 소고기 강비흥 했는데 강비안 하더나도그 당시는 단가가 높으니까 예. 접대 손님으로서는 그기아주 혼응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하다가, 아... 이 소고기안 해가 된 게 아이고 일반 손님들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도 뒤에 했지라는 오너고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장사가 없청나게 작됐어요. 죽음 서서 먹었음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 앞으로 학장과 구덕마을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인자 이 지역을 지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또 업을 하니까 지역에서 구에서 뭐뭐 구청에 관공서에서 된 다이 도안주고 또 저도 저 나는대로 확동을 또 많이하고 있고 또 지역에 동문에서도 많이 도안주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근도 내가 저 집안에 장손이 다보니까 대대로 상다 보니까, 지근도 그거를 느끼고 아이 지역을 나는 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어 그런 자

부신을 가지고 지급까지 생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 자식등도 자식등은 묵혼 지급은,,,다 다른 데 나가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마는 나는 아직 그 뭐 대대로 묵려받은 그런 그 저,,, 물니까, 그런 그거를 아직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급 요번에도 우시 학장에 한 4,800세대가 지급 협성 르네상스 건석이나고 양값 부산에, 큽니다, 이건석업체가, 바로 요 명선병원 있잖 뒤에 4800세대가계획을 다 な아놨어, な아가 그게 뉴스테이나고 우니 지급 박근혜 대통령 그... 뭐야 정부 때 전부 시행을 하려고 전부계획을 다 な아놨는데 지급 그 주면등이 고 따을 주면등이 그 몇 사냥 그격로 인해가지고 그 뭐 이내부추기가지고 어 보상도 그렇고 뭐 이거를 딱 부추기가지고 캔슬이 되가 무산이 되뿌써 대신 아파트 바로 뒤에 그쪽, 요 산... 그렇지, 아이 붉은 디가 아니고 붉은 디는 저쪽이고 요요 대신아파트 뒤에, 바로 요 앞 능선 있잖고 익대, 이 익대 4,800세대가 들어오른 우니 여기에 사상구가 확 당나집니다. 4,800세대, 인구가 억압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면은 여기 익대가 산복도로도 나고 어마어마하게 개방되는데 익부 사업등이 이 부추기가지고 지급 그기 있번에는 무산이 되뿌써, 그런데...그래가지고 저기 무산됐지마는 저기 앞으로도 또 아마 재추진하지 싶은데 저런 기 자꾸 등어만야 사업등이 익단 유입이 돼야 그 동네가 방전이 있고 구가 방전이 있는 거 아입니까, 그래서 지급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다. 그 우녀 사상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등, 내가 함 만나복ば니다, 당신등은 표흥 의식해가지고 그걱 반대층하거든, 그 주면등 위해 가지고, 표흥 의식해 반대하지만, 아이 그런 거 여기 등어만야 사상구 방전되는 거 아입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급정말 그런 게 유입돼야 있고 많이 등어만야 확 당나진 다고, 언청나게 방전이 됩니다.

# 선생님이 다니는 노인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노인정? 여기 여여... 처음에 인제 등어온 적에 만 원내면은, 만 원내면은 함투 치고 뭐 숙 먹고 이나다 보면 그 자급이 모자나거든, 그면 내 오늘 만원 내게 하면 만원 낸다고, 니도 만원 내고 이러다 보면 돈이 한 5만원 되면 2만 몇 천원 주면은 소주 한 박스 등여놓고 뭐고 안주가 없네 내가 오늘 돼지고기 한 근 사가오마 그래서 인제 십시익반으로 돈을 내가지고 숙 한 잔 먹고... 그 동사무소 나오는 게 있어, 한 당에 26만 원 나온다. 쌀 한 포대 하고 그래 나온다고 하더라고, 거 구조는 이쪽에는 할머니 있고 요쪽에는 할아버지 있는 데거든, 처음에 갔던 데는 할머니 있는 빵이고, 고 옆에 보면 할아버지등 노는 빵 또 하나 있어.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242$ 

# 최근에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 있나요?

혼자 하는 거는 벽힌 없어, 인인 개곡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댕기고 그 뭐 내 나이 정도 되면 노인 익자니 나는 거 있거든, 노인 익자니, 저 당력에 보면 있지마는 한 당에 역 번 가야 돼, 원, 수, 긊으로 해가지고, 한 당에 역 번 가면은 27만 원 준다고, 원, 수, 급 한 당에 역 번 가면은 돈을 줘. 9시 방에 동사무소 가면 이흕 붕리고 A, B, C조로 해가지고 서로 헤어진다고, A조는 이니 가나 B조는 이니 가나 이니이니 가면 그내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익하면 고마 4일만 하고 오거든, 가면 각가에 담배 꽁초하고 휴지등 굽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하천에 푹 같은 거, 베는 거는 공공근호 하는 그건 또 젊은 사상들이 하는 기고... 우리 같이 나 많은 사상은 벽로 그러 안 많 지마는 그런 사람은 각가 댕기면 인제 집게 가지고 당 배꽁초 줍고 휴지 같은 거 줍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러니까 그냥 놓고 돈 주면 그렇고 해가지고 인제 그거나 도 시키고 인제 돈 주는 기지 뭐, 그래하면 좀 한 당에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나는 나오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거든, 국먼연급하고 노인 익자니하고 한 3가지 정도 되니까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뭐... 용돈으로 생기니까.

앞으로 마을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세요.

뭐 벽힌 좋은 게 있겠나 뭐... 주힌 딱 쉽게 땅해서 인

제... 운동 가면은 냄새... 공장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사상 다른 데로 빨리 이사 가고 공기가 좀 맑았으면 좋겠다. 공장이 아직 마이 있어 저기... 도상 옆에 다 옆으로 공장들이 지급... 조그만 거 인제 가내공업 이런 게 억수로 많다고, 그 적에 그것도 있었어. 그 뭐고 몇 개 \*\* 나는 거, 근데 거기가 연산 공장이라카는 데 연산에 그 빠지면 먹거니 대놓고 다 썩는다는 그런 공장이라. 그 냄새가 억수로 마이 나거든, 그 공장들이 좀 정리가 돼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깨끗한 게 좋으니까.

# 새밭행복센터 까페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나요?

아, 저기 위원장하고 우니 같은 계원이었거든 인, 내나 인자 애들도 같이 키우면서 그냥 언마들끼니 모였지, 그 위원장 땅이상 우리 땅이상 같은 학교 다녔거든. 학부형 모인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 집 땅이 더 나이는 더 많지, 더 많은데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니 까... 그래서 모인을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자기는 여기 위원장 말고 나서는 엄청 바빴거든. 바쁘니까 이제 요 계에서 자기가 빠진다. 그러더라고, 인 익이 바빠서... 그 내가지고 한 2년 2, 3년 빠졌어요, 그내가 그때 벅써 자기는 여기 위원장으로 온다고 안 그래도 그런다고 땅 응 하더나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인제 커피 마시러 인자 마 악보나고 어떻게 전함 한 번씩 안... 그 당시에 우니 는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몫샀어요. 꼭 이유도 없고 저기한만 다니니까 새밭 여기는 근처나도 아예 오 도 않았지, 그랬더니 위원장이 한번 완보나고 하도 그래 서 한 번 있지, 있더니 이거 하고 있더나고, 그러면서 자 기 악서 뭐 그 당시만 해도 운영위원등도 없고 할 때 존 가입 좀 해당나고 딱 그때... 그게 한 2015년 정도? 목사 그내가지고 하이튼 여기 가입 좀 해당나고 그내가지고 운영위원이 그 당시만 해도 6명인가 밖에 없더나고, 내 가 오면서 3명을 같이 데려왔어, 내하고... 같이 그 무니 같이 있어. 같이 안가지고 하면서 그거 했어. 여기 인제 바니스타가 없다고 좀 해당나고... 그래서 배웠잖아요. 그 걱 여기 동사무소에서, 아니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면 자 기네들이 지원해주더라고, 배웅 돈을 주대, 돈을 주대, 그내가지고 우니 언마들이 우니 그 턳등 3명하고 다른 쪽에 언마 둑이 하고 우시 4명인가 5명? 같이 우시 그 배우러 다녔지, 그래가지고 그때 안가지고 좀 해당나고 해가지고 익주익에 한 번이니까 해주지, 우시 어차피 집에서 뭐 그다지 그거 하지도 않고 노는데... 그래 놓아도 바쁘기는 했었지, 그래서 인제 요익 정해가지고 독아가면서 하루씩 반주기로 했지.

#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한다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마윽이 좀 변하면 진짜 좋잔, 근데 그렇게 잘 안 변해 인, 내 저번에도 그분등 얘기할 때 학장 저 시장 거기, 너무 진짜 보면 귀신 나꼭 거 같잖아요. 저기 큰송병원 옆에... 정말 거만 바뀌어버려도 언청나게 많이 딱 등어 오는 입구가 그래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냐고. 근데 저기 안 된다 그러대, 바뀌기 안 쉽다 그러더라고, 뭐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 온 따로 마 너무 사람이 많 아가지고 얽히고석켜 가지고, 지급 저것만 되면 얼마나 좋노, 큰속 병원 옆에, 그러니깐 학장동 그쪽이 딱 그것 안 바뀌가지고 시장만 딱 이렇게 해줘도 정말 좋은 건 데... 시장이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서더래도... 거기 정 않 지저분하잖아인 그 존 어떻게 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카더라고, 다 특이다 그더라고, 그래서 우이가... 손은 못 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깐 학장동이 정 않... 지급도 저 부산 시내나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집? 우리 언니 얼마따나 '야 느그 집 쪽으로만 오면 밖에 무섭더나' 이러면서 구치소 쪽 건너서 딱 오면 무섭대. 북빛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바뀌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되는가 보더나 고, 뭐 좂 이건 재개방 하고 다 있고, 사감 사는 느낌이 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공장등도 존...

## 사발행복센터 활동은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되셨나요?

새밭은 원내는, 원내는 이 주택에 사는 사상등이 여기 주가 돼야 되거든예, 운영위원이, 근데 우너는 다 아파트 사는 사상 등이나 어제 아례 추며자도 그렇고, 근데 추며자하고 또 한 애하고는 원래 위원자하고 우니가 친분이 있었어예, 계모인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가…지가 딱 도만당나고 우니보고 존그랬었어예, 그래서 우리 3명이 등어왔어예, 등어안가지고 그래 확동을 했는데… 그 지한테 힘이 좀 돼당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위원자이 같이 존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도안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온 거지우니가 뭐 볕에 따음을 이런 건, 따음이 있는지도 목섰어예,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 털에 내려올 익이 없으니깐, 꼭 익도 없고 하니깐… 그만큼 상았어도 목섰어, 이 따음 있는 중은 목 었어예, 식제로 지급 여기 이 행복카페가 생겼지다는 위에 아파트 사상은 여기 모습니다, 모르는 사상 많아예, 카페 있다는 사식조차 모르는 사상도 많아예.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cdots 247$ 

## 앞으로 학장동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나 희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지급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도 오고 서부산 청사도 등어온다 그나고 그 좀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앞으로 요기 지급 지하철도 등어오잖아요, 공장이조급 격너죠, 도시가 원내 옛날에부터 그랫잖아, 강흥끼고 있는 도시는 언젠가는 발전을 한다 하더나고, 어차피 여 공장등은 주택, 아파트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이띠여기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주를 못 시키더나고요, 사식 그런 게 조급 그렇지, 어떤 때는 여 아직도 낸 새도 딱 똑나오고 이렇거든예, 아마 몇몇 그런 공장이었나 봐요, 항상 무슨 건사도 하고 이내 하던데 완전히사나지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더? 사식 먹고 살고 하는 것도 공장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환경적으로 그렇게 안 좋으니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밖에서 보는 학장동-3

변항안 행복



학장동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변화를 바랬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의 바람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학장동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는 잃어버린 아름다운 자연을 행복이라 말했다.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던 학장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금이 조금 슬프다고 말하며 행복을 위해 푸른 숲, 시원한 바람, 맑은 물이 돌아오길 원했다.

또 어떤 이의 행복은 너무나 소박했다. 목욕탕이 있었으면, 따뜻한 물에 마음 편히 몸을 담글 수 있다면 행복할 거란 말은 사뭇 철학적으로 들리기까지 했다.

다른 이의 행복은 아파트였다. 높이 솟은 아파트가 행복의 척도는 아닐지라도 아파트 안에 살고 있을 많은 사람의 복작거림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다. 4,000세대가 넘는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cdots 249$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학장이, 사상구가 살아 날 것이라 말했다. 그렇게 되면 관청도 들어서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저기 구치소가 사라지고 공원이 생길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곤 누군가 한 마디 덧붙인다.

'벽화도 그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벽화를 그리면 마치 그림처럼 마을이 변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 것일까?

이처럼 학장동 사람들의 모든 행복의 공통점은 변화였다.

누군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변화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보다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얻어지는 현재의 행복을 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떤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까?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에 학장동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현재를 바꾸는 일. 그래서 누군가는 바리스타가 되고 누군가는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통봉사를 나선다. 혹 밖으로 나서지 않고 거창하게 남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변해야 마을이 변할 거란 믿음은 모두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cdots 250$ 



최근 학장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상 공단이 침체되어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행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사상공단이 197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후 시설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해진 곳에 대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거점시설을 조성하는데 학장동이 그 중심에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학장동 내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과 비즈니스센터,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여 실질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정주환경을 개선 하고자 한다.

동시에 낙후된 서부산권의 도심접근 교통망을 개선하고 그동안 침체된 서부산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괘법동에서 하단동 일원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의 확장은 학장을 비롯한 감전, 엄궁 일대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주민 들의 주거화경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사상공단으로 인해 오염되었던 학장천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새뜰사업'을 실시하여 사상공업지역의 쇠퇴와 함께 도시근로자 이주 등으로 도심 속 오지마을로 변한 새밭마을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사업 시행 등의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학장동 구덕마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의 자생 가능한 종합마을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 사상구의 이러한 노력에 학장동 주민들역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 학장동 구술자료 해제

차철욱(부산대)

## 1. 부산 지방사 연구와 방법론적 전환

## 1) 부산 지방사 연구와 한계

부산 지방사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62 년 12월 부산시의 『항도부산』 발행이 중요한 계기였다. 1960년대 부산지방사 연구는 부산 근대의 기원을 보여주는 경제와 근대시설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사로는 공업, 수산업, 무역 등 1960년대 당시 부산 경제와관련성이 많았던 분야의 연구가 중심이다. 근대시설과관련한 매축사업, 서양식 건축, 종교 등은 당시 잔존하고 있던 시설의 정리 수준이었다. 이 시대 연구는 당시존재하던 자료를 토대로 한 정리단계였지, 구체적인 의미부여는 미약했다. 있었다면 식민지 수탈의 유산이라는정도였을 뿐, 수탈의 양상을 구체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1970, 80년대 연구의 주류는 3.1운동이나 박기종, 윤 상은, 안희제와 같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였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 국가사 연구에서 일제의 수탈론과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안된 민족주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부두노동자의 파업투쟁이나 개항기 관세권 철폐투쟁 등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부산지배와 관련해 수탈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사례로 추가되었다.

부산지방사 연구의 분위기가 변하는 계기는 1990년 대부터였다. 1980년대 말 근대사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 면서 연구자들이 증가했고, 여기에 1994년 부경역사연 구소의 창립은 지방사 연구 분위기를 촉진시켰다. 이 시 기 가장 특징적인 연구분위기는 기존 민족해방운동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주제가 연구 대상이 된 것 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하는 '민중사학'의 분위 기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역사의 주체를 지배자에서 민중으로 돌려세움으로써 이들에게서 역사적인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근대사에서는 민족 해방운동의 주류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사회주의자 계 열의 활동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의 영향을 받은 대 중운동 즉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게다가 대중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분 석해야 한다는 이론적 필요성에서 공업, 금융, 조선인 자본가 등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성과는 그동안 주류학계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내용들이라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특히 부산에서 진행된 이들의 연구는 부산이라는 특정 지방의 프리즘 을 통해 들여다봤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 시기 연구는 '민중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민중사학에 기반했지만, 식민지시대를 수탈론의입장에서, 저항의 역사로 바라보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부산은 일본인이 만든 도시였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곳이어서 저항 또한 어느 지방 못지않게 거셌다는 논리로 부산을저항의 도시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저항의 도시는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6월항쟁으로 연결되는 저항운동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런연구의 분위기는 민중의 혁명성을 강조하고, 민중 주도의권력을 창출하자는 또 다른 국가사의 한 방향이었을 뿐진정으로 부산의 시각에서 고민한 연구는 아니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부산 지방사 연구의 새로 패턴 이 등장했다. 기존의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모습 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 조선인들이 저항하고 수탈당하는 모습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지배자에 위치했던 일본인들에 관심을 가졌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경역사연구소, 동아 대학교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 연구팀 등에서 일제시기 일본인 사회, 일제시기 『부산일보』를 통해본 지역사회. 경부선·관부연락선 개통 100년 학술회의. 근 대 박람회 개최 100년을 맞이해 박람회 관련 학술대회 를 마련하였다. 일본인 사회의 분석을 통해 부산의 역사 에 조선인의 저항만이 아닌 부산에서 살던 일본인들의 생활도 포함시켜, 부산을 근대도시로 바라보려는 노력 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종착점 또한 부산의 근대화가 결국은 일본인들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라는 데 이르렀다. 이 시기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민 중민족주의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거셌지만, 여전히 국가사 서술의 보충으로서 지방사 연구라는 틀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2) 지방사 연구와 방법론 전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관광산업의 발달은 지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새로운 역사학 연구의 흐름, 즉 기존 거시적인 국가사나 민족사로환원되지 않는 다원적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1) 이처럼 지방사 연구의 관심은 역사학계, 지방자치단

<sup>1)</sup> 허영란,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지방사를

체, 자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지방사 연구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홍보와 상품화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발굴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사 연구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사 연구는 지역 상품화를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지역정체성 모색으로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사는 특이성, 유일성이 강조되고, 국가 차원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데관심이 많았다. 임진왜란, 왜관, 식민도시, 임시수도 등은 이러한 방향에서 부산의 정체성과 관광 상품화에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 APFC 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부산 방문과 홍보의 필요성에서 지방사 연구는 부산 정체성 발견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사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는 기존 역사학계가 지향했던 국가사 중심의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서구에서 유행하던 이론들의 수입과 관련이 크다. 그 가운데 신문화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방법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민중사나 '밑으로부터의역사'에 대한 지향, 역사 대중화의 요구, 탈민족, 탈근대의 역사학에 대한 모색 등 한국 역사학계가 직면해온 현실적 고민들이 역사연구에서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허영란은 '문화사적 전환'이라한다. 신문화사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와 현상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개인적 지역적 경험의 역사화,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 매체, 담론, 표상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흐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지역사의 위상과 방법적 가능성의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2017, 6쪽.

름이었다.<sup>2)</sup> 즉 제도,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이러한 신문화사 연구는 생활사, 일상사, 민중사, 지방사 등이다.

신문화사 연구의 관심이 개인의 생활세계이기 때문에 생활사나 일상사와 관련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성사나 미시사, 구술사 연구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를 필요로 한다. 질적연구방법이란 양적연구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인간세계의 많은 현상을 다루는 한 방법이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3) 인류학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은 현지조사이다. 연구기술로서 참여관찰, 심층면접, 생애사 연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사 연구에서 신문화사 연구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출발과 관련이 있다. 지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에 의해 규정되는 행정단위이다. 따라서 중앙과의 관계는 위계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적인 관계는 끊임없이 지방 내부의 작동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생활하는 삶터는 외부에서 규정하는체계에 의해 단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물론 지방은 중앙의 지배원리가 중요한 작동원리이겠지만, 그 내부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항시 용납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대표적

<sup>2)</sup> 허영란, 「한국 근대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역사 대중화, 식민지 근대성, 경험세계의 역사화」『민족문화연구』53, 2010.12, 68-69쪽.

<sup>3)</sup>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18쪽.

으로 지방민, 지방민들이 만드는 사회적 관계, 지방의 자연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또 다른 요소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은 결국 지방이라는 하나의 행정단위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무시한 경계를 넘나드는 단위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독자성, 공존과 상호작용이 하나의 단위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이라 함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단일한 논리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독자적인 논리도 동시에 공존하는 유기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하는 지방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미시적인 관찰을 하지 않으면 '실재하는 지방'을 이해하기란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사적인 논리 혹은 동일화 논리로 지방을 해석하는 것은 '실재하는 지방'의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지방사 연구를 위 한 또 다른 방법론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이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지방'연구의 자료발굴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자료가 주요한 연구자료였다. 이 보다내용이나 인식의 폭을 넓혀준 자료는 신문이나 잡지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자료의 생산주체는 대부분 국가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방이나 지방민들의 삶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설령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시각에서 서술될 뿐이었다. 이들 자료를 근

거로 한 지방사 연구란 '실재하는 지방'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재하는 지방'의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지방민으로 하여금 지방에 관철되는 국가의 위계를 극복하고 지방의 가치를 재인식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민, 기층민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민의 이야기를 자료로 활용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지방민들이 직접 생산한 자료, 일기나 생활자료, 구술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부산 구술사 연구의 동향

## 1) 구술사라

구술사 개념은 구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기록관리사가 구술사를 주도한 미국에서는 '구술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 반면 역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 밑으로부터 역사를 쓰는 작업"(톰슨)이라 해서 채록된 구술자료와 이를 활용한 역사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술이 지니는 특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포르텔리는 "구술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이 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화적인 담론"이라 해 구술자와역사가의 공동작품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구술자료의 채록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술사를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한국 구술사 연구의 중심 인물인 윤택림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쓴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4) 서구의 논의나 한국에서의 이해방식도 구술사를 구술자료와 여기에 기반을 둔 역사서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술사는 구술자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생활경험을 채록자(역사연구자)와 상호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공동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구술사는 새로운 역사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구술사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경험 했던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자리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문헌자료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었던 부류의 하층민들은 구술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목격한 사실을 기억해 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쓰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그리고 구술사는 그동안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 했거나, 무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구술사는 기존의 역사쓰기가 지니고 있는 권위주의에 비판하고 도전하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구술사는 과거 사실을 찾아 헤매는 역사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있었던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가가 기록한 사실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역사적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가가 추구하는 사실의 복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있다. 그렇지만 구술사는 미완성의 역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자에게 구술사는 부족한 사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5)

<sup>4)</sup> 윤택림, 위의 책, 48쪽.

<sup>5)</sup>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 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쪽.

그런데 구술사가 과거사실을 밝혀내는 사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주관성을 떤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다. 구술사는 개인의 사적, 주관적 경험을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드러내는 문화적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주관성이 객관적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술자가 믿고 있는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역사 연구가 추구하는 과거사실에 대한 탐구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술사는 구술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은 구술자의 경험을 연구자가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구술은 항상 당시의구술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분, 느낌, 희망, 절망, 가치, 기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들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좌절된, 폭력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술자들에게 인터뷰는 그 경험과 함께 억눌렸던 잠재된 감정까지발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6) 따라서 구술사는 단순히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는역할을 한다.

한편 구술사는 연구자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구술사는 구술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했다. 구술의 과정은 구술자만이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공감 속에서 진행된다. 연구자의 요구가 구술자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구술자의 삶이 연구자로 하여금 인간 삶의 다양함에 눈뜨게 만든다. 구술과정에서 연구자 또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sup>6)</sup> 윤택림, 구술사 인터뷰와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 학연구 30, 385쪽.

# 2) 부산 구술사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구술사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시리즈를 출발로 보고 있다. 이후 1980, 90년대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구술작업은 1989년 제주 4.3 연구소의 4.3관련 구술자료집의 발간이라 할 수 있다.이 무렵에는 구술자료가 역사학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규명 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구술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구술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 무렵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는 구술사업의 필요성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9년한국구술사학회가 탄생하였다.

한편 부산에서는 구술사 연구가 중앙과 비교하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부산의 학문적 토대가 구술사 관련 연구자 양산을 가로 막았다. 부산 경남지역의 대학에는 현장조사와 참여관찰을 주요 방법론으로 하는 학문 영역인 인류학 관련 학과가 없었다. 사회학에서 일상사를 연구하는 그룹에서 부분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2000년을 전후 해 인류학 혹은 민속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부산에 기반을 잡으면서부분적으로 구술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부산학 발전을위한 분위기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인 인문한국(HK)지원사업은 대학 내 연구소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2007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로컬리티 인문학',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해항도

시의 문화교섭학' 등은 부산학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문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연구단에서는 피란민, 해녀, 화교, 사할린 영주 귀국자, 산동네, 마을 등 그동안 부산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주제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대학 내 연구 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2009년 문학, 인 류학, 민속학, 역사학, 언어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 출신자들이 '부산구술사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각 자 부분적으로 구술사를 방법론으로 개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거나 이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한 연구 자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연구회는 정기적인 만남 을 통해 구술조사 방법을 공유하면서 사례조사를 위해 부산시 서구 아미동을 첫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창기 에는 주로 회원 모두가 함께 다니면서 마을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구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분위기 가 익숙해진 이후에는 팀별로 공간을 나누어 구술작업 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연구원 사이에는 구술작업의 경 험에 다양한 편찬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가 성과물을 생 산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2011년 부산대학교 한국민 족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離鄕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 미동 아미동 사람들』을 출판하였다. 이후 연구회는 부산 임시수도기념관이 기획한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 (2014),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하야리아』(2015) 사업 에 참여하였다.

한편 2010년은 부산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 스사업'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이사업을 계기로 산복도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산시 도시창조국, 시사편찬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구술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부산의 구술사는 2010년을 전후한 대학 내 연구 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구술사료 수집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진행된 부산의 구술자료 수집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술 조사자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연구성과 발표에 매달려 일회성 조사가 이루어질 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술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구술 자료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술자료를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해 후속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7)

# 3. 학장동 사람들의 생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은 1914년 학성리, 장문리, 구덕리 3개의 자연마을을 통합하면서 생겨난 '학장리'에 연원한다. 학성과 장문 두 마을은 사상지역의 고문서인

<sup>7)</sup> 배은희,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9-50쪽.

『사천면전답재결영탈책(沙川面田畓災結永頉冊)』(1775년)에서 확인되고,『사상면호적중초(沙上面戶籍中草)』(1888년)에 구덕리가 추가되어 있다. 학장리는 1914년 동래군 사상면에 속했다가 1936년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5년에는 부산시 북부출장소에, 1978년에는 북구 학장동이 되었다가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되면서 편입되었다.8)

학장동은 뒤쪽으로 구덕산과 엄광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구덕천 의 물줄기가 학장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리고 낙동강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학장동 사람들이 낙동강에 의존해 생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가를 즐기기도 하였다. 학장동의 전통적인 산업은 농업이었다. 주로 논농사가 중심이었는데, 지형적인 조건도 논농사에 적당하였다. 하지만 학장초등학교가 위치한 홍개마을은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잦았다. 자연환경 이외 근대화 과정에서 학장동의 경관은 크게 변화하였다. 1974년 준공된 사상공단은 주력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와 구덕터널 건설, 주거지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1973년 이전되어 온 주례구치소는 주례동에 위치했으나 학장동 경계에 위치해 마을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sup>8)</sup> 부산광역시,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2010, 272-273쪽.

학장동 인구변화

년도	가구	인구		
		총계	남자	여자
1967	329	1,744	880	864
1970	452	2,355	1,160	1,195
1973	844	3,959	1,560	1,575
1976	2,174	10,114	5,337	4,777
1979	2,658	12,093	6,122	5,971
1981	3,485	15,955	8,178	7,777
1984	3,673	15,807	8,177	7,630
1987	4,947	20,520	10,531	9,989
1990	5,390	20,404	10,499	9,905
1993	9,267	33,173	16,935	16,238
1996	11,162	37,469(724)	18,945	18,524
1999	12,143	41,924(701)	21,399	20,525
2003	12,455	41,398(574)	21,180	20,218
2006	12,276	39,009(602)	20,027	18,982
2009	12,259	36,986(603)	18,880	18,096
2012	12,133	35,034(786)	17,949	17,085
2015	12,396	34,214(840)	17,486	16,728

자료: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판.

참고: ( )안은 외국인 수.

학장동의 인구변화를 보면 1960년대는 2천여 명 전후였다. 그러다가 사상공단이 준공된 1974년(6,239명)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상공단의 운영과학장동 인구증가가 연동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인구증가는 1983년 동양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이후1990년대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서 또 한번 커다란 변화를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해 사상공단이 축소되면서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 4) 구술자료를 통해 본 생활

## (1) 학장동에 살게 된 사람

성명	출생년도	출생지역	직업	비고
강옥순	1961년	학장		
신차연	1941년	학장		
김문자	1945년	일본	양장점	해방 후 붉은디 이주
박영조	1942년	일본 오사카	환경미화원	해방 후 이주
조용만	1953년	학장		
이영순	1950년	경남 합천	구멍가게	1970년대 이주
강승봉	1959년	학장	식당영업	구덕마을 출생
심상범	1941년	경북 청송	목재공장	1986년 감전동에서 이주
추미자	1963년	전남 고흥		1990년경 이주
권영옥	1958년	경북 경주	세명사	1988년 이주

본 자료집 구술자는 총 10명이다. 여성 6명, 남성 4명이다. 나이도 1940년대 생이 4명, 1950년대 생이 4명, 1960년대 생이 4명, 1960년대 생이 4명, 1960년대 생이 2명이다. 출신지를 보면 학장에서태어난 구술자는 4명이고, 나머지 6명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주민들의 출생지 또한 일본이 2명, 경남 1명, 경북 2명, 전남 1명 등 다양하다. 일본 출신은 해방직후 부모님의 이주에 따라와서 정착했고, 나머지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다양한데, 사상공단의 운영과 일정 정도 켸를 같이 한다.

학장 출신 가운데서도 살아왔던 공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강옥순, 신차연은 본동, 조용만은 홍개, 강승봉은 구덕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다. 김문자는 해방되던 해 태어났는데, 외할머니와 이모 식구가 살고 있던학장으로 들어와서 붉은디에 터전을 잡았다. 아버지는일본에서 요리집 점원으로 일했는데, 귀환 때 가지고 온돈을 이모부에게 빼앗기고, 겨우 마련한 다섯마지기 농

지에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살았다. 박영조는 숯을 구워 팔던 아버지와 해방과 동시에 부산으로 나와 할머니가 살고있던 학장에 정착하게 되었다. 박영조 또한 붉은디에 살았다. 일본에서 일본화폐를 가지고 왔으나 사용할 수가 없어 힘들게 살았다. 어머니께서 식혜와 재첩을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

이영순은 합천 야로에서 태어나 결혼하였고 남편과 양복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당시 기성복이 출시되면서 할 일이 없어 친척의 소개로 학장 반도보라아파트 부근 에 정착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주 직후 책 외판원을 했 으나 3일 만에 그만두고, 막노동을 했다. 막노동으로 번 수입으로 점포를 얻어 구멍가게를 시작했다. 학장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먼저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 던 친척의 소개로 가능했다. 심상범은 경북 청송에서 태 어나 결혼 후 대구를 거쳐 부산 감전동에 와서 무늬목 만드는 흥하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부산으로 이주 한 것도 외사촌 매형의 추천이었다. 1986년 금성사료공 장이 있던 곳에 건축된 아파트로 이주해 왔다. 추미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사촌 언니의 소개로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 후 1990년 무렵 학장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권영옥은 경주 안강 출신으로 동네 오빠와 결혼한 남편의 직장을 따라 부산 으로 이주했다가 1988년 학장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 (2) 학장동 풍경의 변화

### ① 남겨진 옛 지명

학장동에는 크게 본동, 붉은디, 홍개, 새밭, 구덕 등 마을 이름들이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마을 공 간에도 등급이 있어 상중하로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 본 동이 가장 잘 사는 마을이었고, 붉은디, 새밭은 최하위 마을로 기억한다. 강옥순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본동사람, 새밭사람 구분이 있었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학장동에서 가장 중심 되는 마을은 본동이다. 장문안으로도 불려진 본동은 학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며, 전통적으로 유지들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양반마을이라 한다. 본동은 또 웃각단, 아래각단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였다. 웃각단에는 신씨가 아래각단에는 박씨가 많았다고 기억한다. 학장에 유명했던 도살장은 웃각단에 있었다. 웃각단과 아래각단의 구분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본동에는 포구나무가 있었는데, 구술자들 가운데 포구나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릴 때 여기서 놀았던 기억을 구술하기도 했다. 강옥순은 아버지 세대 때 학장천으로 배가 들어오면 포구나무에 묶었다는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

새밭마을은 하천부지로 국유지였는데 집을 하나씩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엄궁 방향에 위치한마을인데, 큰 개울이 있어 겨울이면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였다. 스케이트는 홍개마을과 학장 사이에 개논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많이 놀았다고 한다. 1975년 무렵 새밭으로 이주해 온 이영순은 당시 복숭아과수원과 논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은 그다지 거주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주변으로 냇가가 있어 물이 흘렀다. 냇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 집 안으로 뱀이들어올 정도로 지금과 다른 풍경이었다. 마을 위에는 솔밭이 많아 솔밭이라 했는데, '큰솔병원'은 명칭에서 과거의 이곳이 어떤 장소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세원로타리에서 주례쪽 방향의 장소를 학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는 전통마을이지만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다. 학성 부근 동양아파트가 위치한 곳을 붉은디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붉은디가 경제적으로 제일 수준이 낮은 마을로 기억하고 있다. 동양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부자들이 이사하게 되면서 이미지가 변했다. 붉은디는 뒤쪽에 위치한 산의 흙 색깔이 붉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홍개는 학장초등학교 주변을 말한다. 공단으로 가득차 있다. 지대가 낮아 물기가 많은 곳이었다. 낙동강에 가까워 비가 많으면 범람이 잦았고, 그러면 농사가 안되었다. 갈대밭이었던 이곳을 마을 사람들이 농지로 만들었다. 신차연은 이곳에 여섯 마지기(900평)의 논이 있었다고 한다. 학장초등학교가 이곳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불편했다. 학교 주변은 전부 논과 밭이었다. 참외, 오이, 무, 콩 등이 재배되었다. 야채밭을 지나는 어린애들이 조금씩 하나씩 훔쳐 먹기도 하였다.

구덕마을은 진주강씨들의 집성촌으로, 15대째 여기서 살아오고 있는 강승봉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구 덕마을은 학장 사람들이 구덕고개를 넘어 남포동이나 대신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으 로 현재 본동 뒤 대남요양병원 근처이다.

구덕마을의 존재는 오래되었다. 강승봉의 할아버지 대 구덕마을은 비탈진 곳이지만 계단식 논이 있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머슴 5명을 고용해 농사지을 정도였으니까 적지 않은 농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을 지나는 계곡물도 맑고 깨끗해 민물장어, 털게 등이 잡혔다고 한다. 그런데 구덕터널이 완공

되면서 계곡물이 줄어들고 생물들이 사라졌다. 강승봉이 어릴 때 구덕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넘어 대신동 운동장 앞에서 전차를 타고 자갈치시장을 왕래하기도 했다. 남포동으로 영화 구경을 자주 다니기도 했다.

오늘날과 같이 식당이 많이 등장한 것은 사상공단의 조성과 관계가 많다. 강승봉의 기억에 의하면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외국 바이어들 접대가 많아지자 구덕마을에 식당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서면이나 남포동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구덕마을은 산속이라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게되었다. 강승봉은 1985년도에 구덕산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사상공단을 찾는 바이어들을 접대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주로 소고기를 주 메뉴로 했다. 하지만 학장과 인근에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고객층이 다양해지자 메뉴 또한 돼지고기, 오리고기가 추가되었다. 고객 또한 공단 관계자들에서 가족단위로 이동하였다.

## ② 주요 시설과 기억

# • 세원로터리

세원로터리는 현 학장사거리 주변에 있던 ㈜세원이라는 커다란 신발회사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구술자 대부분은 학장사거리보다 세원로터리에 익숙해져 있다. 학장 사람들이 마을을 이해하는 중심점이 세원로터리이다. 1990년대 학장으로 이주해 온 추미자 또한 현재 도축장 일대가 모두 세원 땅이고, 아주 대규모 공장이었음을 언급한다. 세원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 학장의 미용실이 엄청 잘되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세원이 없어지면서 "학장동이 조용해져 부렀"고, 목욕탕도

몇 개나 없어지고, 모텔도 없어지고, 대형마트도 없어지 게 되었다.

#### • 학장초등학교

학장초등학교는 1948년 사상초등학교 분교로 출발했다가 1950년 개교하였다. 김문자는 학교 건물이 조그마했다고 기억한다. 개교 초기 학교 시설이 비좁아 실내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흑판을 가지고 새밭에 가서 공부했다. 점차 엄궁, 주례 방면의 어린이들도 다 모여서시설이 부족해지자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적이 있다.

## • 주거시설

1970년대 초반 마을은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기와집도 드문드문 있었다. 초가는 낙동강 갈대를 사용해서만들기도 했다. 갈대는 엄궁에 가서 구해 왔다.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스레트 집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병짚과 흙을 섞어서 만든 흙집도 있었다. 그러다가 1983년처음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세원로타리 근처 동양아파트가이 마을 1호 아파트였다. 그 이후로 금강(1992년), 구학마을(1992년), 학장목화(1993년), 벽산(1994년), 학장반도보라(1994년), 삼성(1997년), 학장무학(1997년), 신구덕우성(2000년), 삼정그린코아(2014년) 등이건설되었다. 아파트가 처음 들어설 때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다. 아파트가 상징하는 최신식 주거공간이라는 의미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대상이었다.

## • 다다미집

마을에는 일본식 주택에 사용하는 다다미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강옥순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다다미는 낙동강과 학장천의 갈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 272

대를 주재료로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새밭마을에 억새가 많았다. 마을에는 다다미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만들어서 부평동 시장 등으로 내다 팔았다.

## • 계곡(야시골, 구덕천, 학장천)

학장동은 구덕산과 엄광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런 지형 덕분에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다. 더구나 환경오염이심각해진 요즘 사상공단과 구덕터널 개통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과거가 더 중요시 되는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구덕터널 위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야시골이라 했는데, 강옥순은 아버지로부터 "빨간 저고리 입고 노란 치마 입"은 야시를 봤다고 들었다. 터널이 없을 때 야시골에는 물이 많고 차가워 발을 오래 넣어 둘 수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여름에 땀띠가 나면 여기 물가 앉아있으면모두 나았다. 여기서 동네 아이들이 가재도 잡고 놀았다. 야시골의 물은 대림아파트 쪽으로 내려왔다. 조용만은 과거 여기에 집이 한 채 있어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한편 야시골 반대편 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구덕천이다. 신차연은 구덕천 물이 좋았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깊어서 멱도 감았다. 민물장어, 게, 다슬기도 많았다. 동네 빨래터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구덕터널 공사로 구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막혀버리게되었다.

강옥순은 아버지로부터 학장천에 배가 들어왔다고 들었다 한다. 어느 순간에 매립되었다. 학장천이 낙동강보다 지대가 낮아 범람하는 일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이

비만 오면 갇혀서 나가지 못했다. 하수구도 제 기능을 못했다. 게다가 사상공단이 생기면서 물길을 막으면서 침수는 더 쉬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사상공단이 들 어서기 전에 학장천에는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미꾸 라지, 붕어, 다슬기 등이 있었다고 한다.

## • 주례구치소

부산구치소가 1973년 학장과 주례의 경계 지역으로 이전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공식 때 많이 구경을 갔었다고 기억한다.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떡 한 쪼가리 얻어" 먹기기 위해서 구경 갈 정도로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관심의 대상이었다. "구치소 들어오면 들어오는 갑다. 이거 들어오면 들어오는 갑다"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보지 못한 대규모 시설이었고,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마을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주례구치소'를 '학장구치소'라고도 부르는 것에 대해, '주례'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학장과 상관없는 시설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 • 대남정신병원

이곳은 원래 기도원이었다고 한다. 조그마한 스레트로 지붕을 만든 건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대남병원으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원이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정신병원으로 전환할 때에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강옥순은 기도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목사의 딸과 친구였을 정도로 그다지 거리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 • 구덕터널

사상공단이 조성되고 확장되자 물류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덕터널을 건설하였다. 구덕터널은 8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84년에 완공했는데, 이 공사로 학장의 주요 마을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편입되어 버렸다. 당시 터널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에게는 터널 뚫으면 "억수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땅을 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 터널이 준공되고 민속마을도 생겼다.

## (3) 학장동 사람들의 생업

학장동 사람들의 구술에 따르면 낙동강과 관련해 재첩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 식혜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사상공단의 조성에 따라 공장에서 취업하는 사람, 이로 인한 인구증가와 관련해 다양한 생업 수단 등이 만들어졌다.

# ① 재첩국 장사

학장동 사람들이 1970년대 중요한 생업수단 가운데 하나는 재첩국 장사였다. 재첩국 장사는 당시 학장뿐 아니라 엄궁 사람들도 많이 했다고 한다. 재첩국 장사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한기 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들은 직접 재첩국 장사 경험이 없고, 어머니 세대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구술하였다 낙동강 특히 엄궁 방면에서 재첩을 잡아와 삶아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엄궁에서 구입해 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무렵에는 엄궁에서 재첩을 가져 올 때 운반수단이 없어 여성들이 머리에 이고 가져왔다. 재첩국을 끓이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구술은 나오지 않았으나, 다만 물에

담켜 놓았다가 씻어서 삶았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재첩으로 국을 끓이고 버리는 껍데기에서 알갱이를 찾아 먹었던 기억도 있다. 재첩국 장사는 인근의 주례, 서면, 개금 등 학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니면서 팔기도하고. 구덕재를 넘어 대신동으로 다니면서 팔기도 했다.

## ② 식혜 장사

식혜는 주로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로 팔았다. 김문 자의 기억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식혜를 많이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들어와 정착한 박영조의 어머 니도 단술 장사로 아이들을 키워냈다. 조용만의 기억에 따르면 어머니가 주로 부둣가로 다니면서 팔았다고 한 다. 막노동에 땀을 많이 흘리던 부두노동자가 주요 고객 이었다.

## ③ 구멍가게

경남 합천에서 이주해 온 이영순의 구멍가게 운영 경험은 학장동 사람들의 경제활동 방식 가운데 하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맺고 있는 마을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영순이 학장으로 이주할 당시는 사상공단에 공장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을 때였다. 그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들을 상대로 한 구멍가게의 모습을 통해 공단과 마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전부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시장에서 가져와야 했다. 당시에는 학장 주변에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 이었다. 감전동에 새벽시장이 생기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시장도 다양화되었다. 서면시장, 자갈치 등으로. 물건 운반을 위한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어 남편이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도로 사정이나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위험 해지자 남편이 면허증을 따고 트럭을 구입했다. 판매용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도 세월에 따라 달라졌다. 학장에 서 구멍가게를 하는 상인들이 단체로 물건을 구입해 서 로 나누어서 판매하기도 했다.

구멍가게에서 팔았던 상품으로는 쪽자, 돌사탕, 눈깔 사탕, 색소가 들어간 얼룩달룩 사탕, 뽑기, 쫀드기 등 과 자류, 탁주, 소주 등 주류, 오뎅, 부식 등이었다. 쪽자는 10원 했는데 연탄 한 장 들어가는 화덕을 피워놓고 쪽 자에 먼저 설탕을 한 숟갈 넣고 저어서 녹으면 소다를 약간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한다. 다음에는 기름칠이 된 판 위에 놓고 넓게 편 뒤 다양한 문양으로 찍어 굳어지 면 조심스럽게 뜯어 먹는 상품이었다. 요즘 애들은 먹지 도 않은 불량식품에 가까웠던 돌사탕, 눈깔사탕, 색소 들어간 사탕 등은 10원에 3알씩 주었다. 탁주는 인근 도가에서 한 말씩 가져다 장사를 했는데, 아이가 그걸 마셔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술 마신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오뎅은 겨울 이면 인기 있는 먹거리였는데, 술안주로 먹기도 하고, 자취하는 노동자들은 국물에 밥도 말아 먹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사상공단 노동자를 상대로 한 하숙집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소비하는 부식을 조달하기 위해 이영순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감자나 시래기 등 반찬 , 김치, 생선, 콩나물, 고등어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 "반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빡빡"했다는 이영순씨의 말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이 무렵 구멍가게에서 돈거래 방법 가운데 특이한 것은 외상거래가 많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

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외상으로 하고 물건을 가져갔다가 월급날이나 수입이 있는 날 갚 는 방식이었다. 구멍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판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상거래 를 할 때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 소비자와 가게 주인 이 확인하였다. 그런데 외상값이 많아져 한두 번에 갚을 수 없어지면 야간도주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9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외국 인들의 생활풍습이 학장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기도 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와 말 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소통하였다. 이 영순씨는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눈 치로 원하는 상품을 건네주고, 자주 사는 물건을 기억해 두었다가 팔기도 했다.

70, 80년대 사상공단의 번성만큼 붐볐던 구멍가게는 90년대 이후 타 지역에서 이주해 왔던 한국인 노동자를 대체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한 때 마을이 붐볐으나 이제는 이들도 떠나고 한산해졌다.

# ④ 사상공단 노동자

사상공단에서 노동한 경험은 토박이는 없고,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학장동 사람들에게 사상공단의 대표적인 공장은 국제상사, 세원, 금성사료, 신창공업사 등 부근의 큰 공장에 대한 기억이 많았다. 이외도 공해의 주범인 염색공장, 주물공장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이번 구술자 가운데 사상공단에서 노동한 경험자는 심상범, 권용옥, 박영조 등이다. 심상범은 경북청송에서 이주해 와 흥하목재라는 제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다. 장롱에 붙이는 무늬목을 만드는 일이었다.

제재소 노동은 먼지와 소음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 나무를 자르는 톱날은 항상 위험했다. 그는 발목이 잘리 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권용옥은 동양아파트 살면서 세명사라는 포장박스공장에 6년간 근무하였다. 근무시 간은 대체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공장이 아파트 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아이들 학원비 마련이 목 적이었다고 한다. 박영조는 국제상사 출하반에서 근무 했다. 업무 내용은 생산된 상품 즉 고무신이나 장화를 자동차에 실고 부두로 배달하는 일이었다. 아마 부두 마 다 돌아다니면서 주문된 양을 내렸다는 것으로 봐서는 한 부두 혹은 선박에 일괄적으로 옮긴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국제상사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돈 을 적게 준다고 망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무렵 하청 기업도 망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실업 자도 늘어나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업과 장사를 하던 학장 사람들도 "망해뿌게" 되었다.

# (4) 사상공단과 학장동의 변화

학장동 사람들에게 사상공단은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 공단은 학장동에 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생활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토박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학장으로 이주해 와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장은 조그마한 농촌에서 공장굴뚝이 솟아있는 도회지로 변했다. 공단에 의존해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공단 때문에 구덕터널이 생겨 부산의 중심과연결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시내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단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검은 눈'과 구역질나는 내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 구

덕터널 공사는 구덕천과 야시골로 흐르던 차고 맑은 물 의 상쾌함을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만들었다.

#### ① 인구증가와 주거시설

사상공단의 조성으로 학장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먼저 그동안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터전이었던 토지를 모두 팔았다. 사상공단 조성을 위해 정리사업을 공시하자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해의 우려보다 새로운 발전이라 생각하고 또 토지 보상금도 많았기 때문에 "좋다고 팔았다". 조용만의 부친은 공장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되자 일찍 팔았으나, 친구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 큰돈을 버는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단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마을은 시끄러 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주택을 개조하여 사상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된 쪽방을 만들어 임대를 하였다. 강옥순씨도 방 6개를 만들어 임대하였다. 신차연씨는 '나래비'집을 지었다고 한다. 전라도 사람 12가구에 세를 놓았다고 한다. 로터리 근처에 있던 세원에 취직하러 오는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할머니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일하러 오는 손자 손녀들 밥해주기 위해서.

한편 사상공단이 활성화되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노동자들은 공단 주변에서 하숙을 많이 하였다. 학장에 서도 남자들은 한 방에 몇 명씩 하숙을 하였다. 당시 공 장들이 대부분 주야간 교대근무였기 때문에 한 방 하숙 생은 생각보다 많았다. 하숙비는 1인당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컸다. 전문으로 집을 빌려 하숙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하숙도 만만찮았다. 새벽에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도 제공해야 했다. 당시 학장은 "남포동 번화가"였다. 다른 지역에서 노동자의 친구들이 놀려오기도 해 공휴일이 되면 '바글바글'했다.

## ② 마을 환경

하지만 공단은 마을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을음, 마을 사람들은 '검은 눈'으로 부른다. 흰 빨래는 말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어떤 통제도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냄새나는 갑다"라고 생각했지 오늘날처럼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조용만도 학장초등학교 옆이 집이었는데, 공단이 조성되면서 "검은 눈"이 내려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많이 났다. 특히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꾸리한 냄새는 학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1988년 세원로터리 부근 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던 권영옥은 사상공단에 솟아있 는 굴뚝과 거기서 뿜어 나오는 매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 청소를 해도 새까맣게 변했다. 학교가 공단 가운데 있어 난감해 하기도 했다. 공단의 지대가 낮아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자주 침수되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때 장 화없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이번 구술자들 대부분은 사상공단이 이전하고 서부청사가 만들어지면 학장동이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편저자

녹취록 편집 : 김혜진(경성대 외래교수)

심현호(경성대 외래교수)

구술자료 해제 : 차철욱(부산대 교수)

#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2

#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발 행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 - 888 - 5056 \sim 8$ 

기확편집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18년 11월 30일 인 쇄 성진종합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454-14

ISBN 979-11-85308-18-0

979-11-85308-12-8(세트)

(비매품)

# 원문공개

부산시(www.busan.go.kr) 부산소개> 부산의 역사>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